

2009

# 책바라시

치식을 찾아 보자  
오체불만족  
오세일포  
세종대왕  
순례자  
나와 마카해  
우물 속의 그녀  
아가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정리 권  
팬이부리말 아이들  
명혜  
손이 삼촌  
와 울 발 중국 아가씨  
고양이 마을 신나는 학교  
시크릿  
내 생애의 아이들  
위대한 영혼, 간디  
리터의 눈물  
즐어진 추억조개  
꿈의 화  
19세  
아름다운 우정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시간먹는 시떡깨바  
유아의 길  
배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엄마를 부탁해  
무기 팔지 마세요  
진짜엄마와 가짜엄마





## 도서관 헌장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 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확보하면서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공공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천명하였다.

- 1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 2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 3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 4 도서관은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자주, 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 5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다.

##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희망이 시작되길...

###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든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좋은 책 한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책을, 많이 찾아 읽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주변에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책이 인생에 큰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아리산 자락에 시립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올해에는 어린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중리동에 개관하였습니다.

이천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이천시립도서관에서는 건전한 독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책읽기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한 독서감상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모아 “독서감상문 모음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입상 작품들을 묶어 독서감상문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2009

책바라기' 라고 이름 지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집에는 지난 9월 독서의 달에 독서감상문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들과, 어린이 책날개교실 글모음, 아침독서 지도교사 수기, 시민문화교실 참여자 및 강사 수기 등 2009년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독서 활동에 참여한 글들을 모아 엮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하여 학생들의 공모 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많은 학교에서 '아침독서 10분 운동'에 참여해 주신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읽기 쉬운 책에서부터 어려운 책까지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진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 책바라기'를 발행 하는 일이 우리지역에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좋은 계기가 되고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천시립도서관으로 오세요.  
도서관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끝으로 2010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천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 현 숙

## 목 차

■ 발간사 (이천시평생학습센터 이현숙 소장) .....	2
■ 사진으로 보는 이천시립도서관	
•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	10
•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	15
•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	22
■ 독서감상문	
〈2008년〉	
고등부	
이진희 - “시크릿”을 읽고 .....	29
구정빈 - “내 생애의 아이들” .....	32
김수정 - “19세”를 읽고 편지쓰기 .....	35
조윤정 - 세상을 향해 던진 난쟁이의 작은 공 .....	39
중등부	
김기현 - “바람의 화원”을 읽고 .....	43
조서희 - “큰발 중국 아가씨” .....	45
김희진 -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읽고 .....	50
김재현 - “자유의 길”을 읽고 .....	53
초등부	
조재연 - “시간먹는 시떡깨비”를 읽고 .....	56
조서연 - “초정리 편지”를 읽고 .....	59

## 목 차

홍태림 - “위대한 영혼, 간디”를 읽고 .....	61
김우린 - 당당하게, 명혜처럼! .....	64

### 〈2009년〉

#### 일반부

이재욱 - 인생, 그 순례길을 걷다 .....	71
임진선 - 우물 속의 그녀 .....	78
김은옥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82

#### 고등부

강시은 - “엄마를 부탁해” .....	87
김은지 - 참 된 민주주의란? .....	90
안지영 - “미안해, 스이카” .....	94
이소정 - “순이 삼촌”을 읽고 .....	97
이현주 - 나로부터의 소외, 너로부터의 소외 .....	101
정영미 - 흩어진 추억조각 / 스타시커 .....	104
허은지 - “데미안”을 읽고 .....	111
홍혜원 - “나의 미카엘” .....	115
소보미 - 변화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	118

#### 중등부

이경연 - 세상에 당당해 지기 .....	121
박다운 - “너도 하늘말나리아”를 읽고 .....	125
한보람 - 십시일反 .....	128
류세영 - “지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 .....	132
한승혜 - ‘오체불만족’을 읽고 .....	136

## 목 차

이예진 - ‘마시멜로 이야기’ .....	140
고소현 - “1리터의 눈물”을 읽고 .....	144
이혜린 - 마주보며 커가는 팽이부리말 아이들 .....	149

### 초등부

유은주 - “진짜엄마와 가짜엄마”를 읽고 .....	154
조재연 - “무기 팔지 마세요”를 읽고 .....	156
한현구 - “모모”를 읽고 .....	159
홍태림 - “세종대왕”을 읽고 .....	162
박세윤 - 아름다운 우정 .....	165
이진주 - “고양이 마을 신나는 학교” .....	168
김아라 -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	170

### 책날개 교실 어린이 글 작품 .....

지예지 - 나의 일상 / 김 원 -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전세은 - 나의 꿈 / 박민성 - UN사무총장 / 양혜지 - 내 장래 희망	
서다연 - 논술 선생님께 / 김성이 - 우리집 물고기의 생활	
안치훈 - 곰 세 마리에 맞춰 / 김세빈 - 명성황후님께	
이지우 - 신사임당 할머니께 / 윤주희 -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박상연 - 장영실 할아버지께 / 최가연 - 유관순 언니께	
최혜연 - 이순신 장군님께 / 박혜윤·김은비·최가연·김수현 - “꿈틀이사우루스”를 읽고	
최혜연 - 나에게도 잔소리 없는 날이 생긴다면... / 박수빈·이종현 - 토론을 마치고	
박상연·이다영·강량아 - 박사님께 / 조정의 - 미륵사지 9층석탑	
최보나·임새하·최서영 - 무인도에 침입한 야단법석 관광단 / 전윤진 - e-메일 보내기	
김서현 - 추석 / 안은희 - e-메일 보내기 / 이소영 - 내 짝꿍	
김성재·주혜일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박수성 -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이재진 - 먹보장군 / 박시연 - 내 짝꿍	

## 목 차

<b>■ 아침독서 10분 운동 지도교사 수기</b> .....	219
서성민 -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길	
최원실 - 책 속에 있는 길 이상의 것!	
이세규 -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아침독서”	
박선미 - 책으로 크는 아이들	
손희정 -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10분’	
정은영 - 우리 함께 다른 세상으로 떠나 볼래?	
<b>■ 도서관 자원봉사자 · 자원강사 수기</b> .....	237
샌디 윌리엄스 - 원어민 자원봉사활동 수기	
한경희 - 도서관 친구의 행복한 보람	
최종숙 - 북스타트의 행복찾기 게임	
민현옥 - 책 속에 길이 있다	
진명희 - 수요일은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날	
한재희 - 상품권이 뭐 길래……	
이인환 - 배우는 즐거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황병순 - 멀쩡한 이유정	
정혜숙 - 폼나는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b>■ 추천도서목록</b>	
· 사서 추천 목록-일반 .....	273
· 사서 추천 목록-어린이·청소년 .....	279
<b>■ 이천시립도서관 이용안내</b> .....	283



# 사진으로 보는 이천시립도서관



##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 ▷이천시립어린이 도서관 개관
- ▷청미도서관 증축 개관
- ▷이동도서관 버스 교체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 ▷도서관 주간 행사(4월)
- ▷독서의 달(9월)
- ▷시민문화교실
- ▷방학프로그램
- ▷북스타트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 ▷도서관학교
- ▷Check, 책 토요장터
- ▷정기간행물 나눔 행사
- ▷우수만화 전시회
- ▷책날개 교실
- ▷주말프로그램
- ▷소외계층프로그램

##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 ▷도서관 야간 연장 및 야간프로그램
- ▷아침독서 10분 운동 및 단체대출문고
- ▷자원봉사 모집
-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사업 지원
- ▷도서관 운영 위원회 개최
- ▷제5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참여

## 어린이도서관 개관

이천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2009년 6월22일 개관된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하루 평균 500~600명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업비 1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용면적 400평에 1층에는 유아공간으로 새싹자료실, 도란도란방, 아가맘마방, 2층에는 초등생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꿈나무자료실, 소곤소곤방, 디지털요술램프, 잉글리쉬존, 북카페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방으로 이루어졌으며,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활용하여 독서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락방, 비밀의 방, 오목 공간 등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 32,461권, 디지털자료 2,046점의 개관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책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가고 책과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가 적극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층 새싹 자료실



▲2층 꿈나무 자료실



▲도란도란방 책 읽는 모습



▲꿈나무 자료실에서 책 읽는 모습



▲놀이뮤지컬 "애들이 놀자" 관람 모습



▲페이스 페인팅



▲매직쇼



▲퓨전마당극 "놀부동생 흥부"

## 어린이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어린이도서관 개관(2009. 6. 22)을 기념하여 어린이 매직 콘서트, 페이스 페인팅, 꿈꾸는 바람개비 만들기, 원화전시회, 클레이랑 놀자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3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의미를 되새겼고, 어린이도서관을 대내외로 알리는 홍보의 마당이 되었다.





## 청미도서관 증축 개관

청미도서관이 2009년 7월 15일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하였다.

청미도서관은 지난 2002년 말에 신축 개관하여 현재 7만 여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평생학습과 정보문화공간의 역할을 해왔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사업비 7억1천만원(증축공사 5억6천만원, 집기구입 1억5천만원)을 투자 1층 문헌정보실, 가족열람실 공간을 넓히고, 2층 451.44㎡를 증축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 자유열람실 등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문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으며, 특히, 가족열람실은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공간이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온돌마루를 설치하였고, 디지털자료실은 15대의 PC를 설치해 정보검색, 그래픽편집, DVD시청 및 전산교육이 가능토록 하여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전자정보 제공으로 도서관 기능을 완벽하였다.



▲디지털자료실



▲문헌정보실



▲문화교실 강의실



▲자유열람실



## 이동도서관 버스교체

2009년 4월 22일부터 이동도서관 버스가 시 캐릭터인 아리, 도기, 온이, 흥이를 활용하여 산뜻한 외부디자인과 이전 보다 넓은 도서공간을 갖춘 새 차로 바뀌어 운행되고 있다. 차량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간도서도 3천여권이 구비되어 웬만한 작은 도서관을 능가한다. 이동도서관은 시간적, 지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4월부터 읍, 면 지역에 운행되고 있다.



달리는 지식창고! 행복배달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천시립도서관은 2006년 열매작은도서관의 조성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6개소를 조성 운영 하였고 올해 6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총12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는 비록 작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두어 이천시립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민밀착형 복합공간으로 평생교육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포작은도서관



▲에버빌작은도서관



▲열매작은도서관



▲해오름작은도서관



▲아리마을작은도서관



▲한마을작은도서관



▲희망작은도서관



▲사동누리작은도서관



▲동양작은도서관



▲이화작은도서관



▲비승병영작은도서관



▲한솔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 열매작은도서관 대월면 초지리 420-2
- 동양작은도서관 송성동 322 동양APT
- 한솔작은도서관 백사면 조읍리 627 한솔APT
- 희망작은도서관 중일3동 현대홈타운 106동 지하층
- 해오름작은도서관 중리동 455 이천년초교내
- 한마을작은도서관 부발읍 아미리 753 현대7차APT
- 이화작은도서관 부발읍 응암리 102-2 이화아파트
- 사동누리작은도서관 대월면 사동리 386-72 현대5차
- 비승병영작은도서관 대포동(사서함 867-7) 항공직전사령부
- 아리마을작은도서관 송성동 신일아파트
- 에버빌작은도서관 갈산동 782 현진에비빌아파트
- 중포작은도서관 중포동 244-3 대우2차아파트



##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제45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원화 전시회, 작가 초청 강연회, 북아트 특강, 대한민국 우수만화 전시회, 권장도서 목록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작가초청 강연회 : 조미아 교수님 초청  
 ◀북아트 특강 : 솟자송북아트, 도날드와 레이디덕 메모수첩



## 9월 독서의 달 행사

2009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이천 시민의 독서욕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화전시회, 작가초청 강연회, 추천도서 목록 배부, 파손도서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독서감상문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며 지적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작가초청 강연회 : 유은정 선생님 초청



▲독서감상문 공모 시상식



▲독서의 달 행사 (폼클레이로 멋진 가면 만들기)



▲독서의 달 행사(강추 책정책)



▲독서의 달 행사(원화 & 파손도서 전시회)



점핑클레이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 시민문화교실



도서관을 시민의 지적 활동, 문화활동, 여가선용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종합문화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심리치료, 우리아이 독서지도, 북아트 특강, 영어 스토리텔링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매 기수마다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기까지 총 1,65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인형극 공연 및 미술쇼 공연



▲신문은 내친구



▲동기부여 역사특강



▲생활과학교실

## 방학프로그램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겨울방학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속으로 떠나는 여행 외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여름방학프로그램으로는 들려주는 독서여행의 12개의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이 열려있는 문화공간 및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클레이랑 놀자



▲POP교실



▲북ایت 특강



▲들려주는 독서여행



▲우하하 신나는 연극놀이



▲영어 스토리텔링(짹수주 토요일)

### 북스타트 프로그램

2006년 7월 29일 선포한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에  
부터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과 친숙해질 기회를 갖도록 하기위해 영유아를 대상으  
로 이천시립도서관에서 펼치는 독서문화운동으로, 매주 목요일 어린이도서관 새책  
자료실에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보건소 예방접  
종시간에 맞추어 찾아가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계 프로그  
램으로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4기에 걸쳐 운영하여, 다양한 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책놀이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책놀이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책놀이



▲북스타트 활동 참여 모습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활동 모습



▲북스타트 활동 참여 모습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모습

어린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자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인 “1일 도서관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안내와 더불어 쉽게 자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일 도서관 체험 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하고 책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 도서관 학교

시립도서관에서는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도서관에 대한 제반 업무를 교육하고자 처음으로 도서관학교를 운영하였다.

2009.5.21~ 2009.6.12까지 매주 목, 금요일 4주 과정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이천시가 주관하고 동원대학 산학협력단이 주최하였으며 대상자는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도서관에 관심있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원봉사자의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학교 수업장면



▲도서관학교 파주출판단지 견학



## Check, 책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1시에 열리는 Check, 책 토요일은 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을 체크하여 서로 교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토요일터를 통해 필요한 책을 교환하며 경제적 효과와 바꿔 보는 재미를 느끼며 지속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Check, 책 토요일 운영모습

## 정기간행물 나눔행사

매년 연초 지난해 1년 동안 도서관에서 구입 소장하였던 정기간행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간행물 수집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 시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년도 정기간행물 나눔행사



## 대한민국 우수만화 전시회

우수만화를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대한민국 우수만화 전시회 및 만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만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주제 : 그리자 컷 1컷 컷)

## 책날개 교실

책날개 교실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7기까지 총300여명이 넘는 어린이가 수강한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동안만 운영되던 독서교실에서 한걸음 더 발전하여 학기 중에도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교육법 교육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책임기 방법 교육을 통해 독서에 자신감을 불어넣고자하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독서 모임을 통해 방과후 교실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독서신문 만들기



▲생각쑥쑥 책날개



▲책날개교실 작품 전시



▲클레이 교실

## 주말프로그램

시립도서관에서는 주말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내친구」라는 이름으로 '클레이교실, 골판지공예, 어린이뮤지컬 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골판지공예



▲어린이 뮤지컬교실

## 소외계층 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동화구연을 배우고, 인형을 만들고 인형극을 연습하여 어린이들에게 「브레멘 음악대」를 직접 공연해 주기도 했다. 또한 「행복한 실버 도서관 친구들 미술교실」을 운영하여 미술심리치료 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버의 보람과 행복을 도서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레멘 음악대 공연 모습



▲공연 끝난 후



▲행복한 실버 도서관 친구들 미술교실



▲미술심리치료 활동모습

## 야간 연장 및 야간 프로그램

이천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에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자료실 및 열람실 개관 시간을 야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헌정보실(일반자료실)은 오후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연장되고, 열람실은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심리 특강 및 왕초보 영어 교육 과정, 인형극 공연 및 엄마랑 함께하는 소품공예 만들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왕초보 영어 교육과정



▲부모심리교육 특강



▲엄마랑 함께하는 소품공예만들기

## 아침독서 10분 운동 및 단체대출문고

2008년부터 독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하는 범시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책을 읽자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으로 도암초등학교가 모범이 되고 있다.



▲도암초등학교- 아침독서 10분 운동 독서풍경



▲단체대출문고 대출모습

##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사업 지원

시립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활발한 독서활동 및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자원봉사자 활동모습

이천시립 도서관에서는 2007. 4. 11 도서관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원 봉사자의 도서관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 활동 부분은 단순한 서가 정리를 비롯하여 고정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오후 북스타트 자원 봉사, 매주 토요일 어린이 및 부모를 대상으로 원어민 샌디선생님과 캐시선생님의 영어스토리텔링과 푸른소리 동아리에서 연극놀이 동화구연을,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에게 책읽어주기를 하기도 한다. 특히, 다른 도서관과 특이한 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3년째 봉사를 해 오고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개관에 앞서 2009년 6월 17일에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새롭게 활동할 40명의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였다.



▲파손도서 수리



▲샌디선생님 영어 스토리텔링



▲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 위촉식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모습

##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수시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이천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동화구연, 종이접기, 풍선아트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 활성화하여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회의



▲동양작은도서관-생태체험학습



▲한마음작은도서관-웰빙 주부건강교실



▲열매작은도서관-구연동화



▲한마음작은도서관-풍선아트



▲희망작은도서관-서예교실

##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도서관 참여

제4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행사기간중 이천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억의 만화방, 알뜰교환장터, 나만의책갈피만들기, 풍선캐릭터나눔행사, 흥미진진복화술공연, 이슬이의꿈속여행(금연연극), 독서신문전시회등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천시립도서관은 평생학습축제 오감만족체험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민들과 축제를 통하여 함께 체험하고 즐기며 상호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억의 만화방 운영으로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독서 분위기 조성



▲도서관알뜰교환장터를 통해 타인의 소장도서와 교환하여 읽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평생학습축제 오감만족체험분야~ 시립도서관 최우수상 수상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동반 축제관람객 모여모여~





# 2008

# 독서감상문

## 고등부

- 이진희 - "시크릿"을 읽고
- 구정빈 - "내 생애의 아이들"
- 김수정 - "19세"를 읽고 편지쓰기
- 조윤정 - 세상을 향해 던진 난쟁이의 작은 공

## 중등부

- 김기현 - "바람의 화원"을 읽고
- 조서희 - "큰발 중국 아가씨"
- 김희진 -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읽고
- 김재현 - "자유의 길"을 읽고

## 초등부

- 조재연 - "시간먹는 시막깨비"를 읽고
- 조서연 - "초정리 편지"를 읽고
- 홍태림 - "위대한 영혼, 간디"를 읽고
- 김우린 - 당당하게, 명혜처럼!





【고등부 동상】

## 「시크릿」을 읽고

이진희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 책의 첫 글귀가 하늘에서 그러했듯 땅에서도 그러하리. 내면에서 그러했듯 외부에서도 그러하리.

기원전 3000년경 에메랄드 서판. 의미심장하면서도 비밀에 대해 언급하는 이야기이다. 이 글귀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된 것의 일부이다.

들어가는 말에서는 작가인 론다 번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열망으로 집필하려고 그녀와 같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집필하고 시크릿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책 속에서 ‘당신’이라는 말을 강조했고 그 이유는 이 책의 독자인 당신을 위해 만들었다

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비밀’을 배우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리라. 진실로 웅대한 삶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글이 적혀 있다. 정말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차례에서처럼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비밀을 활용하는 법, 두 가지 강력한 도구 돈의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건강의 비밀, 세상의 비밀, 당신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 수록되어 있다. 비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비밀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고 비밀을 사용하는데 강력한 도구인 감사하기와 그림 그리기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어떠한 것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준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책의 구절이나 명언, 또 집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말을 넣어 집필하여 그 말을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게 만든다.

작가가 집필한 이 책은 재미와 교훈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에서 1단계 구하라, 2단계 믿어라, 3단계 받아라.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활용하는 것이다. 이 3단계를 잘 이용하여 비밀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된다. 말의 어투를 조금만 바꾸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비밀이 행해져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 이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고 비밀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비밀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이라 표현한 것처럼 멋있었다.

마지막 부분에 인물소개 집필을 도와준 사람들을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나도 한번 소개된 인물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나 또한 이런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책을 집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시크릿’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 예전의 내가 아닌 조금 더 나은 내가 된 것이다. 계속 발전시켜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을 아직 안보거나 못 본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책이고 이러한 비밀을 나 혼자 알고 있긴 매우 아까운 것이다. 서로서로 좋은 것을 권하며 세상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은 것이다.

【고등부 동상】

## 「내 생애의 아이들」

구 정 빈 | 장호원고등학교 1학년



아들 그리고 딸에게 너희들이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편지를 너희들에게 남긴다. 나에게서는 낯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정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내 생의 아이들’. 너희에게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다. 책에 나오는 아이들과 달리 우리는 불편 없이 지내고 사회적으로 속박당하지도 않는 평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음... 나의 어렸을 적 추억일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거 같구나. 1999년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기억나는구나. 머리에 스프레이를 바르고 웃도 멋지게 차려입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지. 높고 검은 아스팔트 언덕과 부모님과 학교 정문이 내

앞을 기다리는 장면이 떠오르는구나. 학교가 어떤 세상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라는 게 설렘보다는 두렵고 낯설어서 단지 8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끌려가는 거라고 느꼈단다. 빈센토도 아마 그랬을거야. 가난한 이주민으로 안전한 아버지 품에서만 자라온 그 아이의 심정은 얼마나 두려웠겠니? 아이들은 정말 여리고 약한 존재란다. 그러나 빈센토가 결국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나는 이처럼 쉽게 흐트러짐 없는 순수함 그리고 두려움과 접촉할 줄 아는 용기를 너희들이 가지기를 원한다.

또 다른 기억도 있다. ‘스승의 날’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같은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거 같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지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선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클레르, 그는 가난한 집 사정 때문에 아이들이 성탄절의 흥분이 고조된 틈에 끼어들지 못했단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던 클레르에게 선생님이 말했다.

“어린 학생이 나한테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건 정말 멋진 선물일거야.” 라고.

클레르는 그런 선생님을 위해 추운 겨울 바람을 뚫고 선생님 집에 직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어. 클레르는 집에 있던 노란 손수건으로 포장한 선물을 주고 먹을 것을 권해도 오직 선물 꾸

러미만 풀기를 원했지. 클레르는 작은 선물이라도 선생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행복과 설렘을 느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선생님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

이런 여러 아이들을 소재로 이 책은 여섯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었다. 다른 언어로 갈라진 다민족을 노래라는 예술로 모아주는 날-우크라이나 언어로 선보이는 맑은 소리로 약하고 낮고 미쳐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흥분을 가져다 주는 아이였지-이 있고,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앙드레가 있었지. '찬물 속의 송어'에서는 너희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했던 메데릭과의 사랑과 이별을 그려내고 있지.

이 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고, 아이들의 순수함과 더럽혀지지 않은 면모를 배울 수 있다. 저 넓은 들판에 눈이 평평 내리는 모습처럼 평화롭지만 고달픈 현실이 떠오른다.

60대의 작가가 18살 청소년을 간신히 벗어난 여교사로 생활하면서 겪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처럼 너희들도 어렸을 적 두려움, 설렘, 순수함, 자유로움에 얽힌 기억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중한 너희들만의 추억으로 승화되었으면 좋겠구나. 무엇보다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너희의 과거나 미래를 떠올리며 읽어 보고 책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 두었으면 좋겠구나. 나도 이 책을 읽으며 한 아이가 되었던 거 같다.



【고등부 은상】

## 「19세」를 읽고 편지쓰기

김수정 | 장호원고등학교 2학년



중3 여름방학을 앞둔 내 동생 명일에게 명일아, 안녕! 나 수정이 누나야. 벌써 7월도 중순으로 치닫고 있고 여름방학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이번 여름방학이 네겐 중학생으로서 맞는 마지막 방학이라 할 수 있겠구나!

겨울이 다가오면 너는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겠지.

오늘 누나가 네게 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어. 이 친구는 네 또래쯤 되고 역시 고등학교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하고 있어. 흠, 그러면 네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누나가 이야기 할 아이의 이름은 이정수야. 중학생이던 정수는 어느 날, 친구인 박승태와 같이 대관령에 가보게 된다. 넓디

넓은 밭과 그림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온 정수는 마음 속에 농사의 꿈을 품기 시작해. 정수는 공부를 웬만큼 잘했어. 그러나 항상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정석이 형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묻혀버리곤 하지.

“아, 네가 그 이정석의 동생이냐?” 하고 말이야. 고등학교로 진로를 결정할 때, 정수는 선생님과 가족들이 인문계인 강고로 진학할 것을 권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상고로 진학한다. 그러나 상고에서 정수는 주산실력이 좋지 않았지. 정수는 상고에서 주산이 안되면 나중에 취직도 되지 않으니, 아버지께 차라리 농사를 일찍 시작하겠다고 선언해. 아버지가 반대하자 교복과 교과서를 태우고 집을 나가기도 하지. 결국엔 정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대관령 아는 아저씨의 밭에 농사를 지러가게 돼.

첫째, 첫째 농사가 망하면 두말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학교에 다닐 것.

둘째,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을 빠짐없이 읽을 것.

대관령에 간 정수는 매일 매일 열심히 일한다. 자신이 가꿔 나가는 밭에 애정을 다하지. 결국 첫 해 농사는 정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어. 이제 정수는 자신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농사 짓는 어른들이 이제 정수를 어른 대접했기 때문이야. 정수는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다방과 당구장에 드나들기 시작하지.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

든 행동은 어른의 행동이 아닌, 어른 흉내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느덧 19세가 되었던 정수는 다시 집에 돌아와 학교로 복학하게 된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바로 이순원씨의 소설 <19세>의 내용이란다. 누나는 이 책을 읽으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단다. 우리 또래의 정수처럼 누나도 명일이라도 항상 진로를 고민하고, 내 의견을 부모님께 주장하지. 명일이는 정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누나는 정수의 아버지께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 정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신다.

“정수야, 네가 결국엔 너의 길로 갈 것을 알기에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믿어 주고, 지켜봐 주시거든. 정수가 결국엔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 어른들은 살아온 지혜로써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것도, 선생님이 또 많은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서 충고를 하시는 것도 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수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지혜라고 누나는 생각한다.

조금 있으면 명일이 너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겠구나! 중학교와는 또 다른 경험이 될 너의 청소년기를 잘 맞이하기를 바

란다. 더불어 너도 <19세>를 읽어봄으로써 너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를 권하는 바야. 누나는 명일이야 지금 너의 모습을 미래의 네가 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라고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직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지 않지만, 충고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일야! 누나는 네가 항상 잘해낼 거란 것을 믿어! 정수처럼 진로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너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때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거라 확신한다. 명일이 파이팅!

2008년 7월의 어느날

사랑하는 누나가

【고등부 금상】

# 세상을 향해 던진 난쟁이의 작은 공

조 윤 정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지난 여름방학이었다. 덥고 지루한 하루를  
힙겹게 지내던 중 ‘에라, 책이라도 읽자.’는  
심정으로 발길을 향한 곳은 이천시립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이리 저리 뒤적거리다 ‘난  
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국어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보라며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고, ‘난쟁이’란 낯선 소재가 웬지  
모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책  
을 읽게 되었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은 1970년대의 부조리  
한 사회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급격한 산업화 속  
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도시 빈민층, 즉 난  
쟁이네 가족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시대의 심각한 소외 계층의 문제 또한 날날이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거인’과 ‘난장이’로 비유될 수 있는 극단적인 계급의 분화와 심각한 빈민층의 형성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란 명분으로 가난한 주민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강제로 내쫓았으며, 서민들은 오갈 곳 없는 도시 빈민이 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거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 담긴 소외된 도시 빈민의 문제는 이 시대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서지 못하고 있으며, 돈 문제로 가족이 해체되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또한 부유한 계층은 투기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지만,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가까스로 벼랑 끝에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여성과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 성매매와 부당한 폭력 등으로 고용자로부터 억압받는 억울한 삶을 버텨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세상 속 ‘거인’이라 할 수 있는 부유층은 ‘난장이’ 같이 힘없는 도시 근로자들을 무관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웃에 살던 가난한 노인이 굶어 죽었는데도 모르고 지나다가 몇 개월 후 발견된 일, 가난하고 빛 많던 한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강에 떨어져 자살한 사례 등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참한 삶을 무관심으로 바라

보는 우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참 많다.

내가 중학생때 우리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친구와 놀기 싫어했고, 만약 그 아이와 짝이 되면 선생님께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단지 자신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점만 다를 뿐인데 우리 반 친구들, 나 역시 점점 소외되고 있는 그 친구를 보살피거나 관심 갖지 않았다. 이 작품을 읽고 그때의 나를 돌아켜보니,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다. 이 책 제목이기도 한 ‘난장이’는 1970년대의 가난한 도시 빈민층일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던 그때의 나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다. 천국, 곧 부유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외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지옥, 즉 이 시대의 약자들은 매일 천국을 생각하며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나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을 읽으며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만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거인’ 만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인’ 이 있다면 ‘난장이’ 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와 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소외되고 약한 ‘난장이’ 들을 따스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이 더 이상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등부 동상】

## 「바람의 화원」을 읽고

김 기 현 | 이천중학교 2학년



이 소설은 다른 소설과는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소설에는 사랑에 대한 사랑,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아가려고 파헤치는 것, 천재 화원의 화려한 인생 등이 나온다.

그런 줄거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신윤복이 여자라는게 밝혀졌을 때 등 반전같은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신윤복, 김홍도에게 미적인 재능이 있듯이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재능을 한 가지씩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재능도 자신이 갖고 닦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반대로 갖고 닦는다면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답은 어떤 것이든 적극 참여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신이 즐겁고 남보다 뛰어난 점, 창의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므로 뭐든 열심히 해보면 된다. 즉, 땀이 있어야만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바람의 화원에서 그림에 대한 문화가 지금의 문화와 다른 것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는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내는 쪽으로 진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창의성같은 면에서 남들보다는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신윤복과 김홍도 중 닮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면 김홍도를 뽑고 싶다. 그 이유는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하고, 그림이 좋은 것 보다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 소설을 통해 난 재능에 대해 또 한번 알게된 것 같다. 이 소설로 내가 한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재능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말이다.

【중등부 동상】

## 「큰발 중국 아가씨」

조 서 희 | 증포중학교 1학년



이 책은 학교에서 권장하는 도서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중에 읽으려고 했지만 친구와 중국의 '전족'이라는 풍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큰발 중국 아가씨가 전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자 그 풍습이 어떠한 풍습인지 알고 싶어진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풍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 전족이라는 풍습을 알게된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 이름있는 타오 가문에 아이린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전족이란 풍습에 대하여 알

지도, 알고싶어하지도 않았습디다. 그저 보모에게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자신의 발은 전족을 하지 않아 자유로워 보모를 따돌릴 수 있는 반면에 보모는 전족을 하여 발이 자유롭지 않아 아이린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디다.

어느날 아이린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남편이 될 한웨이 도령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지만 한웨이 도령의 어머니인 리우 부인은 아이린이 전족을 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 걸렷했습니다. 아이린의 어머니도 벌써 눈치를 채고 아이린의 발을 묶으려고 하자 아이린은 도망치고 끝내 둘째 언니에게로 가서 전족이 무엇인지 전족을 한 언니의 발은 어떤지를 보고 난 후 전족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 후에도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께서도 나서서 아이린의 발을 묶으려 하지만 아버지의 찬성으로 아이린은 정말 발을 묶지 않게 됩니다.

전족을 하지 않은 것을 흠으로 한웨이 도령과는 파혼했지만 아이린이 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이린이 그토록 원하던 공립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학비를 대주시기로 합니다.

공립학교에서도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립 학교에서는 전족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3명이나 있어서 아이린에게는 그나마 조금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아이린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십니다. 학비를 대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이린이 공립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그동안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길버스 선생님께서 영어 실력이 아깝다며 과외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행복조차도 오래가지 못하고 아이린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실을 길버스 선생님께 알리자 길버스 선생님께서 친구이신 워너씨에게 부탁을 하여 아이린이 워너씨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워너씨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과 아이린도 함께 가자는 권유를 합니다. 아이린은 많은 고민 끝에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시간이 흐른 후 아이린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주기 위해 차이나타운에 갔다가 차이나 타운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배에서 봤던 좋은 남자 제임스 추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났고 워너씨 부부가 어려운 경제 형편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나 아이린은 미국에 남아 제임스 추와 결혼을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아이린은 이름있는 타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족, 귀족은 전족을 하기 마련이지만 아이린은 전족을 해야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린은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저 같으면 그것이 맞는건가보다 하며 현

실에 순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린의 그 당찬 모습과 당돌함이 저를 놀라게 했고 제 자신을 뒤돌아 보게 했습니다.

원래 전족이라는 풍습은 당나라 황제의 궁에 있던 한무희가 오늘날의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발을 묶었는데 그 모습이 우아하여 여자들이 앞다투어 따라 했다고 합니다. 과거, 세계에는 여자들에게는 불합리했던 풍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족과 더불어 영국 여자들은 코르셋을 꼭 조였으며 아프리카 여자들은 입술을 접시처럼 늘려야 했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결혼을 한 후에는 집밖 출입을 삼가야 했다는 것, 족보는 남자 중심이며, 또한 축첩제도라는 것 등이 그 예이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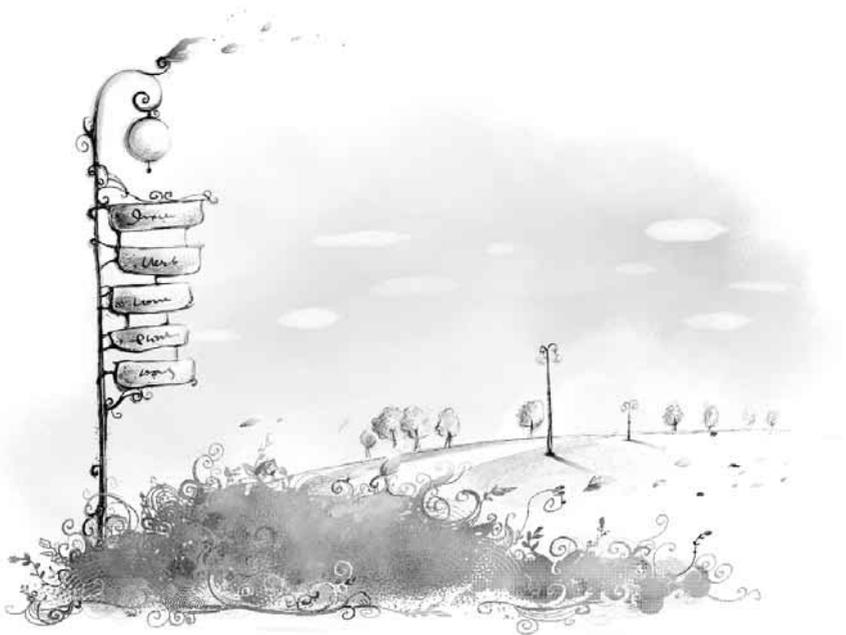
여자들은 차분하고 얌전해야 하며 나서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결정은 남자들이 도맡아 했으며 여자들이 친하게 여겨졌던 것이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여자인 저로써는 참 서글프고 속이 상합니다.

그에 따라 저는 전족이 100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도 여자들은 왜 그 고통을 감수한 것인지 엄마들은 자신들도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서 그런 고통을 딸에게도 물려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한 실험에 따르자면, 여자들이 두 줄로 마주보고 서있을 때 남자는 주춤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지만 남자들이 두 줄로 마주보고 서있을 때 여자는 잠시 주춤한 후 그 길을 당당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힘으로 억압하려고 성범죄 등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과거에도 남자들이 여자를 힘으로 누르기 위해 전족이라는 이런 풍습도 생겨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중등부 동상】

##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읽고

김 희 진 | 부발중학교 3학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보통 남들이 얼굴 빨개져야 할 때 빨개지는 게 아니라 빨개져야 할 이유가 없을 때도 그냥 얼굴이 막 빨개진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르스랭 까이유이다. 마르스랭은 얼굴이 자주 빨개져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국 외톨이가 되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이 병 고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채기를 하는 아이 르네라토를 만나게 되었다. 르네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해댄다. 둘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같이 지내다 보니 결국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서 둘다 각자 결혼을 하

고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마르슬랭의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고 르네의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마르슬랭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 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얼굴이 빨개진다니 정말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나도 가끔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곤 하는데 그럴 땐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히려 빨개진 얼굴 때문에 더 민망해지는 것 같다. 얼굴이 항상 빨개져 있다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할 것이다. 마르슬랭은 모두의 얼굴이 다 타서 빨개지는 계절, 여름을 좋아하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그래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더 밝게 살아가는 마르슬랭에게서 배울 점도 많은 것 같다. 얼굴이 빨개져서 힘들게 살것만 같은 마르슬랭에게도 열심히 일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관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견뎌왔지만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관찮아지진 않았다. 그래도 마르슬랭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르네가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던 것 같다. 르네도 마르슬랭 만만치 않게 재채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르네 역시 희귀병이라 고칠 수도 없었다. 얼굴이 빨개지는 마르슬랭도 재채기하는 르네도 그런 단점 때문에 친구가 없어서 둘이 더욱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 것이 짜증나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르슬랭과 르네의 둘도 없는 우정을 배우

게도 되었고 마르슬랭의 처지를 이해해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도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그런 친구가 있을까?





【중등부 대상】

## 「자유의 길」를 읽고

김 재 현 | 부발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니 몸과 마음도 나른해지는 것 같다. 방학도 수업의 연장이라 방학숙제도 잔뜩 있고 말이다. ‘자유의 길’이라는 제목은 볼수록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고 자유가 허락된 사회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의 길이라는 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흑인 노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 책에서 흑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생명을 가진 벌레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외출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흑인이 물건으로 상품 취급을 받으며 사고 팔리는 노예시장. 많은 노예들이 빈곤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나마 편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태어난 내가 너무나도

미안할 뿐이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부, 권력, 명예, 행복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지만 가지지 못한 자유 등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옛날 그 흑인 노예들을 부리던 백인들과 같은 것은 아닐까?

총을 들고 다니며 많은 인디언들과 흑인 노예를 죽이던 백인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것은 아닐까?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해하며 까지 욕망을 이루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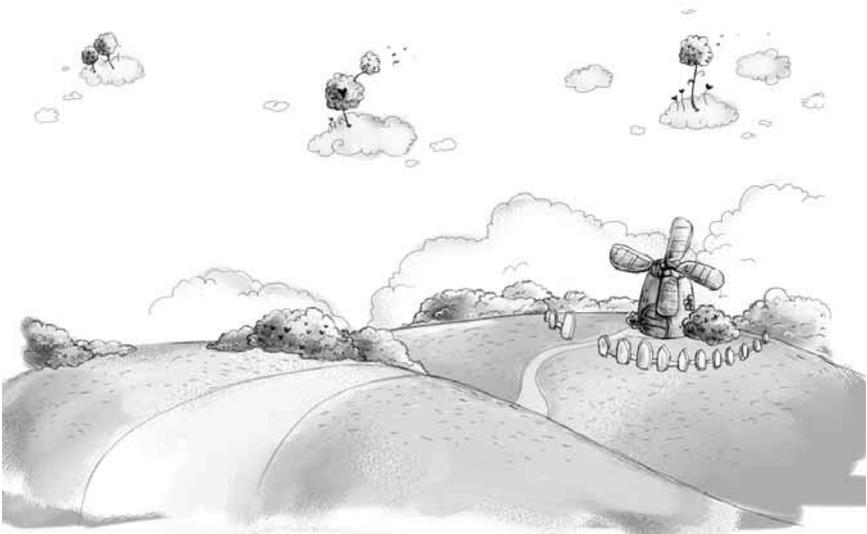
난 이 책을 읽어보며 한번만이라도 안타깝다고 느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이런 백인들처럼은 살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노예제를 없애던 링컨, 러시아에 노예를 해방한 알렉산드로 12세 등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는 우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흑인의 권리가 높아졌고 사회적으로 진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지 자기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미국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는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며 후보에 임하고 있다.

내가 미국인이라면 당연 오바마를 지지했을 것이고 오바마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노예들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부 동상】

## 「시간먹는 시떡깨비」를 읽고

조 재 연 | 아이초등학교 3학년



시간먹는 시떡깨비에게  
시떡깨비야 안녕?

만나서 반갑다. 난 재연이라고 해. 네가 시간을 먹는다는건 책 표지에도 써 있었지만 ‘시간을 먹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알고보니 게임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 같은걸 먹어서 시간을 적게 만드는거였어.

비록 책에 나오는 상상 속 캐릭터이지만, 넌 정말 우리들 곁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한 만큼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1시간 정도 했겠다 싶은데 벌써 1시간 15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처럼, 그때가 무척 짜증났어!

나도 건주처럼 널 움켜 잡아서 옷장 속에 넣어 버릴거야!

그 대신 나도 건주처럼 너희 집을 구경시켜주면 금방 놓아줄게.

대신 흠쳐 먹은 시간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

몰어볼게 있어. 시떡깨비아. 너는 어떤 시간을 가장 맛있어  
하고 좋아하니?

내가 컴퓨터 하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게 아니면 내  
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니?

나도 너같은 시떡깨비아면 시간이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 보  
고 싶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가지 더 있어.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겁게 하지 않는데 시간은 빨리 지나가.

혹시 내 시간을 먹는 시떡깨비는 편식을 하지 않는 시떡깨비  
가 아닐까?

하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재미있게 하는 게임시간을  
야채처럼 싫어하고, 공부시간은 과자처럼 좋아해서 맛있게 먹  
고 말이야.

그리고 건주가 재미있어 하는 시간을 네가 먹잖아? 그건 불행  
해! 그래서 건주 시간을 조금만 먹어 줘.

또 나 이젠 컴퓨터 교실 문서 작성하는거 재미있어 하거든.

건주의 시간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면 우리학교  
컴퓨터 교실로 와서 시간을 맛있게 먹어줘. 그러면 배부르고 시  
간도 빨리 없어지고! 히히!

시떡깨비아. 난 제일 궁금한게 네가 입고 있는 전자파 차단복  
이야. 어떻게 만드는 지 좀 알려줘.

그걸 공장에서 팔면 참 인기가 좋겠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그 전자파 차단복을 입어서 나쁜 전자는 다 없어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넌 그래서 참 좋겠다.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시간을 즐기는 아이들만 있으면 되잖아? 몸에 해롭지도 않고.

난 너와 건주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내가 공부도 재미있게 하면 시떡깨비가 와서 내 시간을 먹어주겠구나. 이젠 억지로라도 모든 일을 재미있게 해야겠다.’

이것처럼 내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면 네가 와서 시간을 먹어주렴. 꼭.

꼭 부탁해!!

내 방에 오면 내 어깨를 툭툭 쳐서 신호를 보내주렴.

2008. 9. 25 목요일.

재연이가

【초등부 은상】

## 「초정리 편지」를 읽고

조 서 연 | 아이초등학교 6학년



저는 이번에 ‘초정리 편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장운이라는 가난한 집 아들이 나무를 하다 어떤 할아버지가 샘물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운이는 그 샘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샘물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그만 가려고 하니깐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번에 새로 나온 한글이라는 것을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장운이는 그걸 흥미있게 듣고 장운이는 그걸 배우게 되어 한글로 그 할아버지와 편지를 쓰고 받으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멀리 남의 집에 집살이를 가야 하는 장운이의 누나가 집살이를 하러 떠나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준 다음에 집살이를 가도 서로 편지를 통해 서로 안부를 주고 받으며 장운이는 한글을 유용하게 씁니다. 장운이는 돌을 깎는 석수쟁이였는데

경복궁에 놓을 돌을 깎으러 한양으로 간다는 말에 자기도 가겠다고 합니다. 몇일전부터 편지가 끊긴 할아버지가 한양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로 말입니다. 경복궁 안에서 돌을 깎고 쉬는 시간에 장운이는 석수쟁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때 나라의 왕 세종대왕이 오시고 ‘그 한글을 누구한테서 배웠냐?’ 라는 질문에 장운이는 고개를 들고 대답하려고 고개를 들어올릴 때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신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은 ‘어떻게 장운이는 저렇게 쉽게 한글을 배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글을 무지 어렵다고 하던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생각하자 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입모양에 맞춰져서 탄생한 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는 한글이 다시 한번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글자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짧은 생각 뿐이었지만 한글은 우리나라의 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모양을 보며 생각해낸 과학적인 글자 ‘한글’ 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한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어렵고 평민들은 배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고문이 나와도 ‘뭘 소리여?’ 라며 궁금증만 더해가던가 아예 신경도 안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

는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한심했을까요? 우리말이 없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말 한자보다 쉬운 한글을 만들어낸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반들이 아닌 평민, 천민들을 위한 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다시 한번 자랑스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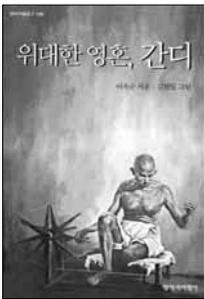
하지만 요즘의 문제거리이기도 한 인터넷상의 한글 파괴는 정말 대단합니다. 글자를 바꿔 쓰던가 한글의 맞춤법을 무시해버린 채 쓴게 많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쓰게 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쓰게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글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시는 세종대왕님을 활짝 웃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초정리 편지’ 책은 과학적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글자 한글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더 심어 주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 금상】

## 「위대한 영혼, 간디」를 읽고

홍 태 립 | 이천남초등학교 5학년



토요일 오후 도서관엘 들렀다. 눈에 들어온 책은 위대한 영혼, 간디. 신문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을 보니 반가운 마음에 책을 골라 들었다. 어떤 사람이길래? 하는 궁금한 마음에 난 간디에게 빠졌다. 겁쟁이 소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한 소년. 형의 권유로 영국에서 법률을 공부해 남아프리카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인도인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고 인도인들을 단결시키고 인도인들의 딱한 처지를 널리 알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한 간디.

내가 간디에게 놀란 점은 미움보다는 사랑을 가르치고 폭력을 쓰기 보다는 자기를 희생하라고 말하며 평화적인 운동을 했다

는 것이다. 어떻게 저릴 수 있을까?

난 내 동생이 날 건들기만해도 한 대 더 때리는데...한끼도 못 굶는데...

천민을 위해 애쓰고 노동자들을 위해 단식을 하며 타협과 비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간디. 힌두교와 이슬람교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인도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옷감을 짜 보잘것은 없지만 소득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고자 물레를 돌린 간디의 모습이 두눈을 감은 나의 눈에 그려지는 것은 아마도 간디의 모습을 닮고 싶어서인 듯 하다.

소금법을 폐지하고 인도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간디의 비폭력 투쟁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람들의 운동이었다.

간디와 더불어 독립을 바라는 인도의 거센 목소리는 세계의 양심을 움직였고 나의 마음에 뜨거운 것을 불어 넣어주었다. 폭력이 아니라도 이렇듯 여러 사람들에게 간절함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간디가 앞에 섰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내 인도가 독립될 수 있고 영국과의 평화적인 관계가 된 것 또한 간디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간디를 지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자로 인해 간디가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간디는 아마도 자신을 암살한 자도 용서했을 것이다.

간디가 떠난지 반세기가 되었지만 간디는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나에게

처럼...

간디가 굳게 믿고 실천했던 비폭력이 아직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더욱 빛을 내리라 생각된다.

비폭력,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사랑의 법칙이라 생각된다. 책을 다 읽고 난 나에게도 간디는 살아 있는 이 같다. 난 가만히 위대한 영혼, 간디를 가슴에 품어본다. 아주 조심스레 가슴에 새긴다.



【초등부 대상】

# 당당하게, 명혜처럼!

김 우 린 | 안흥초등학교 6학년



‘명혜’

이 책이 내 눈에 든 것은 책 표지 때문이었다. 여자 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꼭 내가 감동 깊게 읽은 ‘몽실 언니’와 비슷한 내용의 책 일 것 같아서 나는 이 책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 몽실 언니와는 확연히 다른 책이었다. 시대부터 달랐다.

‘명혜’가 부잣집 딸이고, 시대는 일제강점기인데 반해 ‘몽실 언니’는 가난하고, 해방이 된 후, 6·25 전쟁 즈음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가 겪는 삶을 말하고 있다. 나는 몽실 언니보다는 명혜가 더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명혜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조선시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 지금은 약간 남녀차별이 있긴 해도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그야말로 ‘하늘’ 이었나 보다. 왜 그럴까? 그건 유교 때문이다.

나는 솔직히, 남존여비사상을 만든 유교가 밉다. 나도 여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조선 시대에는 집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철저했다고 한다.

특히 여자가 사는 곳을 안채라고 하는데, 안채는 대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바깥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부엌일, 집안일만 하라는 뜻이었겠지. 이럴 때는 옛날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 보인다. 양부일구, 자격루, 측우기, 특히 훈민정음을 볼때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운데, 다만 한 가지 여자에 대한 것만큼은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한다.

여자도 남자만큼 똑똑하다! 내가 시시각각 느끼는 것이다. 옛날 여자들은 왜 집안일만 해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혔을까?

내가 알기로 까마득한 옛날, ‘부족’이라는 무리로 모여 살던 사람들은 여자가 부족장으로 뽑혀 부족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적 지위가 강하던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명혜의 어머니인 안씨 부인은 자신은 못 배워서 서럽다고 하면서도 딸들은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시집 가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아들딸 낳으면서 잘 사는 게 여자의 팔자라고 한다. 그러나 명혜는 이런 어머니의 말을 싫어한다. 나도 이 때 내가 명혜였다면 이 말이 듣기 싫었을 것이다.

또 “남자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좋고 여자는 모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아버지한테 맞서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뤄내는 것을 보고 당당한 명혜가 부러웠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아빠, 엄마는 그렇게 명혜의 아버지처럼 꼭 막힌 사람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부모님과 대립할 날이 오겠지. 내가 그때 명혜처럼 당당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나는 나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이 꼭 막힌 부모 밑에서 꼭 막힌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을, 그렇게 자라나서 옛날처럼 여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비록 부모님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 해야 할 말은 꼭 했으면 한다. 당당하게. 명혜처럼!



# 2009

# 독서감상문

## 일반부

- 이재욱 - 인생, 그 순례길을 걷다
- 임진선 - 우물 속의 그녀
- 김은옥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고등부

- 강시은 - "엄마를 부탁해"
- 김은지 - 참 된 민주주의란?
- 안지영 - "미안해, 스이카"
- 이소정 - "순이 삼촌"을 읽고
- 이현주 - 나로부터의 소외, 너로부터의 소외
- 정영미 - 흠어진 추억조각 / 스타시커
- 허은지 - "데미안"을 읽고
- 홍혜원 - "나의 미카엘"
- 소보미 - 변화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 중등부

- 이경연 - 세상에 당당해 지기
- 박다운 - "너도 하늘말나리아"를 읽고
- 한보람 - 십시일反
- 류세영 - "지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
- 한승혜 - '오채불만족'을 읽고
- 이예진 - '마시멜로 이야기'
- 고소현 - 1리터의 눈물"을 읽고
- 이예린 - 마주보며 커가는 팽이부리말 아이들

## 초등부

- 유은주 - "진짜엄마와 가짜엄마"를 읽고
- 조재연 - "무기 팔지 마세요"를 읽고
- 한현구 - "모모"를 읽고
- 홍태림 - "세종대왕"을 읽고
- 박세윤 - 아름다운 우정
- 이진주 - "고양이 마을 신나는 학교"
- 김아라 -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일반부 동상】

## 인생, 그 순례길을 걷다

이재욱



‘당신의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당신의 일상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창조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으며 감흥을 주지 않는 장소란 없기 때문입니다.’<sup>1)</sup>

–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걷는다. 목적지를 향하는 발걸음은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이 지워지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시선의 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이거나, 서둘러 도착지에 가야한다는 목적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걷는 동안 많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며 다양한 풍경을 접하게 된다. 그것들은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그것으로 향하지 않을 뿐이다.

1) 라이너 마리아 릴케 著/김재혁 譯: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의 선택, 1998(서울), 15-16쪽.

마음에 여유를 허락한다면, 걷는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진 무궁무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온전히 자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걸음에 비유해보면, 닳은 구석이 많다. 인생이라는 길을 바쁘게 가다보면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잊고 오로지 목표 지점만을 향해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온다 — 동시에 목표가 흐릿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때가 오면 삶에 대한 회의 내지는 공허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인생은 연습이 불가능한 커다란 연속체이다. 하지만 순간이라는 단위들이 모여 인생이 된 것으로 본다면, 과거는 현재를 만든 터전이며 현재는 미래를 향한 도약점이 된다. 그래서 삶의 순간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연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 길에 오른 ‘순례자’의 행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독려한다. 삶에 대한 고민은 자아성찰 즉, 삶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자아에 대한 탐구는 자아의 발전이라는 인생의 궁극적 지향점을 향하게 된다. 다소 관념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자아에 대한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루게 되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본질은 점차로 퇴색해 버린 느낌이다. 오히려 부가적인 것을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속적인 ‘불안’의 파장만 강해진 것 같다.<sup>2)</sup> ‘순례자’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시 불안의 외투를 입고 있는 우리와 닮아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순례 길을 걷는 과정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비로소 인생의 본질, 그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가 인생의 절대적 주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시간은 항상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시간의 리듬을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 시계를 들여다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갔다.<sup>3)</sup>

자아는 인생에서의 시간적 속도까지도 정한다. 시계에 달린 시침과 분침의 운동에 의해서 시간의 속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코엘료는 독자에게 피력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정해진 시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을 주관하는 존재는 철저히 자신인 것이다. 인생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인식의 과정을 방해한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만 향하게 한다. 코엘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한다.

2)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지위’를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며, 협의의 의미로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이라 정의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불안’은 이러한 지위를 이루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담 스미스Adam Smith(? - 1790)의 국부론이 출간된 시기인 1776년에 서양의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알랭 드 보통은 그때를 기점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취가 지위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불안은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등의 사회, 경제적 영역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그는 보고 있다.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허녀’라는 그의 말은 상기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다.

참조 - 알랭 드 보통 著/정영목 譯: 불안, 도서출판 이레, 2009(경기).

3) 파올로 코엘료 著/박명숙 譯: 순례자, (주)문학동네, 2009(경기), 59쪽, 이하 순례자로 표기함.

‘내가 살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 가장 바빠 보였던 사람조차 무엇이든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피곤하다고 말하고, 정작 자신들이 하는 게 거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루가 너무 짧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지요. 그들은 사실 ‘선한싸움’을 벌일 자신이 없는 겁니다.’<sup>4)</sup>

순례자를 읽다보면, ‘선한싸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순례자가 순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을 말한다. 힘든 순례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 순간의 성취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고 목적지를 망각하게 되는 잘못 등을 그 유혹의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들며, 순례의 여정을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많은 좌절과 고비를 접하게 된다. 그러한 순간에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의 자아를 유혹한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인내와 연단의 결과로 주어지는 단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우리의 자아는 지금도 끊임없이 홀로 고독하게 선한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언제라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요.[...]그럴 때 당신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하지만 하나의 길과 다른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그런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그처럼 작은 결정이 누군가의 남은 삶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sup>5)</sup>

인생의 주관자는 분명 ‘나’이다. 하지만 이것이 유아독존적

4) 순례자: 78쪽

5) 순례자: 229쪽

자세가 삶을 살아가는 해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인도가 아닌,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산다. 나의 인생 행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 내지 선택은 신중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의 인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 타인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가 된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신중함은 인생의 주체인 자아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순례자에 등장하는 순례 여정은 프랑스의 ‘생장 피에 드 포르(Saint-Jean Pied de Port)’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 도착하게 되는 대략 700Km에 달하는 길이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순례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가리비 껍데기를 가방에 달고 걷는다. 순례길 도처에 위치한 마을 주민은 순례자의 표식을 알아보고,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순례길에서 마주치는 순례자들은 서로서로를 존중한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자아의 성찰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선한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행보 그 자체가 고귀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각의 개인들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선한싸움을 벌이고 있는 순례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분열과 대립의 구도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

나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믿는 것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깨달음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길’ 을 계속 따라걸기 위해 매일같이 치러내야하는 나 자신과의 ‘선한싸움’ 에서 존엄과 끈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날 북돋아준 것도 역시 그것이었다.’<sup>6)</sup>

‘그는 말했다. 우리를 신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닿게 해주는 것은 열정이지만, 수백 수천의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고. ‘비밀 의식’ 이나 ‘심오한 교리를 따르는 입문식’ 이 아닌, 삶이 기적임을 믿으려는 의지가 기적을 낳는 것이라고.’<sup>7)</sup>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 인생의 참 뜻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행보는 비범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길’ 인 것처럼 말이다. 또한 진리는 특별한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평범한 다수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삶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혹은 동경했던 특별함이 늘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와 생각에 달린 것이다. 여기에 자아 인식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깨달음을 통해 ‘의지’ 를 세우고 ‘열정’ 을 가지고 ‘행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 목표

6) 순례자: 10-11쪽

7) 순례자: 3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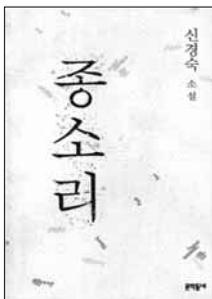
인 자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코엘료가 집필한 순례자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일상에 보다 진지한 시선을 보내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일반부 동상】

## 우물 속의 그녀

임진선



신경숙 소설 [종소리] 수록작품 중 『우물을 들여다 보다』

신경숙, 그녀의 글에서는 우물이 많이 나온다. 그녀의 엄마와 큰오빠, 아버지, 조카를 말하면서 우물은 항상 배경이 된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서 한참 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숨기지 않은 것도 아닌 『외판방』에서도 어김없이 우물은 등장한다. 단편집에 실린 이 글을 읽고 난 후 왜 그녀의 글에 우물이 많이 나오는지 어렵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다 싸놓았습니다.’ 로 이 글은 시작한다.

남미문학을 전공하고 페루에서 십여 년 만에 돌아와 번역일과 간간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이 연수가, 그림을 그리는 안 지

언 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연수는 전세 살던 연립주택에서 이사 가기 전날 밤에 새로 이사 올 안 지언 에게 편지를 쓴다. 이사 갈 집 창문에는 맞지 않으니 거실의 블라인드를 두고 가겠다고 한다. 쌓아놓은 이삿짐에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먼지 낀 독경 테이프를 발견하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

이 집에 이사 오던 이년 전 봄에 아이 낳다 죽은 언니를 말한다. 언니가 죽은 슬픔을 견뎌내기 위해 운동 삼아 뛰다가 발견한 산 아래의 호젓한 산책길을 알려준다. 그 길을 달리다가 들여다본 우물 이야기. 무거운 돌에 눌러져 있던 우물 입구를 찢혀 봤을 뿐인데, 연둣빛 환한 봄날에 집까지 따라 들어온 여자의 환영. 여자의 환영을 보고 죽은 언니도 이승에서 저리 떠돌아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려준 저녁 밥상. 향을 피우고 독경을 틀어서 여자를 달래 주었다는 이야기. 천지에 연둣빛이 탁탁 튀어 눈이 시디시어지는, 일 년 삼백예순 몇 날 중의 보름쯤에 불과한 어느 날, 혹시 그 여자가 보이거든 독경을 들려주라고 한다.

‘이 편지와 함께 독경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가겠습니다.’로 이 글은 끝난다.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는 왜 이 연수처럼 하지 못했을까, 였다. 육 년 전의 어느 날 새벽.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왔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다가 언뜻 잠이 들었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목소리.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다. 그냥 있고 싶다고, 좋은 자리 아니어도 괜찮으니 구석에라도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그때 나에겐 죽은 언니도 없었다. 죽은 사람이 무섭지 않을만한, 따뜻한 밥 한 끼 해 먹여서 보내주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 어려서 다녔던 교회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잘 기억나지도 않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토막 내듯이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 나갔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도 했던 것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다녔던 새벽이 있었다.

이 글을 읽고 그 새벽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것이 정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든 내 집을 찾아든 영혼이었다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았을 것을, 조용하고 나직하게 잘 가시라고 해 볼 것을.

잠시 이 글을 또 생각한다. 우물은 내면에 자리한 깊은 곳으로 종종 비유되고는 한다. 사방이 연둣빛 지천인 때 우물을 나와서 따라온 여자는, 밑바닥 깊숙한 곳에 감추었던 작가의 지나온 시간 중에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숨겨져 있었던 또 하나의 나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독경을 틀고, 향을 피우듯이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전의 어느 날 새벽. 내 집에 깃들었던 그 존재에게 더 미안해진 것은, 우물에서 나온 여자가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한 후였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새벽의 일이, 사실은 꿈이었을 수도 있다. 이 집의 구석자리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던 나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또 하나의

내가 있었던가.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일은 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은 일,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일, 그저 꿈이었으면 하는 일들 속에 내가 있었다. 나를 불러내서, 위로해 주고 싶다.





【일반부 은상】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김은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영희 교수님께-

지금도 신문 한쪽을 펼치면 장영희 교수님의 칼럼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분이 장애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유명한 좋은 대학 나와서 학식이 풍부하여 신문지 한 쪽에 칼럼을 기재하는 분 이시구나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그분의 칼럼을 유심히 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아, 아름답고 당찬 별 하나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물밀듯 스치더군요. 아마도 살아 계셨을때 보다 돌아가신 후 그분의 이름이 더 알려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으로 몹쓸 세상에

태어나셔서 한 많은 세상 아니 매우 아름답게만 사셨기에 모든 이의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영희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요.

이 말은 저에겐 치명적인 삶의 오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 무위의 재능에 탐닉하기 딱 좋은 여름 같은 날만 연속이었으니 장애인이면서 열심히 달리신 장영희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 이를 데 없었죠. 전 유달리 자격지심이 강하고 주저앉기를 잘하는 핏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에 부딪히면 빙그르르 돌다 지쳐 쓰러져선 일어날줄 모르고 쓰러져 있기를 잘하는 못난이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읽어 내리면서 한 가지 삶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꾸미는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죠. 비록 다리 하나가 장애가 되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또박또박 장군의 모습처럼 당당하게 바른길을 걸었죠. 한쪽 다리의 불편함을 이겨 내고 학식을 높이고 대학 강단에선 목발집은 다리로 한 몸 오뎅이가 되어 깨끗하게 강단에 서셨으니 아마

장영희 교수님은 다리보단 팔 힘이 몇 배는 더 세었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불평하지 않고 그분의 책속에 그려진 작은 새처럼 어디론가 훨훨 날고 싶은 욕망을 접어둔 채 살아가신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자니 작은 헬런켈러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입은 말할 수 없는 삼중의 고

통을 안고 살아간 기적의 사람 헬렌켈러를 보는 듯 했죠. 비록 한가지 장애이긴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여자 장애인으로서 대학교수 까지 하셨으니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영희 교수님의 글 가운데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듯이 요즘 힘든 세상에 경제적 위기를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어느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니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장영희 교수님의 “다들 힘내”라는 메시지와 “살자”라는 두 단어를 합치면 “다들 힘내서 살자”라는 오묘한 생명력을 지닌 말이 생성 되더군요.

경제 위기에 몰린 가장, 시험이란 어려운 난관에 직면한 학생들, 회사의 경영 위기로 퇴출당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가장, 주부들. 하물며 대통령의 자살까지 이어진 이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야비한 집 단체 들이 서성거리는 사회가 되어 가는 듯 느껴졌죠. 사랑의 시선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부터 낮춰 살고 한 번만 더 남을 배려 해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집요하게 나의 뇌리를 스칠 때 마다 내 힘들다.

자살은 되지 않을 말이죠.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어도 “다들 힘내서 살자!” 한 발로 우뚝 서신 장영희 교수님의 큰 가르침 따라 희망이란 남에게 파고드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갈 앞길에 남아있는 과제라 생각하며 기필코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루 하루 살아가는 당신께 자신을 위해

서 남은 가족을 위해서 희망이란 작은 호롱불과도 같은거라 생각됩니다

몇 달 전 이천에서 손가락이 네 개뿐인 희야의 피아노 공연이 있었답니다. 희야는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났죠. 희야의 엄마가 임신한 것을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이죠. 힘들게 임신한 희야의 엄마는 감기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죠. 손가락이 양쪽 모두 합하여 오른손 두 개, 왼손 두 개가 전부이지만 희야의 엄마는 그의 앞날을 생각하며 제대로 꺾이지도 않는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 학원을 쫓아다니며 손가락 네 개인 희야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죠. 이천에서 있었던 공연에서는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하였는데 정상인도 치기 어려운 난곡을 5년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하였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희야의 엄마는 이런 말을 했죠. 희야의 지능은 낮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악보 보기도 어려워하고 손가락은 뼈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아 흐물흐물 한 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바다표범의 몸통이 유난히 짧은 것처럼 생긴 해표 상기형이라고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야는 쇼팽의 즉흥환상곡 그 어려운 곡을 소화해 내어 실천의 전도사요, 그 짧은 다리로 세계 곳곳에 희망 전도사로 자리매김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죠.

“모든 숲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했다”.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한 나무들의 어머니, 왕가리 메타이는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허기와 집안일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설득하여 작은 씨앗 하나부터 시작하여 모래 바람이 뒹구는 황폐한 사막에 거대한 푸른 초원을 일 구워 내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훌륭한 여성이죠. 희망이란 씨앗 하나 마음속에 파종하여 하나하나의 희망 싹들이 모여 희망 숲을 이룬다며 맑은 푸른 숲이 가득한 희망찬 사회,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들 힘내서 살자. 한 발로 우뚝 서신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님의 생전의 모습처럼, 살아갈 기적은 우리 살아 있는 각자의 몫이기에 하루하루 충실 된 삶으로 열심히 살아 보자고 소리껏 외쳐 보네요. 산불이 나야 비로소 번식하는 나무가 되면 아니 되겠죠. 어떤 일이 있은 후, 예가 아닌 스스로 나 자신을 대처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 파종하는 심정으로 추널 한가운데 선 바쁜 도리깨 꺾기 소리가 작약 내려 앉듯 가슴 한 곳을 미어질 듯 내리치는 계절에 영근 알곡처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께 띄어 봅니다.



【고등부 동상】

## 「엄마를 부탁해」

강 시 은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엄마를 잃어버린지 일주일째다.’

책장을 펼치자마자 이 구절이 눈에 들어 왔다. 잃어버리다니? 보통 물건이나 사물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나?

마치 ‘엄마’ 라는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첫 문장에 나는 시선이 멈추었다.

어떻게 엄마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 책 속의 주인공을 비난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더 읽어 보니 난 깨닫게 되었다.

그 비난은 곧, 나를 향한 비난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속엔 ‘나’는 존재 하지 않았다. ‘나’가 있어야 할 자리엔 ‘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책이 가리키고 있는 ‘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나’였다. 방금 전 내가 비난한, 엄마를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기만 한 가족이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한 곳이 저릿해져 왔다.

엄마의 생일을 점점 잊어버린 딸의 모습도, 엄마의 실종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도, 딸과 통화중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쏟는 남편의 모습도 전부 ‘나’의 모습이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곁에 없어져야 비로소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이 전부 나의 일부분인 것 같아 글자가 물 먹은 듯 흐려졌었다. 내게 있어서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였다.

엄마니까, 당연히 부엌일을 해야지, 엄마니까, 당연히 청소를 해야지, 어느새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이 책의 1장에 등장 하는 엄마의 ‘딸’ - ‘나’도, 엄마가 외삼촌을 ‘오빠’라고 부를 때야 ‘아! 엄마에게도 오빠가 있었구나!’ 하며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내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에게도 엄마 나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에게도 나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났다고 난 생각했다.

내 머릿속의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밥 해주는 기계였고, 용돈 주는 현금인출기였다. 책을 처음 펼치면서 내 뺨은 꾸짖음은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내게 돌아와 박혔다. 엄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책장을 덮은 후에도 감동과 죄책감은 주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것을, 꿈을 꿀 줄 알

고, 상처 입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요새 엄마는 못다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 엄마가 나만 했을 시절도 있었지만 여자가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겠냐고 구박 하셨던 집안 어른들 때문에 엄마는 공부를 좋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에서 꿈의 날개를 접어야만 했다.

그 후로 17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엄마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집 안 일을 하시고, 그 와중에 책을 보시며 틈틈이 공부를 하신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시고, 종종 내가 듣는 인터넷 강의도 들으신다. 예전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 보이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신다.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난 도와 드리고 싶다.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 나 또한 행복해 진다. 책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난 많은 것을 느꼈다. 있을 때 소중한지 모르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이런 면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이 책이 선사해준 감동과 깨달음은 정말 크고 강력했다. 엄마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죄책감이 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오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이 책이 유일 할 것이다. 독후감 숙제를 하기 위해 억지로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엔 읽기 싫어 억지로 읽었지만 억지로라도 읽기를 잘 한 것 같다. 한 번 더 읽어 봐야겠다. 또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남동생에게 꼭 읽어보라고 강력 추천해야겠다.

【고등부 동상】

## 참 된 민주주의란?

김 은 지 | 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나는 얼마 전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한병태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전근으로 인해 서울 학교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엄석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엄석대는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부당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병태는 그러한 그의 권력 아래에서 저항해 보았지만 끝내 그에게 동조하고 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 학년으로 진학하여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부임하신다. 그의 절대적인 교육방식으로 인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엄석대의 만행이 밝혀지고 엄

석대는 굴복당하고 만다. 선생님은 폭력으로써 엄석대를 굴복시켰고, 이는 또 다른 독재의 형태로 반 아이들 앞에 군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선생님이 반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엄석대의 부당함에 대한 항거를 하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엄석대에게 그 동안 쌓아왔던 그의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매우 굴욕적이고 치명적인 행위였다. 만약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 앞에서 엄석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체벌을 했더라면 엄석대가 교실을 뛰쳐나가 자취를 감추고, 훗 날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엄석대의 체벌은 반 아이들이 연대의식을 가질 기회를 앗아갔으며 한 인물을 사회의 낙오자로 이끌었다. 그의 교육방식이 힘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민주적이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올바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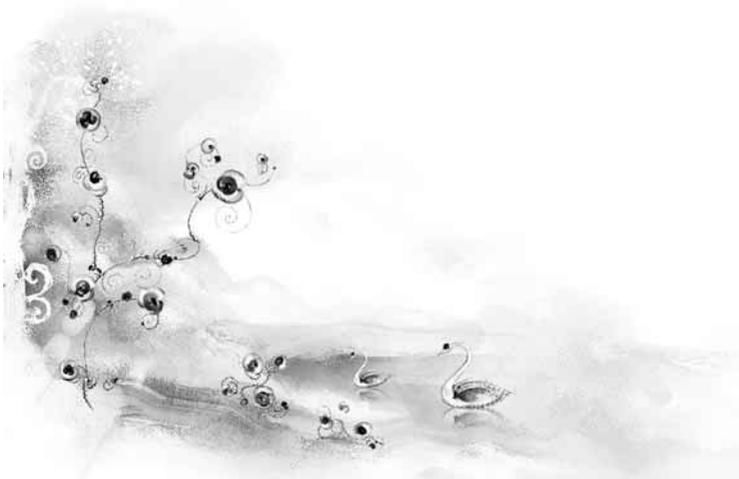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 스스로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볼 때,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정치적 형태인 삼부회를 조직했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자발적 세계 민주주의를 일으켰다. 이를 토

대로 우리나라는 군부독재에 맞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5.18 광주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이 때 많은 목숨이 희생됐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로 남아 민주화의 개념을 세웠고,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1세기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발전 되어 나가는 사회로써, 오늘 날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항거하여 국민 스스로가 대규모의 촛불 집회를 열거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한다.

이것은 발전된 민주주의의 한 가지 형태로써 무폭력적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민주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민주주의 개념을 확립하고, 참여하고 추구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의 담임 선생님과 같은 독재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사회의 낙오자를 만드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현실에서의 학교 모습을 비슷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다. 독재자에 대해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그의 최후를 반전으로 잘 그려 낸 것 같다. 하지만 엄석대가 그렇게 사회의 낙오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한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그 선생님의 잘못된 체벌방식의 결과물을 잘 표현했다.

이 책을 읽고서 나는 앞으로 부당하거나 나의 권리를 잃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됐다. 민주사회의 한 국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갖고 내 의견을 말하며 살아가야겠다.





【고등부 동상】

## 「미안해, 스이카」

안 지 영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받고,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주 괴로운 일이다.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는 ‘왕따’라는 만행으로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 왕따를 주도하는 패거리,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즐거워하는 애들,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도와주면 자기도 찍힐까봐 그저 보고만 있거나 피하는 애들, 대충 이런 부류로 나뉜다. 주인공 스이카도 처음 치카가 왕따게임의 표적이 되었을 땐 마지막 부류 중 하나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괴로웠던 스이카는 용기 내어 주도패거리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친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표적은 스이카

가 되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당하게 된 것도 억울했지만, 자신을 왕따 시키려는 무리 속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하던 치카가 끼여 있다는 사실이 스이카를 괴롭게 했다. 충격을 받은 스이카는, 고맙다면서 힘들 땐 언제든 도와주겠다고던 어제의 치카를 떠올리며 점점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안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들 왕따가 잘못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스이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처만 더 깊게 패여져 갔다. 그러던 중, 마음의 안식처 같은 친구 유리에 알게 된다. 눈은 안보이지만 마음으로 친구를 보는 유리에 힘내라며 스이카를 늘 격려해주는 친구다. 왕따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스이카를 처음 만나던 날 밤, 넘어져 있는 유리에에게 스이카가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날 유리에에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결국 스이카는 가혹해지는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후반부에선 혼수상태의 스이카가 유체이탈의 형식으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스이카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치카, 유리에, 그리고 부모님을 남겨두고 스이카는 결국 숨을 거둔다.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화가 났던 것은 스이카가 요우코 패거리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목격했으면서도 외면하는 선생님들이었다.

TV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다. 교사가 되기 위해 좋은 성적으로 교사시험에도 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한다는 것이 정말 불쾌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이 초등학교 때 왕따의 경험이 있는 14살짜리 소녀가 쓴 것이다. 스이카가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부분은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정말 실감났고 14살짜리가 쓴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이 책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준다. 자살을 결심했던 유리에가 넘어졌을 때 스이카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준 것처럼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손길이 된다. 무관심으로 사람을 한 순간에 매도해 버리지만, 작은 도움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다. 주위에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잡아 줄 수 있을까? 그런 손길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작가는 또한 우리는 언젠가 꼭 쓰임받는 존재라는 말도 전하면서 책을 끝낸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 또는 뛰어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오랜만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었다.

【고등부 동상】

## 「순이 삼촌」을 읽고

이 소 정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4.3 사건. 4.19 혁명처럼 흔하게 들어보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궁금증으로 보게 된 순이 삼촌이라는 책은 어찌면 침묵속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렸을 제주도 양민 학살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책이다.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순이 삼촌은 남자가 아닌 여자다.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삼촌이라 불러 가까이 지내던 제주도의 풍습으로 붙여진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그 '순이 삼촌'을 통하여 4.3 사건이 터졌던 음력 선달 열여드렛날의 그 절규를 하나의 영상처럼 생생히 보여준다. 난 독서를 다 마친 후에도 마치 그들의 영혼이 내 안에서 분통을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벌렁거리고 화가나는 심

장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적인 갈등 하나로 빚어낼 수 있는 무자비한 폐해 하나 하나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견딜 수 없는 아픔, 그 자체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각인 시켜준다.

순이 삼촌은 그 각골난망의 세월을 선달 열여드렛날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모두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곧 민족의 시간이듯이 순이 삼촌의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양민들. 영문도 모르는 꼬마아이부터 걸기도 힘에 부치는 노인들까지. 어제와 오늘의 삶이 늘 비슷한 일상에 반복 되던 그들은 ‘작전’이라는 미명하에 가슴아픈 모습으로 죽어갔다. 그런 양민과 더불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작전 전달상의 오류로 와해시키는 군부와 정부 모두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여 기억해야 하며 그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글을 읽다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시절, 밤에는 공비무리에 가담하지 않는다 하여 대창으로 죽임을 당하고, 낮에는 이도저도 무서워 산으로 피신을 간 것을 공비에 가담하였다 하여 군경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 했던, 더 나아가 학살을 당해야 했던 그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일까?’ 라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공비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조정래작가의 ‘태백산맥’이라는 책에서는 ‘순이 삼촌’과 비슷한 연대기와 맥락에서 태백산맥 일대에 숨어 지내며 고달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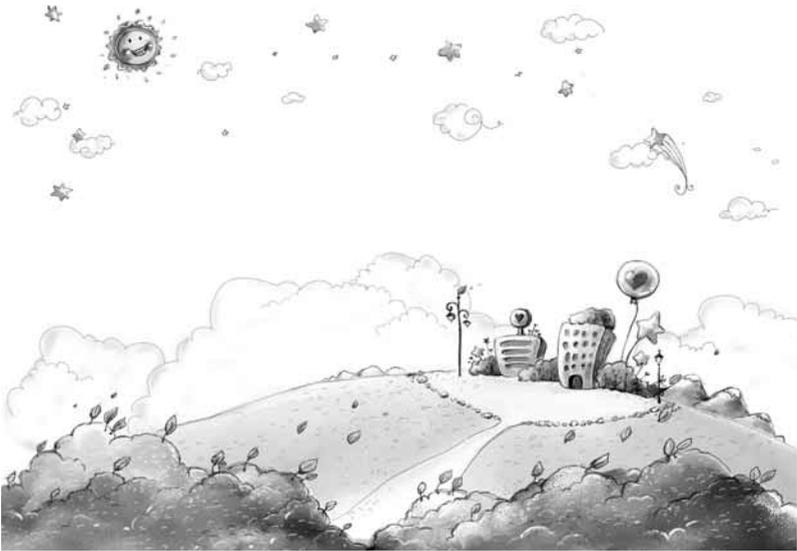
삶을 살아야했던 공비들의 시각으로 또 다른 순이 삼촌을 보여 주는데 그것 역시 심장이 울렁거릴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이였다. 이 일들은 대립으로 얻어지는 조그만 결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립을 하며 서로에게 일말의 이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모두가 외롭고 고달프고 불쌍하기만 한 세월이었던 것이다.

갈팡질팡하다 굴속으로 피난해 살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없어진 사람, 총살당하는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 아이 위로 포개져서 시체로 발견 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였던 엄마된 여자들, 치위도 치위도 끊임없이 출토되는 잔뼈와 납 탄환들, 시체 거름을 먹고 비옥해진 땅에서 자라 목침만큼 굶어진 고구마. 그리고 몇십년 전에 터졌던 사건임에도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러워 그 많던 향리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자신의 밭에서 약을먹고 자살한 순이 삼촌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주위에서 일어났던 주변사람의 얼마 안된 일처럼 하나하나가 안타깝고 가슴이 저리다. 이것은 곧 4.3 사건을 말해주고 양민학살을 말해주고 순이삼촌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 잠정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남북 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공산주의 사이의 대립에 대하여 나는 회의를 느낀다.

그리고 또 다시 대립이 격화되면 제주도 4.3 사건같은 일이 반복될까봐도 두렵다. 순이 삼촌네 향리사람들이 그랬듯, 내가 그랬듯, 뒤늦을 뿐인 후회와 안타까울뿐인 심정을 또다시 느낄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참혹했던 제주도 4.3 사건의 폭풍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한 가닥의 교훈을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고등부 동상】

# 나로부터의 소외, 너로부터의 소외

이 현 주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사실 이 책을 추천 받은 건 철모르던 중학생시절이었습니다만 ‘벌레로 변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특이한 줄거리 소개를 듣고 별 이상한 책이라 치부해 버리고 기억 맨 구석에 치워뒀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 서울대 권장도서목록에 있던 이 책을 발견하고 그렇게 대단한 책이었나 싶어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빌려보게 된 거죠. 타산적인 독서생활 같으니라고….

이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죽어라 일만하던 그레고르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흉측한 벌레가 되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레고르가 더 이상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은 가족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급기야 그를 처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레고르를 챙겨주던 동생마저 후반

에는 그레고르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부모님을 선동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상처를 입고 앓다가 방에 감금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쓸쓸하게 숨을 거둡니다. 다음날 그레고르가 죽은 걸 알게 된 가족들이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외출을 하며 소설이 끝납니다.

한양대에서는 <변신>에서 ‘변신’의 상징적 의미 해석과 오늘날의 ‘변신’에 해당하는 구체적 경우를 서술하라는 논술 문제가 기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를 잘 반영한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이 책의 저자인 카프카는 ‘존재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레고르는 인간에게 있어 흉측하고 더러운 존재인 벌레로 변해버려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의 역할로서 존재하던 그는 벌레로 변해버린 후 역할을 잃고 ‘아들’로도 ‘오빠’로도 ‘직원’으로도 속하지 못하고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것’, ‘괴물’이라고 불리게 되죠. 결국 그는 죽었지만 가족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족으로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패륜의 내용을 담은 드라마의 시청률이 상승세를 기록하는 세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차 타산적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는 일이 이미 보편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잃게 된 인간소외 현상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 소설 속

에 나오는 그레고르의 가족을 현대사회로, 그레고르를 현대인으로 확장하여 생각해본다면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변신>을 읽고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에 슬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죠. 방 안에 갇혀버린 그레고르를 가족과 -돈을 벌어오는 그레고르가 아닌-아들로서, 오빠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는 소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이나 비난의 시선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래서 더 난해한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변신’ 하고 있지는 않나……. 뒤 끝이 산뜻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안에서 ‘아버지’는 매우 매정하게 묘사됩니다. 실제로 작가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읽고 수업 중에 벌레가 되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세x코를 불렀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벌레 따위 될까보냐.

【고등부 동상】

## 흩어진 추억조각

정 영 미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 I. 내 생애의 아이들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갈색의 빛바랜 책을 보게 되었다. 표지에 그려진 남자아이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웬지 모르게 슬프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난 그 느낌으로 이 책을 골라 읽었다. 이 책은 캐나다 작가인 ‘가브리엘 루아’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섯명의 순수하고 여린 아이들과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18세의 젊은 여교사이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작가가 여교사로 지내던 시절에 감동받은 이야기들을 6편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있어서 공감가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작가가 실제로 만난 아이들

의 모습과 닮았을까? 그렇다면 믿고 싶다. 이 여섯 일화 속에는 모두 희망의 메세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길 바라는 건 당연한 바람이다.

순수하지만 상처를 안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여교사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민족의 아이 빈센토의 경계심을 독자인 나에게 애정 어린 말만으로도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지적능력이 뒤쳐졌던 드미트리오프에게 그의 유일한 장기 ‘예쁜 글씨쓰기 재주’를 칭찬해주며 그의 아버지를 향해 닫혀있던 문을 열게 했고, 아픈 몸으로 임신한 어머니와 먼 곳으로 일 나가고 없으신 아버지를 위해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학교에 못 오는 앙드레를 위해 걸어서 서너 시간이나 걸리는 그의 집을 방문하여 밀린 수업을 해주어 성장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했을 앙드레에게 용기와 자기 헌신을 바친다.

또, 가난한 형편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클레르에게 값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닐에게는 언어, 경제적 수준, 젊음과 늙음, 건강 등 모든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술의 힘이라 하여 종달새 같은 노래의 소질을 타고난 그에게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도와준다.

그리하여 그의 노래는 흥분하여 떠들던 교실의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다리를 다친 여교사의 어머니를 걷게 하

고, 양로원의 노인들과 심지어는 정신병원 환자들까지도 열광하게 한다. 벽으로 가뒤흔던 사람들의 가슴을 노래로 움직이는 널을 보며 감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위의 주인공이 외에 여섯 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찬물 속의 송어’라는 이야기에서는 메테릭의 첫사랑이자 그의 성장기를 지켜보는 지도자가 되어준다.

모든 이야기들은 자연과 따스한 아이들의 마음, 젊은 교사 특유의 순수한 감성이 잘 어우러져 있다. 아직은 문학성이라는 것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 이 책의 문학성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 기꺼이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 책에서의 희망이란 오직 열정적인 교사와 순수한 아이들이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순수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 속에선 상처받고 마음을 담은 아이들에게서 그 순수함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 제도가 아닌 교사의 능력에만 달려있다.

‘내 생애의 아이들’에 나오는 희망은 선택받은 자들의 희망이었다. 게다가 우리들의 현실은 조금 더 어둡다. 이 책에서 문제아로 나오는 메테릭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그가 향하는 곳은 자연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의 문제아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어른들의 혼잡한 세계이다. 결국 이 책이 풋내기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는 광고 문구는 잘못된 셈이다. 오히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모두의 어린 시절을 위한 책이라는 마지막 광고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쉽게 상처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어린 모습들이 예쁘게 보이는 것은 그것에 추억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생애의 아이들’을 읽은 후, 더 이상 미래에 대해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장래희망처럼 교사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 조금은 무계획한 사람이 되는 대신 추억이 묻어져 있는 어제를 돌아보게 되었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미래모습은 어떨지 궁금해 하는 것보다 꿈을 향해가는 나와 지금 순간에 충실한 나를 찾게 되었다.



## II. 스타시커

‘팀 보올러’라는 작가가 쓴 스타시커. 그의 작품들은 청소년들이 흔히 읽는 베스트셀러들처럼 재미를 머금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지루할 것 같으면서도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독자들을 흡입해버리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흔히 천재라고 하면 우리들의 동경의 대상들이다. 이 책의 주인공이 음악천재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그들의 삶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이 책에 더욱 흥미가 갔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흥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주인공인 루크는 손가락으로 모든 곡을 흡수하고 아버지를 닮은 청력때문에 유난히 예민하여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다. 하지만 그 음악 천재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의 갈등을 빚으며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던 소년이 나쁜 패거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피아노 연습도 안하고 자기재능에 소홀이 하던 찰나에 괴상한 저택에 들어가서 상자를 훔쳐오라는 패거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침입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미리 눈치챈 집 주인 할머니는 잘못을 넘어갈 줄테니 손녀딸을 위해 피아노를 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루크는 눈도 멀고 정신연령도 낮은 손녀와 친하게 지내게 되고 자신의 연주를 너무도 좋아하던 그 아이 때문에 엄마에게 비밀로 하며 자주 그 집에 가게된다. 그러던 중 루크는 그 손녀가 할머니의 손녀가 아니라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아이가 하나 없던 할머니가 길 위에서 방황하던 아이를 데려와 키웠던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의 10년간 실종사고 되었던 소녀였음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루크도 이 일이 밖에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루크는 고민하던 찰나에 할머니 몰래 소녀를 숲으로 데리고 와 부모에게 무사히 돌아가게 해준다. 소녀가 기뻐하는 부모와 함께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루크는 생각한다.

돌아가신 후, 매일 엄마와 다투며 지내던 하루하루, 새로운 남자와 사랑을 나누시던 엄마의 모습에 방황하던 자신, 며칠 뒤 있을 선생님의 마지막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쳐야한다는 부담

감, 그리고 옛 추억에만 빠져서 살던 나.

그러나 오랜만에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루크는 새삼 기분이 좋았다. 그 마음을 안고 숲으로 돌아서는데 그 순간 패거리일당에 잡혀 곤혹을 겪게 된다. 평소 자신의 보물이던 나무에 올라가 피신을 하였지만 그것을 예상했던 패거리들은 나무에 불을 지피고, 결국 나무의 타는 모습을 보면서 루크는 정신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엄마와 헤어질 수 밖에 없었던 아저씨가 와서 루크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다행히 며칠 후 선생님의 마지막 연주회에 참가하게 되고 괴상한 저택의 할머니와도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권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차이코프스키, 드뷔시, 그리고, 글루크, 라벨, 맥도웰, 스크리아빈 등 클래식 명곡들이 루크의 손에서 연주되는데, 아름다운 묘사 덕분에 음악적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일기도 한다.

소설을 읽으며 음악을 찾아 듣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독서법이 될 것이다. 알프레드 윌리엄 헨트는 ‘음악은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이처럼 딱 들어맞는 책도 없을 것이다. 상처를 다독여주고, 성난 시선을 순하게 바꿔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이 소설. 루크가 들려주는 피아노 소

리를 듣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어떤 음악일지 짐작은 간다.

이 글을 읽는 동안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잔잔하게 흘러들어왔으니까. 별을 쫓는 아이, 루크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겠지.



【고등부 은상】

## 「데미안」을 읽고

허은지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



난 이 책을 읽을 때, 앞부분은 매우 재미있게 봤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수록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 책은 약간, 아니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매우 이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이 두 번째이다.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읽었었다. 그 때도 이해가 안가는 채로 계속해서 읽어 내기만 했다. 지금 읽어보니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이다.

어두운 세계에서 방황하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게 된다. 데미안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 후, 싱클레어는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따라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싱클레어는 지구상에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새를 데미안에게 보낸다. 그리고 데미안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새, 먼지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온 새, 그리고 신 아프락사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여인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후,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전쟁에 함께 참전하다. 싱클레어는 부상을 당하고 야전병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데미안은 만약 자신이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싱클레어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키스를 전한다. 싱클레어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데미안과 꼭 같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싱클레어는 내성적 인물이면서 생각이 깊은 인물이다. 데미안을 만나기 전까지는 속으로만 계속 생각했지만, 그를 만난 후 밖으로 생각을 말하게 된다. 데미안을 만난 것이 싱클레어에게는 큰 영향이었다. 싱클레어는 이 작품에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는 인물,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데미안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데미안은 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리고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야전병원으로 옮겨져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말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다. 자신이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스스로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키스를 전하는 바로 이 장면 말이다. 끝부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슬프기도 하고 내면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잘한 것 같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나는 주인공 싱클레어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의 요구와 그것을 막아서 못하게 하는 사회와의 갈등이 심할 때에, 바로 사춘기에 자신이 나아갈 길을 가장 고통스럽게 싸워 얻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싱클레어는 방황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에 당황하게 되며, 대부분이 헤매고 당황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보이기도하고 안보이기도 하는 많은 어려움에 지치고 무너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싱클레어처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을 것은 얻어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의 세계에서 나온 성인이 될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왜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썼을까?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작가는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에게 “누구나 개인의 차가 있지만 고민하는 인간의 존재와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 같다.

나는 이 작품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새는 알을 깨고 나

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라는 부분에서 교훈을 얻었다. 난 이 ‘하나의 세계’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남과 비교하는 삶,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모두 버리고, 나 자신을 이기려는 데 힘쓸 것이다. 나한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직한 황소고집이다. 이것을 이용해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우직함으로 내 꿈을, 나의 길을 찾아가겠다.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의 이 우직한 황소고집으로 밀고 나아가겠다.

이 작품을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 나와 같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 작품을 권하고 싶다. 이 작품을 읽으면 나처럼 꿈을 성취하기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등부 금상】

## 「나의 미카엘」

홍혜원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작년 여름방학에는 유난히도 소설을 많이 읽었다. 왠지 공부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책에는 쉽게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공부에 박차를 가해왔던 것도 아니거니와 무엇이던 일단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짧고 어렵지 않은 소설책을 기웃거렸었다.

그중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 것은 아모스 오즈라는 이스라엘 작가의 책이었다.

책은 위안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글 몇 줄을 이해하려면 그에 집중하고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빠져있던 현실에서 조금은 멀어지도록 해주는 것 같다. 약간 거리를 두면 마음이 편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날 나의 미카엘이 내게 가져다준 위안은 조금 특별한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첫 장을 열자마자 이 구절이 나를 강렬하게 휘어잡았다. 이 책을 손에 넣은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마디는 나를 처음 그날처럼 긴장하게 한다.

“기억하고 싶다, 잊는 것은 죽는 것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주인공 한나는 아주 예민한 기억력의 소유자이고 그녀의 시점에서 ‘기록’된 그녀의 삶의 조각들은 더없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살아있다.

과거의 사소한 찰나들이 녹도 하나 슬지 않고 날카롭게 살아 있어서 오히려 기억의 주체인 그녀 자신을 아프게 한다. 죽고 싶지 않아서 기억하는 것인데. 죽지 않으려니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아픈 것이다. ‘사실’은 모두에게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 감정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녀의 미카엘은 그녀의 눈으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머리 속에서 살아있었다. 미카엘은 그녀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경멸하게 하고, 살게 하였다. 그녀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애정을 무덤덤한 뒤통수로 느끼며 그녀의 인생의 순간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살았다.

미카엘은 과연 한나의 것이었을까? 미카엘에게 안녕을 고하는 순간 한나는 기억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을까? 그리고 죽었을까?

한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내내 나도 모르게 숨죽였던 것은 기

억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그녀 위에 재차 겹쳐져왔기 때문이다. 애매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어떤 순간을, 누군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찌면 철없는 오만이고 생떼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겐 그 순간을 잃는 것과 같았다. 완벽했던 또는 엉망이었던 어떤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순간을 전부 기억하고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감고 재생시켜 보면서 그 순간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했다. 그 순간을 내가 가졌고 그 순간을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시간에 지지 않았다고 안녕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하는 걸까? 비록 한시적이고 위태로운 것일지라도 위안은 위안이다. 이 책이 내게 준 위안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아파야 한다. 기억들이 새파랗게 살아 날뛰는 한 아마도 나는 아플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아픈 것이 당연하다.

적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 아프지 않고도 현재를 사는 법을 언젠가는 배워야 하겠지만... 아마도 한나가 그랬듯이...

【고등부 대상】

## 변화는 작은 ‘배려’ 에서 시작됩니다!

소 보 미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얼마 전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 못한 대한민국은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 정부와 국민들의 촛불과 물대포 대치 등 갈등과 분열 속에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배려’ 라는 작은 책 한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열쇠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책 속에서 주인공 ‘위’ 는 유능한 회사원이다. 그는 회사의 가장 중심업무라 할 수 있는 기획팀 차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온다. 프로젝트 1팀을 없애라는 철혈상무의 지시를 받고 프로젝트 1팀의 차장을 맡게 된 것이다.

프로젝트 1팀은 인정과 대인관계의 원만함을 가장 큰 강점으로 업무에 임했지만 정확한 이해타산과 이윤추구, 효율성이 강조된 업무환경을 원했던 철혈상무와 일부 세력들에겐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철혈상무의 지휘 속에 목적을 가지고 임하는 프로젝트1팀에서의 생활에 혼란스러웠던 위는 ‘인도자’라 불리는 회사의 전 고문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된다. 인도자는 냉정하고 이기적이기만한 회사의 사람들에게 배려의 중요함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냉정한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일을 하기로 회사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인도자는 그와의 만남에서 ‘진정한 사업과 업무는 나와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도자의 조언과 프로젝트1팀에서의 생활이 위를 변화시킨다. 위는 점점 이해타산적 사고와 기계적 사업이 아닌 프로젝트1팀의 인정과 배려를 통한 업무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배려를 통해 위는 냉철하고 이성적이기만 하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전과는 달리 따뜻한 가슴으로 임하는 직장생활을 통해 프로젝트1팀도 살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책에서 글쓴이는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행동만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배려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배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배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너그러움은 가지고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색한듯하

다. 또한 타인을 위한 배려보다 자신을 위한 배려에 익숙하고 자신을 위한 배려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대립이 생긴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책에서 말했듯이 타인을 위한 조금의 배려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런 배려가 혼란스럽기만한 지금의 현실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귀기울이는 정부의 배려, 무조건적 반대와 반감으로 일축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국민들의 배려가 어우러진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나라의 발전과 화합은 조그마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다.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의 마음, 세상을 향한 나의 작은 배려가 당장은 시간낭비이고 나에게만 손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작은 실천이 이야기 속 위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켰듯 우리 삶 속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늦은 밤 회사 일에 지쳐 현관문을 들어서시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코끝을 찡그리게 하는 소주냄새가 아닌 밝은 웃음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간절히 바라본다.

【중등부 동상】

## 세상에 당당해 지기

이 경 연 | 증포중학교 1학년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평범한 중국 소녀가 전족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1년 후 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 조상대로 이어져내려 온 ‘전족’이란 관습을 깨 버린 아이린의 용기가 대단했다.

아이린이 살던 때에는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는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아이린은 그 중에서도 천한 신분이 아니라 뼈대있는 타오 가문의 딸이었으니 그 큰 발이 더욱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런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면서도 큰 발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자신의 뛰어난 언어실력으로 미국의 차이나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그녀는 조국의 비인간적인 관습을 깨버린 대단한 여자다.

나는 전족이란 풍습에 대해 알고 나서는 중국인들은 정말 이상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개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때도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이런 문화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족은 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기지만 중국에서는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는 시집을 가기도 어려웠고 사회에서도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아이린의 집안에서도 뛰어다니는 아이린을 보고 가족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밖에선 더 심했을 게 뻔하다.

그런 상황을 겪게될 줄 알면서도 전족을 하지 않은 아이린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중국 여자들에게 전족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원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조용히 집안 일이나 해야하는 따분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린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이 아니라 관습을 깬 용기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만일 아이린에게 개방적인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녀도 결국 평범한 상류층 중국여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아이린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서양문화의 수용으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말해주었고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을 강조하기 보다 이 세상에는 중국말고도 여러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아버지 덕분에 다니게 된 공립학교에서 만난 쉬에옌이 전족을 하지 않은 자신의 큰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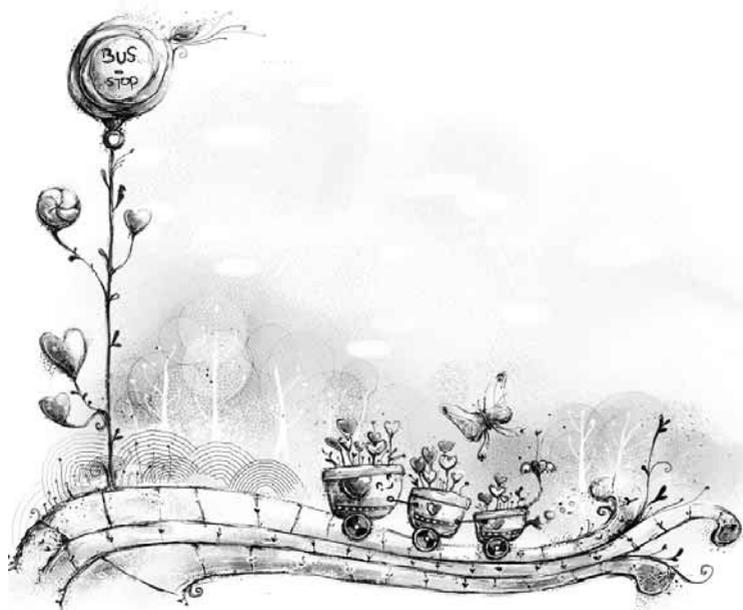
을 자랑스러워 하고 남들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큰 포부를 보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큰 발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다. 하지만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각오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린은 전족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에 가서 살았다. 또 타국의 차이나타운에 식당까지 차리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부족해 그냥 내 조국에 남아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어느 위인들처럼 아주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도, 나라를 개혁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에 당당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롤모델로 삼을 만 하다. 아이린은 그녀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꺾끗이 헤쳐나갈 수 있었다. 요즘은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아이린처럼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면 목숨을 끊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낼 수 있는 용기도 무시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운택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과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자신이 만족하는 삶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자쪽을 고를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아이린에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 개척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도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아이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용기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겠다.





【중등부 동상】

# 「너도 하늘말나리아」를 읽고

박 다 은 | 장호원중학교 2학년



이 책은 사춘기에 접어든 세 친구들이 많은 아픔을 견디며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미르, 소희와 바우는 각자의 상처를 속으로 감추고 괴로워하다가 아파하는 서로를 알게 된다. 서로에게 상처를 내보이고 보듬어 주는 순간, 아이들의 상처에는 새살이 돋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지혜를 배워가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이혼한 엄마를 따라 달밭 마을로 내려온 미르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채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

미르는 보건소 진료소장인 엄마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절대 행복해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응어리진 모습을 보인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희는 지나치게 조숙하다. 소희는 날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을 성찰하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간다.

바우는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이 세 주인공은 달밭 마을이란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고 갈등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아픔을 극복해 나간다.

난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아이의 기분을 알지 못했다. 막연하게나마 많이 힘들 것이다 생각했다. 한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다. 만약 우리 부모님도 미르의 부모님처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난 어떻게 될까? 자식을 생각하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복수에 불타오를까? 아님 이해할까?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나쁜 것 같지도 않은 부모님들의 모습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성큼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 또 바우처럼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난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나도 마음을 달아버릴까? 소희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개가하고 늙은 할머니랑 살아야 한다면? 난 소희처럼 당당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고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다.

이 책의 아이들은 정말 순탄치 못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 어린 친구들과는 비교도 안 될만큼 어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을 읽기 전과는 많이 달라진 지금의 내 생각은 사랑, 우

정이다. 하다못해 감정까지 말라버린 삭막한 도시에서, 때묻지 않은 내 또래 아이들의 웃음이 담긴 산골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하늘말나리아’ 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하지 않나 싶다. 나 또한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때 다른 누군가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책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더 갖게 된 것 같다. 일단 난 내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소희, 미르, 바우의 이야기를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이혼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이 세명의 친구들이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힘 있게 극복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다. 나는 이 친구들보다 어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느꼈다. 교환도서로 선정되어 읽어본 이 책이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준 것 같아 정말 만족한다. 비록 이 책이 교환도서로 읽었지만 정말 뜻깊은 책인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해볼만한 책 인 것 같다.



【중등부 동상】  
「십시일反」

한 보 람 | 장호원중학교 2학년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간차별(인권무시)에 대해서 짧은 만화로 우리들이 쉽게 지나치며 알지못했던 사소한 문제가 모두 인간차별이고 인권무시에 해당이 된 다라는 교훈이 있는 책이며 특히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했던 주제는 외국인노동자와 여자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의 차별화된 시선을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백인들은 그런 차별을 적게 받지만 소위 흑인이라 불리는 인종은 특히 더 심하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백인계열이 아닌 동양계열이여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인권무시를 하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돈도 적게 받고 욕만 받아야하는 안

타까운 외국인노동자,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차별이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모두 괜찮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일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남아선호사상이 아직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남녀차별은 한시라도 빨리 사라져야하는 목록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서민과 부자의 문제이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좋은사람, 나쁜사람을 결정하며 몇만 내고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자신의 집)가 20평이든, 40평이든, 60평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 없다. 돈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확정은 될 수가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만족을 못하고 더욱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다른이에게 베풀기까지 한다. 옛 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부디 자신을 자신만큼만 인정하여 다른이의 안타까운 형편까지 인정해주어 모든이가 세상에 대해 만족하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래야 모든 인권이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 미래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른 인권무시 문제로는 장애인 차별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막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똑

같은 인간인데 다른시각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똑같은 휴지통이 있는데 한 휴지통만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모두가 이해가 안되고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도 똑같은 것이다. 장애우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랑을 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있는데 다른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장애인은 그런 인식으로 인해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가 남는다. 남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여기 산다는 이유로 땅 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남아서 살수 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진국으로 가서 떳떳하게 인격을 존중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시설도 안 좋고 안 좋은 시선만 받는다면 나라고 해도 아니 모든사람이 같은생각일 것이다. 시설이라도 좋게 하던가 아니면 모든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던가를 해야한다.

마지막의 문제는 바로 동성애자이다. 외국에서는 흔하고 인정도 해주며 결혼도 인정해 주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솔직히 나도 조금을 꺼끄럽지만 그래도 인정은 한다. 이 책에서는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역시나 우리의 반응과 같이 냉담했다. 동성애자가 옳다고는 말 못하지만 틀리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인식과 오해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는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확률은 다른 이유보다도 낮다. 그러니 우리는 동성애자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들을 존중

해주면서 지켜보는 것만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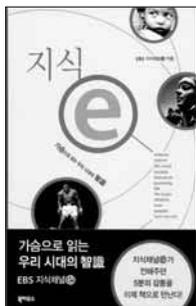
그 밖에도 인간차별의 문제는 사사로울 정도로 많다. 일일이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슴에 세기고 다잡는다면 모든 인간차별은 없어 질 것이다. 아무리 멋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되지만 인정을 해 준다면 미래의 훌륭한 인물로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질 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높을수록 다른사람이 나를 능가할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 처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이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십시일反은 특별한 주제를 쉽게 만화로 표현해 읽기 쉬웠고 많은 교훈을 주었다.



【중등부 동상】

# 「지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

류 세 영 | 장호원중학교 1학년



이 책은 EBS지식채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그때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제목 중 e는 자연(nature), 과학(science), 사회(society)를 키워드로 한 알파벳이다.

전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주제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내용을 가진 이 책은 평소 독자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난화와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사회분야에선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의 국민들이 받는 고통과 슬픔, 불행한 삶 등을 다루고 있다.

간단하게 각각의 주제에 알맞게 쓰여 있는 글과 같이 담겨있

는 사진들의 조화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때론 책 안 사람들의 억울함, 슬픔을 느끼게 해주었고 큰 깨우침을 주기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말해줄 생각이다.

첫 번째는 커피 한 잔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커피생산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여 얻는 이윤의 약 99%가 커피회사에게로, 나머지 1%가 커피재배농가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현재 주로 커피를 생산해 내는 나라가 브라질이며 그 뒤를 콜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커피재배종사자 중 대부분이 극빈자들이며 절반이 어린이라고 했다. 아직 뛰어놀고 싶고, 부모에게 어리광도 피워보고 싶은 나이의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 전부터 그냥 스치듯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을 읽는 순간 더욱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반발하지도 못 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축구에 관련된 두 가지의 이야기이다.

현재 축구공 주요생산국중 하나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수제가 아닌 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제로 축구공을 만들 때는 32조각의 가죽과 1,620회의 바느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일당 300원을 받

고 수제축구공 만들기 작업을 한다. 자신들 스스로 나는 단지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만드는 축구공 한 개의 가격은 15만원, 받는 일당은 300원. 정말 어이없지 않은가? 그런 일이 어쩌다 세상에 알려져 동시에 파키스탄과 계약을 맺고 있던 유명한 스포츠물품사인 나이키의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탓에 나이키의 주가가 증폭 하락되었던 일은 나이키사가 그런 불합리적인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마무리 지어졌었다. 축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아프리카 축구선수들의 영국 진출과 그에 따른 일들이다.

“유럽에 진출한 아프리카 축구선수들은 운동이 아닌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야기에서는 아프리카의 축구와 월드컵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실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프리카 각국의 2/3 이상이 실제로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그들의 수입 중 대부분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축구는 노동이 아닌 즐기며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햄버거에 관련된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햄버거. 우리가 햄버거 한 개를 먹을 때마다 5㎡의 숲이 사라지고 소고기 100g를 위해 소비되는 물이 2,000L에 이른다. 중간에 삽입된 사진위에는 “우리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몰디브의 누군가는 해일에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써져있다. 멕시코의 환경운동가 가브리엘 과드라

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고,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농토의 2/3이 가축들의 축산단지로 났다고 주장했다. 평소 햄버거를 즐겨 먹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오는 피해가 절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기에 햄버거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소름 돋는 이야기, 화가 나는 이야기, 측은한 마음이 드는 이야기, 인간이 정말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 등 많은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느낌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내 곁에 존재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은 어떠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중등부 동상】

## 「오체불만족」을 읽고

한 승 혜 | 장호원중학교 1학년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크게 성공한 오토다케 히로타다군……. 나는 그가 태어났을 때를 예상했다. 분명 아이의 엄마가 크게 실망할 거야. 아이가 불구로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내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다. 병원의사, 간호사들조차 아이를 보여주는 걸 꺼려했지만, 히로시마군의 엄마는 기어코 자신의 아들을 보았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된 미소를 지으며 정말 귀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히로시마군이 왜 마음이 넓고, 인기가 많은지 짐작이 갔다. 성실하고, 때론 승부욕이 강해 노력하고 결국 이루어내는 그런 마음……. 일단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항상 학원 갔다 오면 컴퓨터하고 복습, 예습하지 않고 숙제는

친구 것을 베껴서 하는 나의 이런 나태한 모습……. 몸이 불편한 아이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는 시간 아까운줄 모르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있다는 것이 정말 발가벗은 듯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로타다군의 어머니…….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력과 히로타다군 보다는 뒤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로타다군의 어머니가 더 대단한 분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세계 거의 99%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몸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거의 키우기는 하지만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는 어머니들도 꽤 다수이고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이 사회에서 굳게 강하게 성장 해나 갈수 있게 따뜻한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유리 온실속 꽃처럼 키운다면 그런 아이들은 그런 것이 더 괴로운데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보살핌, 외출금지 이렇게 키운다.

하지만, 보다시피 히로타다군의 어머니는 그런 예상을 확 뒤집고 오히려 히로타다군을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키웠다. 무조건 보살핌이 아닌 일상의 잔소리, 일상의 어머니와 자식 간의 대화나 산책 등을 즐기면서,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 또한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한 충고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히로타다군이 잘 자랄 수 있게 인도해준 대인배의 어머니……. 정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히로타다군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은 깨닫게 해준 것 같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리셔서 몸이 불편하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아빠는 친구사귀는 것도 어렵고 놀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어머니 즉, 나에게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아빠를 배려해주시며 충고를 해준 덕분에 아버지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우리할머니를 무척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머니께 말대꾸라도 한다면 바로 달려오셔서 엄하게 혼내신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장애가 부끄러우신지 많이 북적거리는 곳에는 가지지 않거나 차 안에만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유해드렸고, 아직도 읽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종종 읽으시다가 눈물도 보이시기도 한다. 뭔가 통하는 게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년기의 히로타다군과 우리 아버지에게 웃음을 준 고맙고 친절한 친구들! 어린 시절에 만약 친구들이 막 놀리고, 때리고, 따돌림 시키면 과연, 그만큼 히로타다군과 우리 아버지는 마음에 심한 상처가 나서 더욱 소심하고 자신을 가두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히로군과 아버지를 어머니 만큼, 나 자신 만큼 아니면 더욱 더 지지해주고 격려해줬을 친구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히로타다군은 스스로 노력하고,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친구들과의 소통으로 이 사회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거 같다. 나도 이렇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면 모든



【중등부 은상】

## 「마시멜로 이야기」

이 예 진 | 장호원중학교 3학년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서교환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다. 1학기 동안 도서교환을 하며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마시멜로 이야기’이다. 이 책은 자신이 몇 년 전 마시멜로 실험을 하게 된 계기와 그 후 결과나 찰리에게 충고 될 말을 해주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고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과 마시멜로를 먼저 먹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주인공은 사업가 조나단과 학생 찰리이다. 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도 잘 듣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집에만 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다. 찰리는 분명 자신이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도, 공부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매번 컴퓨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부모님의 걱정거리를 늘게 한다. 어느 날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집 근처 농구장으로 향한다. 그 곳에서 찰리는 사업가 조나단을 만나게 된다. 조나단은 걱정이 있는 듯했다.

찰리에게 다가가 고민을 들어주었다. 찰리의 고민은 조나단의 어릴 적 고민과 비슷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컴퓨터 게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찰리의 고민이었다. 조나단은 이런 찰리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네 명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0분간 참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준다는 것인데 네 명중 한명만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게 되었다.

이 네 명의 어린이들의 10년 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와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고 하나를 더 받은 아이 중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조나단은 찰리에게 마시멜로를 준다. 마시멜로를 받고 집에 늦게 들어간 찰리는 부모님께 혼나긴 했지만 마시멜로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뿌듯했다. 그 이후 찰리는 컴퓨터의 게임을 하나씩 지우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다. 찰리는 자신의 꿈도 찾게 되었고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

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세라는 것과,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결실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 갈 줄 안다는 것이다.

나도 찰리처럼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 또한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더욱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성공을 위해서는 언제나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구절이다.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쟁을 벌인다.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넓게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누구나 남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가장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하고자 하는 바를 열심히 할 때, 또한 그것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는 큰 뿌듯함을 느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그리고 ‘성공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시멜로이다.’라는 구절도 가슴깊이 다가왔다.

이 글에서 주는 교훈처럼 어떤 것이든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다른 말 하지 않고 반성을 하고 큰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 주는 교훈과, 충고같이 찰리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보다

는 내일을 위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며 이 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의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중등부 금상】

## 「1리터의 눈물」을 읽고

고 소 현 | 울면중학교 3학년



처음 1리터의 눈물을 읽게 된 동기는 일본에서 방영했던 1리터의 눈물 때문이었다. 이미 드라마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책으로도 큰 인기를 끈 1리터의 눈물 내가 1리터의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키토 아야 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여서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은 키토 아야씨가 직접 일기에 쓴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키토 아야씨의 14세부터 21세까지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보면서 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된 것 같다. 특히 이 책에서 주인공인 키토 아야 가 겪고 있는 불치병 ‘척수소뇌변성증’ 이라는 내게는 생소하기만한 것도 알게 되었다.

키토 아야씨는 다른 여자아이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14세

의 소녀였다.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기대감에 부풀어 하루하루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던 아야.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녀의 평범한 생활이 끝이 난 게 아닐까. 그녀는 걷는 동안 자꾸 넘어지고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아야에게 찾아온 불치병 ‘척수소뇌변성증’.

※척수소뇌변성증이란 소뇌 뇌간 척수등에 변성위축을 일으키는 유전병을 말한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척수소뇌변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히가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야.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일반 고등학교 생활 때문에 아야는 결국 도중에 양호학교에 전학을 하게 된다. 휠체어 까지 타게 된 아야. 머리는 좋았던 아야였지만 아야 속에 있는 불치병 척수소뇌변성증이 문제였다. 항상 걷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은 더 진행되어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된다. 몸이 점점 더 굳기 시작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척수소뇌변성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린걸 알게된 아야는 하나님께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이 대목에서 만약 아야의 상황이 나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었다면 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나도 아야처럼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난 왜 하필 나여야만 했는지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다.

병의 진행으로 아야의 신체기능은 매우 떨어져 있었고 목소리

도 잃어 가고 있었다. 아야는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고 점심시간조차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쳐져있었다. 교실을 이동할 때에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양호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던 아야. 아야가 세 번째 입원을 했을 때 아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점차 생긴다. 그러면서도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아야.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아야. 병이 걸린 이후로 제일 좋아하던 취미이자 일상이었던 일기쓰기도 힘들어지게 된다.

아야의 나이 19세가 되던 해 아야는 점점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아야. ‘엄마 이제 살수 없을지도 몰라요.’(1리터의눈물 구절中)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제는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아야이다. 그 후 1988년 5월23일 0시55분 아야는 영원히 잠들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읽게 되었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아야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을 불치병 생활을 보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또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아야가 대단하기도 하고 만약 나한테 아야와 같은 불치병이 생겼다면 나는 어떤 기

분이고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하는 책이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고 몸의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며 기능들을 서서히 멈추는 나한테는 이름조차 생소하기만한 ‘척수소뇌변성증’이라는 병. 만약 아야가 나였다면 좌절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다. 위에서 글을 쓴 것처럼 왜 나여야만 했냐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다. 당장 눈물부터 닦을 거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내가 만약 아야처럼 말도 하지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일 것 같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뻘뻘한 글씨로 ‘아리가토우’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 글씨를 쓰고 세상을 떠난 장면을 읽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돈듯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떠난 아야 한없이 약하고 힘들고 아파했던 아야지만 가족들이 있었기에 견뎌내지 않았을까? 울지 않고 병마와 싸운 아야지만 결국 그녀 자신도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힘들었어도 매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을 아야 울지 않고 이겨냈던 아야지만 ‘이렇게 웃기까지 나는 1리터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아야도 많이 울고 힘들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한마디 구절 안에 아야의 숨겨진 눈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책을 다 읽고 나서, 흔히 좌절하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끝없는 나락의 끝으로 추락하고 있

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한번쯤은 권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아팠던 아야도 웃음일 잃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살았다고……. 사실 그녀는 우리보다 더 강했던 게 아닐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하고는 달랐던 게 아닐까? ‘척수소뇌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린 불치병 환자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아야.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아야를 보면서 나약하기만 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된 거 같다. 25세의 남들보다는 짧은 삶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로 인해 우리가 조금은 더 희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중등부 대상】

# 마주보며 커가는 팽이부리말 아이들

이 해 린 | 증포중학교 1학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와 분야별의 책들이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분야의 책이 각각 다르고 읽고 난 후의 느낌도 제각각이다. 같은 책을 읽고서 다른 느낌의 독후감이 나오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책 제목으로 이 책을 읽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 역시 무의식속에서 책 제목을 의식하고 판단하고 있다. 내 자신도 책을 고를 때 책 제목을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제목으로 고른 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꼭 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작가다. 책에는 작가의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작가만의 특징이 살려져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깡이 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을 고를 때도 먼저는 제목의 호기심으로 집어들었다.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깡이부리말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수많은 책들을 집어들렀다가 다시 책장으로 돌아감을 반복하고 있던 때에 이 책은 다시 책장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작가를 확인해 보았다. 김종미 작가였다. 김종미 작가? 낯설지만은 않은 작가였다.

‘김종미 작가... 김종미 작가...’

마음속으로 되풀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통해 찾아 보았다. 김종미 작가는 종이밥을 썼던 작가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진 작가였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깡이부리말 아이들에 나오는 이 아이들도 가난하고 힘이 없지 않을까 하는 추측아래에 책장을 넘겼다.

책을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목에 대한 호기심을 풀 수가 있었다. ‘깡이부리말’은 인천 만석동 달동네의 별칭이라는 것이다. 또한 ‘깡이부리말’은 6.25전쟁 직후 가난한 피난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곳 이었다. 책 제목에 대한 호기심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덮지 않고 계속 읽어나갔다. 어찌면 내 마음 속으로는 호기심을 풀기위해 책을 넘긴 게 아니라 읽고자 했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숙자와 숙희는 쌍둥이다. 그러나 숙자는 어른스러운 반면 숙희는 철딱서니가 없다. 엄마는 집을 나가셨는데 이 빈자리를 숙자가 채우고 있는 셈이다. 엄마가 나중에 아기를 갖고 돌아오게

되지만 말이다. 숙자와 숙희는 동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준이는 아빠와 엄마 두 분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 동준이에게는 동수라는 형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친구인 명환이와 본드를 하곤 했다. 나도 이 본드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잠시라도 현실에서 나오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안다. 본드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 엄마와 아빠가 집을 나온 것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을지 알만 하다. 팽이부리말이라는 마을에는 학교에서도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게 이 아이들의 현실일 것이다. 경제성장의 뒤에서 밀려난 힘없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날도 동수와 명환이는 본드를 하고 있었다. 그런 둘을 발견한 사람이 영호였다. 본드로 환각상태에 빠져있는 둘을 다른 사람이였다더라면 혀를 한번 차고는 갔을 텐데 영호는 이 둘을 그냥 두지 않고 불을 때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는 영호의 집에 데려와 눕혔다. 정신이 든 동수와 명환이는 영호를 보고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하더니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밥을 다 먹고 영호는 둘과 함께 동수네 집으로 갔다. 영호는 무너져 내린 싱크대하며 구더기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이런 집에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둘의 짐을 싸서 영호의 집에 다시 데려왔다. 이렇게 명환이와 동수는 동생인 동준, 그리고 영호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니 동준의 친구인 숙자와 숙희도 자연스레 이 집에 들락하게 되었

다. 처음에는 가출을 하고 경찰서에 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출을 한 것이 영호가 자신을 또 버릴까봐 였다고 하니 나쁘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웠다. 문제아가 아닌 문제아였던 동수를 비롯해 아이들과 사랑으로 화합하는 모습에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정말 한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는 모습에 나는 정말 영호의 따듯함을 느꼈다.

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는 말이 나의 가슴에 와 닿았다. 힘들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팔이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아빠가 안 계신 아이들 또 크리스마스이브에 힘든 경제생활로 버려진 아이, 정말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모두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모습에, 무엇보다도 동수가 명희선생님을 비롯한 모두의 관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짙한 감동이 왔다. 영호의 친구였던 명희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아를 상담해 주기 싫다고 단번에 거절했지만, 고민 끝에 한 번 만나보기로 했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수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선생님께 말을 먼저 건 것을 봐도 그렇다. 아마도 명희라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관심으로 오히려 문을 열고 있었을 것이다. 기술자가 되겠다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동수와 명환이의 작고 소박한 꿈에서도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했다.

팽이부리말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집을 나가버리고 학교에서는 잘 하는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주니 이 아이들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동수의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을 잘 헤아려 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던 영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동수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다. 만약에 영호가 이 아이들은 내가 꼭 필요하라고 생각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도중에 아이들을 다시 방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아이들과 내가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게 영호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일 것이다.

깡이부리말 아이들이 외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마음적으로 힘든게 더 컸다는 것, 이런 시련들을 모두가 함께 꺾어 버렸다는 것.

이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는 내내 목이 메었고 가슴이 뜨거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을 넘긴후에도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 있다는 것... 마치 한 편의 시같이...

【초등부 동상】

## 「진짜엄마와 가짜엄마」를 읽고

유 은 주 | 도암초등학교 4학년



나는 진짜엄마와 가짜엄마를 읽고 아주 재미 있었다. 진짜엄마와 가짜엄마의 이야기는 두 여인이 솔로몬왕에게 찾아왔는데 두여인이 갓난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솔로몬왕이 두여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반반 닮아서 얼굴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솔로몬왕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솔로몬왕은 반으로 잘라서 가지라고 했는데 한여인은 울부 짓으며 “재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왕은 알았습니다. “진짜엄마는 이 여인이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진짜엄마의 품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엄마와 가짜엄마를 읽고 느낀점은 솔로몬왕이 진짜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솔로몬왕이라면 이런 생각

도 못하고 그냥 가위바위보나 더 닳은 사람에게 줄 것 같았는데 솔로몬왕은 진짜 영리한것 같다. 그리고 가짜 엄마는 왜 진짜엄마의 갓난아이를 탐냈는지 너무 궁금했다. 만약 아이가 없으면 그냥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왜 자기 아이가 아닌데 왜 자기 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갓난아기와 반반씩 닳았다는게 아주 신기하다 거의 같은 식구가 아닌 사람들은 반도 닳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 받았고 새로운 다짐도 많이 했다. 나를 더더욱 솔직하게 거짓말 안하게 해준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도 만약 진짜 엄마나 솔로몬왕이 돼서 진짜로 이 자리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에서 “그렇게 하지마세요. 그렇게하면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주 느낀점이 많았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많이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다짐은 앞으로 이 책이랑 비슷한 책을 더 많이 읽고 진짜와 가짜는 숨길 수 없어서 이젠 거짓말도 안하고 거짓말을 해도 언젠가는 밝혀 질 수도 있으니까. 나도 이젠 거짓말을 좀 줄이고 착하고 당당하게 살 것이고 이젠 공부도 열심히해서 솔로몬왕처럼 지혜롭게 해결도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초등부 동상】

## 『무기 팔지 마세요』를 읽고

조 재 연 | 아미초등학교 4학년



나는 '무기팔지 마세요!' 라는 책을 읽었다. 내용은, 보미라는 초등학생이 장난감 총을 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주인공인 보미는 책임감과 도전정신이 강하다. 나 역시 귀 따갑게 장난감 총을 쏘대는 것을 반대하지만, 보미처럼 먼저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진 않으니까.

이 책에 나오는 보미는 장난감 총을 위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장난감 총 때문에 혼이 나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전쟁을 싫어한다. 적어도 군인들이 총을 쏘아대는 것만큼은 정말로 싫어할 것이다. 까만 총과 커다란 탱크와 여기저기 총을 쏘며 다니는 군인들도. 그런데, 요

좁 아이들은 장난감 총을 쏘아댄다. 아마도, 단 하루도 지구에서 총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일까? 놀이터의, 운동장의, 길바닥의 알록달록 여러색의 총알을 남긴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장난감 총을 쏘는 것일까?

보미는 총을 쏘는 것보다 총을 파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기를 파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자는 뜻으로 무기를 판 게 아닐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무기를 파는 사람들도 역시 전쟁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다.

우리학교는 아직 보미의 학교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색색의 총알을 줍는 것을 보면, ‘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총을 사고 문방구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본적이 있다. 그리고 그저 장난으로만 총을 가지고 위협을 주는 아이도 볼 수 있었다.

책에서는, 저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도 그 큰 땅을 총소리로 채우는 일이 많다고 한다. 보미의 기사를 본 제니도 보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보미와 제니, 평화모임아이들은 모두 장난감 총과 무기를 반대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서 많은 것을 느꼈다. 보미와 제니가 무기에 대해 대처하는 반대운동과 계획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장난감 총을 반대하는 보미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장난감 총 한 번의 실수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이 지구에서 무기의 행진이 끊긴다면 더욱 더 평화로운

지구가 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해 내가 정리해 보자면, 보미의 장난감 총을 막자는 계획을 쓴 이야기가 전쟁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

이 모든 것과,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도 무기를 산 사람, 무기를 판 사람들의 잘못이다. 진짜 총과 장난감 총으로 아이들까지 총에 물들어 가는 지금, 하루빨리 무기로 가득 찬 지구가 아니게 해야 하는 바람이다.

【초등부 동상】

## 「모모」를 읽고

한 현 구 | 장천초등학교 6학년



나는 시간을 유용하게 쓴 적이 잦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게 되었다. 이 책이 정말 나의 시간 경찰인지는 이것을 읽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제는 전혀 쓰지 않는 원형극장에 나이를 모르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모모, 머리는 한 번도 빗지 않은 것 같은 머리예다가 못 입을 만큼 넓은 한 성인의 코트. 천들을 이어 붙여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모모에게는 하나의 재주가 있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사람의 걱정과 고민을 다 없애지게 하였다. 그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은 원형극장을 꾸며주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었다. 모모는 그 후로부터 마을 사람 하나하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고아라도

다른 사람의 걱정과 근심. 고민을 생각하는 모모를 본받아 야겠다.

모모는 단짝친구가 둘이나 된다. 도로청소부 배포의 느린 말투로 말하는 것을 기다려주었기에 친구가 되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지지도 그 믿음을 믿어 주었기에 친구가 되었다.

언젠가부터 모모가 사는 마을에 회색신사 일당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회색신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가서 시간들을 빼앗아 오는 신사들이다. 회색신사들은 기쁨과 즐거움. 또, 행복함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회색신사 한 명이 푸시씨에게 접근을 하여서. 그가 보내는 모든 시간을 다 알아내어 쓸 데 없는 시간을 버리라고 푸시씨를 반성하게 했다. 그래서 푸시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썼다. 나는 이 부분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지 않았던 부분을 반성하여 남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쓰도록 할 것이다.

모모는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모모에게 카시오페아라는 거북이가 접근해온다. 그들은 카시오페아의 스승인 호라박사에게 간다. 호라박사의 연구실에는 굉장히 특이한 것과 신기한 것들이 많다. 그들이 있는 연구실은 회색신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호라박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서 나갈 궁리를 한 것이다. 회색신사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긴 하지만 시간을 그만큼이나 흠쳤으면 뻘쭘 왜 계속 흠치는지 모르겠다.

모모는 호라박사가 시간을 멈추게 한다고 하자 조금 놀랐다. 모모는 호라박사의 말대로 시간이 멈추자 꽃을 들고 있었다. 모모는 호라박사의 말대로 꽃을 들고 회색 신사들에게 간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흠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모모의 덕에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고 회색신사들은 사라지게 됐다. 다시 회색신사들이 영혼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 낭비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그러나 그 때 마다 모모가 나서서 도와줄 순 없다. 자신의 숙제를 자기가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노력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자신들이 찾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정말 흥미진진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준다. 난 이 책을 읽고서 많은 것을 느꼈다. 정말 감동적이고 나 같은 철부지 6학년이 꼭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부 동상】

## 「세종대왕」을 읽고

홍 태 림 | 부이천남초등학교 6학년



엄마랑 차를 타고 가던 하교 길에 엄마 께서 틀어주신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수출했다는 아나운서의 말이 나왔다. ‘한글을 수출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에 대하여 새삼 궁금해 졌다. 그길로 도서관에 가서 나는 세종대왕이라는 책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쓰인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1422년 상왕 태종이 죽은 뒤 세종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조선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열어 주었다. 하지만 나라 발전이 임금 혼자만이 뛰어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닌 지라 임금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수한 인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는 불가능한 법인지라 세종대왕은 인재 양성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로인한 인재 양성소가 바로 집현전이다. 세종대왕은 백

성들이 법을 제대로 몰라서 법을 자주 어겨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전을 이두로 만들어 백성에게 나눠주라 하였다. 이두는 한자에서 소리만 빌려서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었지만 백성들이 이두를 제대로 몰라 나눠준 법전이 소용이 없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보다 쉬운 이두도 어렵다고 느끼는 수준이었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직접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 언어학 공부에 전념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드디어 1443년 12월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완성해 반포했다. 몇몇 신하들은 이미 한자가 있는데 또 무슨 글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세종대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비록 문자가 있다곤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문자를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중국문자는 우리 발음과 달라서 일반 백성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세종대왕의 굳은 의지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과거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넣고 관리들에게도 훈민정음 시험을 치르도록 해 한글을 점차 전파하였다. 세종대왕의 이런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그 과학적이면서 글자 수가 적고 한 글자가 한 음가만 반영해 명쾌하며, 모아쓰기여서 음절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최근 인도네시아 바우 바우시에 사는 인구 6만 명의 짜아짜아족이 한글을 문자체제로

채용한 것일 거다. 우리역사 500년, 한글창제 500년 역사에선 뜻 깊은 사건일 것이오, 세종대왕의 자손인 나는 한글의 위대함에 놀라고 자랑스러움이 밀려드는 건 나의 착각일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글자를 만든 사람 세종대왕, 그 위대함의 중심인 세종대왕을 가슴에 새겨 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눈에 들어오는 외국어, 외래어, 간판을 한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나의 욕심일까? 나 또한 자랑스러운 한글을 업신여기고 친구들과 말을 줄여 쓰는 것이 잘난 것인 양 굴면서 한글을 바르게 쓰지 않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 이제부터라도 한글을 바르게 쓰는 내가 되어 우리를 위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부끄럽지 않은 나, 우리가 되어야겠다. 올해 10월 저 푸른 하늘은 나에게 있어 더 맑디 맑은 것 같다.

【초등부 은상】

## 아름다운 우정

박 세 윤 | 마장초등학교 5학년



아라비안 나이트Ⅳ-

후자이마와 이크리마의 아름다운 우정

나는 학교에서 아침자습시간에 읽을 책을 찾다가 이 책을 발견하였었다. 처음엔 시시해 보였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니 내용이 재미있어서 끝까지 일게 되었다.

옛날에 후자이마라는 부자가 살았다. 학식도 풍부하고, 성품도 좋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특히, 인심이 좋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 인심을 베푸는 후자이마가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후자이마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돕다 보니 그 많은 돈들이 바닥났다. 이제 후자이마는 여태 자신이 했던 것들과는 반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되었다. 후자이마의 친구들이

그에게 옷, 음식 등을 가져다주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나는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자이마처럼 남을 돕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후자이마의 소식이 후자이마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총독 이크리마의 귀에 까지 들어갔다. 이크리마는 후자이마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를 돕고 싶었다.

밤이 되자, 이크리마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후자이마의 집으로 갔다. 이크리마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하인과 말을 숨긴 후 후자이마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4천 디나르를 건네며 “이것으로 어려운 생활을 면해 보시오”라고 말했다. 후자이마가 “당신은 누구신가요?”라고 물었지만 이크리마는 “그냥 ‘자비르 아타라트 알 키람(선심 잘 쓰는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하고는 사라졌다.

날이 밝자, 후자이마는 어제 받은 돈으로 빚을 처리하고 칼리프에게 찾아갔다. 후자이마는 어젯밤의 이야기를 칼리프에게 했다. 그리고 칼리프가 후자이마에게 메소포타미아의 총독이 되어 다스려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서 후자이마는 총독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 지난 시간 동안 이크리마가 관리해 온 장부를 정리한 후, 후자이마는 이크리마에게 돈이 많이 빈다며 어서 갚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후자이마에게 많은 돈을 준 이크리마는 돈을 갚을 수 없어 법대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크리마도 후자이마처럼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돌려받으니 참 안타까운 것 같다.

옥에 갇힌 이크리마는 매일 후자이마에게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았다. 이크리마의 소식을 들은 이크리마의 아내는 현명한 하인을 보내어 전의 그 ‘선심을 잘 쓰는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리도록 하였다. 그제야 이크리마의 정체를 안 후자이마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다. 그리고는 칼리프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 둘은 그 일 후에도 평생 친구로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그 둘의 우정이 참 아름답다. 후자이마가 이크리마에게 돈을 재촉할 때 무척 안쓰러웠는데, 아내 덕에 이크리마가 풀려났을 때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친구들과 내 사이가 어떤지 다시 돌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내 단점을 장점으로 고쳐 친구들과 그 둘처럼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겠다.

【초등부 금상】

## 「고양이 마을 신나는 학교」

이진주 | 마장초등학교 4학년



안녕 견우야? 나는 진주라고해. 견우야 내가 너의 일상을 책을 통해 보았는데 내가 보기에 너 너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소심한것 같아.니가 좀더 말도 똑바로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면 파란 물결과 고양이 학교를 만나지는 못 했겠지만 그래도 더 자신감있고 활기찬 아이가 됐을텐데 그래도 파란 물결과 고양이학교를 만나서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어린이도 되고 철구패거리, 왕참견 할머니, 고릴라 선생님 용서했잖아. 나라면 고양이학교에 조차 안 들어 갔을 것 같아. 만약 들어 가더라도 짜증나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 못했을텐데... 너는 마음이 넓고 착한 아인 것 같아! 나도 너처럼 자신감도 없고 친구랑도 잘 못 지내면 고양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겠지?

그럼 나도 자신감이 생기고 멋진 아이가 됐을 걸? 니가 고양  
이 학교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운걸 알게 됐어. 니가 요즘은 어  
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잘 지내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예전에 견우랑은 많이 다르겠  
지? 나도 어쩔땐 고양이학교에 입학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 아, 맞다! 니가 다니던 고양이학교 개교기념일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고양이학교 개교기념일날 꼭 나도 초대  
해줘. 파란 물결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니가 처음에 파란 물결  
을 만났을때 얼마나 귀여웠으면 깜짝놀라 도망쳤겠니? 이 책을  
읽어서 또 친구가 생겨서 기뻐. 너 이편지 받으면 답장 꼭 써줘  
야되~ 알았지? 그럼 나중에 또 쓸게.

2009년 9월 2일

너의 친구 진주가(마장초등학교)

【초등부 대상】

##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김 아 라 | 장천초등학교 6학년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만 “어린이를 위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의 도움을 받았다.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다른 낯선 환경들과 끊임없이 부딪치게 된다. 그럴 땐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런 것이 경쟁이다.

이 책의 주인공 나대로랑 엄마랑은 라이벌이다. 키가 큰 엄마랑은 키가 작은 나대로에게 매일 “야, 땅꼬마!” 라고 놀린다. 그렇게 매일 나대로랑 엄마랑은 으르렁댄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과학 경시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참가자 명단을 부르는 선생님의 말 속에는 나대로랑 엄마랑이 들어 있었다. 다시 붙은

경쟁이었다. 부자인 엄마랑네 팀은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저 평범한 나대로네 팀은 이상한 아이들과 팀을 하게 되지만, 점점 그 아이들의 실력을 알게 된다.

대로는 집에서 문득 날쌔 모양으로 하늘을 나는 제트기 사진이 눈에 띄었다. 대로는 자기네 팀 아이들에게 비행기를 만들라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로가 당번이 되어서 학교를 일찍 나오게 되었다. 대로는 엄마랑의 사물함을 보았는데, 비행기를 망가뜨릴까 봐 잠가 놓았던 열쇠가 없자 대로는 슬그머니 보게 되었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 엄마랑네 비행기 날개쪽을 떨어뜨리게 되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냥 거짓말로 넘기게 되었다. 중간 성적 발표 때 나대로랑 엄마랑네 팀은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투표의 50%는 선생님이 투표하고 50%는 아이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인기투표인 것이다. 부자인 엄마랑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자기를 뽑아 달라고 그러지만, 대로는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다. 할 수 없이 대로는 엄마에게 문제집을 사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엄마는 선뜻 돈을 내주셨다. 대로는 그런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다.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면서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랑네 조의 비행기가 다시 부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범인은 효성이었다. 효성은 부러진 부분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고, 당분간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대로는 자기가 부신 비행기를 솔직히 말을 못한 것이 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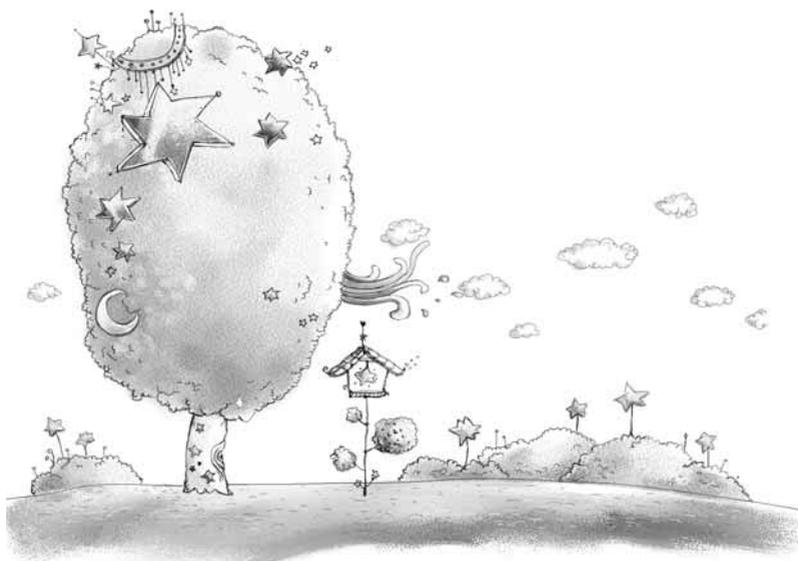
가 되었다. 그런데 그 때 대로가 부러뜨린 엄마랑네 비행기는 대로가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엄마랑이 그 날 대로가 당번인 것을 알고 미리 부러뜨려놓고, 열쇠로 잠그지 않은 것이다. 엄마랑은 자기의 비행기를 부시면서도 라이벌 나대로를 없애기 위해 자작극을 펼친 것이다. 엄마랑은 용서를 빌고 이 일은 조용히 잊혀져 갔다.

그리고 드디어 과학경시 대회가 열렸다. 대로네 버터플라이 호는 처음에는 뒤통뒤통 거리다가 자세를 잡고 하늘 높이 날았다. 여기저기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대로네 6학년 4반 버터플라이 호는 264표로 우승을 하게 되었다.

라이벌이란, 경쟁도 하지만 서로를 배려 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라이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떤 행동에 앞서 망설이거나, 뒷일을 걱정 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경쟁이 꼭 필요하다. 경쟁을 하다가 힘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 상대를 따돌리기 위해 거짓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을 통한 승리를 진정한 승리를 맛 볼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 할 것이고 정정당당한 싸움을 할 것이다.

정정당당한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이고, 나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이 책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정

정당당한 싸움을 하라고 말 할 것이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싸워 얻은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나만을 위해 존재 하고,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싶다. 단, 정정당당한 싸움은 바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 책날개 어린이

# 교실 글 작품

지예지 - 나의 일상  
김 원 -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전세은 - 나의 꿈  
박민성 - UN사무총장  
양혜지 - 내 장래 희망  
서다연 - 논술 선생님께  
김성이 - 우리집 물고기의 생활  
안치훈 - 곰 세 마리에 맞춰  
김세빈 - 명성황후님께  
이지우 - 신사임당 할머니께  
윤주희 -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박상연 - 장영실 할아버지께  
최가연 - 유관순 언니께  
최혜연 - 이순신 장군님께  
박혜윤 · 김은비 · 최가연 · 김수현  
- “꿈들이 사우루스”를 읽고  
최혜연 - 나에게도 잔소리 없는 날이 생긴다면...  
박수빈 · 이종현 - 토론을 마치고  
박상연 · 이다영 · 강광아 - 박사님께  
조정이 - 미륵사지 9층석탑  
최보나 · 임새하 · 최서영  
- 무인도에 침입한 야단법석 관광단  
전윤진 - e-메일 보내기  
김서현 - 추석  
안은희 - e-메일 보내기  
이소영 - 내 짝꿍  
김성재 · 주혜일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박수성 -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이재진 - 먹보장군  
박시연 - 내 짝꿍





# 나의 일상

이 예 지 | 이천초등학교 5학년

나의 일상은 좀 특별하다. 다른 아이들과는 약간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

우선 아침 6시에 기상을 한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엄마를 깨우고 밥을 먹는다. 7시 25분쯤 되면 아빠를 깨우고, 잠시 후 집에서 학교로 출발을 한다. 7시 45분에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특기적성인 Tosel 시험 대비반에 가서 Grammer 수업과 Tosel junior 문제집을 공부하고, 8시 50분에 교실로 간다. 교실에서 2시 30분까지 공부를 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화요일과 목요일은 4시까지 놀다가 영재수업을 듣는다. 다른 날은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다. 집에 가면 평균적으로 밥 먹는 시간을 빼고 6시간이 생기는데 그 중 3시간은 책을 본다(시험기간은 제외). 내가 감명 깊게 본 책은 ‘조선의 독살된 왕(어른용인데 재미있었다), 허클 베리 핀의 모험, 올리스스 무어, 타라 덩컨’ 등이 있다. 그 외의 시간은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한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나는 TV나 컴퓨터를 잘 안 한다. 그 이유는 TV는 볼 때는 괜찮은데, 끄고 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었다. 가끔 나는 피아노도 친다.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어느 정도는 칠 수 있다. 체르니 100까지 하다가 이사 때문에 끊었는데, 다행히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손이 굳지 않았다.

#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김 원 | 이천남초등학교 5학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전교 1등이다. 전교 1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공부도 안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우습지만 그래도 꼭 이루고 싶다. 나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다. 물론 달리기나 내 특기를 살린 대회 빼고 공부로 그냥 전교 1등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높아진 코를 밟아 주고 싶고, 정말 기뻐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나 서울대, 예일대 뭐 이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전교 1등 정도는 밥 먹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교 1등을 하게 되면 독서 논술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꿈을 써보면서 ‘전교 1등, 이까짓 거 못 할 것 뭐 있어!’ 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기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써 볼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전교 1등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반드시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팍팍 들었다.

# 나의 꿈

전 세 은 | 이천남초등학교 5학년

난 크면 의사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동물을 좋아하고 아픈 곳을 알면 치료하는 법도 조금은 알기 때문이다. 나는 길거리를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 개들을 볼 때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데도 나는 ‘혹시 살아 있지는 않을까? 만약 살아 있다면 집으로 데려가서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들여다보곤 한다. 나는 동물이 너무 좋아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을 볼 때는 직접 구해 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아홉 살 때였다.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다. 그때 고양이를 만났다. 나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보면 잘 쫓아가 본다. 그래서 그 고양어도 쫓아가 보았더니 새끼를 밴 고양이처럼 배가 불룩하였다. 그 고양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든 듯 찾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달려왔다. 나는 잠깐 그 차의 운전수인 아저씨를 쳐다보고는 그 길을 건넜다.

고양이는 그때서야 자신이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짹짹 뛰어갔다. 내가 아니었으면 새끼를 밴 고양이는 그대로 죽었을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살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또 5학년 때의 일도 있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새가 들어 왔다. 그런데 나가는 길을 잃고 계속 벽에 머리를 박아 대며 힘들어 보였다. 그러다가 책꽂이와 창문 사이에 들어갔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그 곳으로 몰려 들었다. 아이들이 배드민턴 채로 그 새를 쳤다. 나는 새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새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날려 보내 주었다.

이렇듯 나는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예 수의사가 되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한 직업일 것 같다.

# UN사무총장

박민성 | 증포초등학교 5학년

나는 UN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 그 이유는 사무총장이 되어 뉴스에 나오는 내 모습을 부모님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께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다. 부모님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뉴스에 자주 얼굴이 나온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나를 훌륭하게 키워 주신 부모님께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싶다.

또한 나는 UN 사무총장이 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제2의 반기문이 되어 UN 사무총장이 꼭 되고 싶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외국에서 UN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 내가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을 본받아 꿈을 꾸었듯이, 다른 아이들도 나를 본 받아 제3의 반기문, 제 2의 박민성이 되기를 꿈꾸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나는 내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꼭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세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내 장래 희망

양혜지 | 이천초등학교 5학년



나의 꿈은 도자기 엄청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비누방울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다. 그런 다음에 늙어서는 나무토막을 깎아서 조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자기 공예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기 때문이다. 나는 흙을 만질 때 매우 부드럽고, 좋고, 그때마다 전해오는 행복감이 너무 좋다. 아직 전기 물레는 써보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직접 돌려 만드는 물레는 써 봤다. 도자기를 만들어 볼 때 기분은 너무 좋다. 그리고 소질도 꽤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도자기를 보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둘째! 비누방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이유는 비누방울을 딱 불었을 때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나는 비누방울을 불 때 예쁘고 크게 잘 분다. 이런 방면에 소질을 보이는 것 같다. TV에서 하는 걸 보았을 때 너무 멋있었다. 나도 그런 멋진 비누방울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장래희망을 확실하게 한 가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대박 아니면 쪽박이기 때문이다. 현재

로서는 도공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 있는 상태다. 열심히 노력해서 쪽박이 아닌 대박을 터트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늙었을 때 나무를 깎는 조각가가 되고 싶은 이유도 매우 보람있는 일일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한 번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나는 나무를 깎는 느낌이 너무 좋다. 내가 도공이나 비누방울 아티스트로 성공을 한다면 나중에 취미생활로 할 예정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도공이 되는 것에 마음이 더 가서 그쪽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있다. 그래서 도예고 진학을 생각해보고 있다. 나의 꿈을 이룰 때 까지 언제나 파이팅!!!

# 논술 선생님께

서 다 연 | 신둔초등학교 5학년



안녕하세요. 이천어린이도서관에서 선생님께 논술 수업을 받고 있는 다연이에요. 처음 선생님을 뵈고 첫 수업시간 때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았어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라고 하셨는데, 문제를 푸는 중에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 주셨거든요. 저는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들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듣느라 문제는 모두 풀지 못했었죠. 안 그래도 생각을 깊게 해서 글 쓰는 게 느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느라 글을 미처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싫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다짐한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서 꼬마가 형을 살리기 위해 기적을 산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동안 저는 제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창피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내 꿈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

러면 내 꿈을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맥이 넓으면 좋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인맥을 넓혀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외에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많아요. 그동안 좋은 이야기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 우리집 물고기의 생활

김 성 이 | 이천남초등학교 5학년



나는 학교에서 낸 숙제로 무엇을 관찰할까 생각하다가 물고기가 생각나서 물고기를 관찰하게 되었다. 며칠 간은 숙제로 그냥 대충 관찰하다 어느 날 신기한 게 관찰되어서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다. 내 동생이 먹이를 주러 와서 나는 물고기가 먹이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초 사이로 요리조리 헤엄치다 순식간에 먹이를 먹는 모습이 귀여웠다. 먹이를 주기 전까지만 해도 느릿느릿 헤엄치던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순간 빨라졌다. 그 때의 모습이 꼭 지금 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저번에 색종이로 뭉 만들어서 숙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만든 것이랑 먹이랑 헷갈렸는지 내 동생이 “어, 여기 물고기 맘마 떨어쩌떠” 이러면서 그것을 물고기에게 주었는데 말릴 틈도 없이 물고기가 그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친구 연수네랑 같이 받아온 물고기보다 작은 것 같다.

앞으로 먹이도 꾸준히 줘서 물고기를 잘 키워 연수네 물고기보다 크게 만들어야지! 동생이 아무 거나 먹이로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곰 세 마리에 맞추어

안 치 훈 | 중포초등학교 5학년

노래를 글로 써야지! 제목 곰 세 마리. 어느 한 마을에 곰 세 마리가 살고 있었다.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이렇게 가족이다. 아빠곰은 강호동처럼 토실토실 하며 아주 곰처럼 성깔이 우악스럽다. 엄마는 이효리 뺨치는 S라인이며 곰 나라에서는 국민요정이다. 애기곰은 헤르메스보다 거짓말이 빠르고 왕석현보다 지능이 뛰어났다. 또 천재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족은 도시로 소풍을 갔다. 거기에서 곰가족은 먼저 생선가게에 들렀다.

“아저씨, 고등어 50손 주세요. 요기 100만 원 수표요. 나머지는 팁이에요.”

곰가족이 합창하듯 말했다. 생선가게 주인은 이게 웬 떡이나 하고 돈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곰가족은 정육점에서 삼겹살 50Kg, 갈비20Kg, 안심, 목심, 꽃등심 등을 20Kg을 사고 전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8시간 후인 저녁, 곰가족은 저녁밥을 먹기 위해 금으로 만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식탁에 ‘뽕!’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며 식탁에 음식이 갑자기 생겼다. 곰들은 맛있게 저녁밥을 먹었다.

그러나 사람 말을 해도 꿈은 꿈인가 보다. 뭘 먹는 게 눈 세 번 깜빡이는 순간에 다 먹은 거 아닌가? 정말로 꿈은 꿈인가 보다.

아, 참! 장사꾼이 번 돈을 세어보려니 100만 원이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해충인 바퀴벌레로 변했다. 아마도 그 꿈들은 마술사였나 보다.

뒷이야기는 읽는 분들이 알아서 쓰시길…… .

# 명성황후님께

김 세 빈 | 증포초등학교 4학년

명성황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 사는 김세빈이에요.

처참한 살해가 안타까워요. 국모가 되셨는데……. 훌륭한 정치가 좋았는데…….

저는 명성황후님의 용기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하늘에서도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는 IT강국 1위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통일은 빨리 되겠죠?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꼭! 다시는 일본에게 침략을 안 당하고 왜곡도 안 당하게 역사를 강하게 만들 거예요. 명성황후님 전 꿈이 가수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어 명성황후님을 세상에 널리 알릴 거예요. 저도 응원해 주세요 ^.^ 하늘에서 우릴 지켜주시고 못 이룬 것 이루세요. 사랑해요

2009년 7월 31일 금요일

# 신사임당 할머니님께

이 지 우 | 증포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이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신사임당을 좋아해서 맨날 5만 원짜리 지폐를 쳐다봐요. 신사임당 할머니는 그림도 잘 그리고, 요리도 잘 해서 항상 부러웠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전 신사임당할머니의 역사를 잘 배우고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멋진 그림 그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2009년 7월 31일

신사임당을 좋아하는 지우가

#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윤 주 희 | 안흥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위인분들.

저는 이천 안흥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윤주희라고 합니다. 만약 위인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지 않고 계속 일본의 지배를 당했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경제 대국, IT(디지털) 1위, 조선산업 1위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드려요. 저희도 위인분들의 혈통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미국처럼 강대국으로 만들게요.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윤주희 올림

# 장영실 할아버지께

박 상 연 | 이천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전 박상연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참 많은 물건을 만드셨죠. 물시계, 해시계, 자격루, 금속활자 등.

저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레고, 건담 만드느라고 돈을 거의 5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종대왕님의 부탁으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행차 나가실 때 가마가 부러져서 세종대왕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장영실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대신이 이 기회 때문에 장영실 할아버지를 곤장 80대를 때리고 귀양 가게 되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신들이 너무 나쁜데 아무 말 안 하신 장영실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박상연 올림

# 유관순 언니께

최 가 연 | 이천초등학교 4학년

독립운동을 하신 유관순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관순 언니를 존경하는 가연이에요.  
 일본인들이 온갖 고문을 했죠?  
 그래서 전 일본인들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  
 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 곳에 있었다면 일본인들의 우두머리를 잘라 버릴 거  
 예요. 일본인은 우두머리만 없애면 달아나잖아요.  
 독립운동은 못해도 유관순 언니를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9년 7월 31일

유관순 언니를 존경하는 가연 올림

# 이순신 장군님께

최혜연 | 이천초등학교 3학년



제가 존경하는 멋진 이순신 장군님이 제 머리 위에서 제일 빛나는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낡은 12척 배와 부상 당한 병사도 많음에 불구하고 승리하셔서 자랑스럽고 게다가 멋진 거북선도 만드시기 입이 짝 벌어지네요.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꼭 우리나라를 빛내는 큰 인물로 남기게 도와주세요. 저의 천사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혜연 올림

과학독서감상문

# “꿈틀이 사우루스”를 읽고

박혜윤 | 이천초등학교 4학년

이 책을 보면 지렁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책의 지은이는 ‘캐런 트레포드’다. 특히 지렁이를 징그럽게 생각한 사람은 꼭 읽어야 할 것이다. ‘현암사’라는 곳에서 이 책을 출판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엄청 많다. 지렁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고 흙에 도움이 되는지도 몰랐다. 이 책을 읽고 지렁이 몸속에 박테리아가 있고 지렁이는 박테리아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렁이가 공룡시대에도 살았다는 게 신기하다. 공룡시대 때 지렁이는 행복했지만 인간이 착한 지렁이들을 싫어했다.

인간들은 지렁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다. 공장들의 오염된 물과 공기가 세상을 망치고, 지렁이는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50년 동안 인간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지렁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지렁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은 점점 회복되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지렁이가 소중하고 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독서감상문

# “꿈틀이 사우루스”를 읽고

김 은 비 | 이천초등학교 4학년



이 책을 읽고 지렁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은이는 ‘캐런 트레포트’이다. 출판사는 현암사이다.

이 책에는 공룡시대의 지렁이, 그리스로마 시대의 지렁이, 산업시대의 지렁이가 등장한다. 그리고 난 지렁이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도 몰랐고, 지렁이가 깨끗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나는 지렁이는 몸속에 박테리아가 있어서 병에 안 걸린다는 것을 알았고 지렁이가 공룡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 또 지렁이는 착한데 인간들은 지렁이를 징그러워하고 싫어한다. 나도 그랬지만……. 그 많던 지렁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참 신기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유를 다 알았다.

최근 50년 동안 인간이 조금 변해져가고 있다. 비로소 자신들이 흙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 땅을 회복시키고 농약을 자제하여 지금까지 지렁이가 살아갈 수 있었다. 지렁이가 우리 사람을 살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지렁이는 대단한 지구지킴이라고 생각한다.

과학독서감상문

# “꿈틀이 사우루스”를 읽고

최가연 | 이천초등학교 4학년

이 책의 작가는 ‘캐런 트랜포트’ 이고 출판사는 현암사이다. 또 이 책은 우수환경도서와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되었다. 지렁이의 소중한과 지렁이의 고마움을 잘 가르쳐 주는 책이다.

주인공은 꿈틀이 사우루스 2세이다. 꿈틀이 사우루스 2세와 지렁이를 알아보니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 지렁이의 응가는 분변토이고 피부로 숨을 쉬고 양파나 마늘류(마늘, 파, 부추 등), 새콤한 과일, 고기는 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호주에는 6m짜리 깁스랜드 지렁이가 산다는 것 등을 꿈틀이 사우루스 2세 덕분에 깨닫게 되었다.

지렁이는 우리에게 이롭고 또 중요한 동물이다. 왜냐하면 땅을 기름지게 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렁이가 우리나라에 없고 사람들이 농약만 뿌린다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지 않고 땅도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지? 지렁이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동물이다.

과학독서감상문

# “꿈틀이 사우루스”를 읽고

김수현 | 인천남초등학교 3학년

오늘 책날개 수업에서 ‘지구를 구한 꿈틀이 사우루스’를 읽었습니다. 출판사는 ‘현암사’이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캐런 트레포트’입니다. 이 책은 지렁이 꿈틀이 사우루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공룡시대, 그리스로마시대, 산업시대에 살았던 지렁이들의 생활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 산업시대의 지렁이들은 큰 고비를 넘겨요.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자 지렁이들은 괴로워해요. 그렇지만 유기농법 농업의 발달로 지렁이들은 큰 고비를 넘겨요. 지구를 구한 꿈틀이 사우루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지렁이는 ‘자웅동체’라는 것. 지렁이의 종류가 4000가지가 넘는다는 것, 지렁이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수천 마리가 산다는 것, 지렁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자연의 쓰레기들을 먹는다는 것, 지렁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지렁이에게는 폐가 없다는 것, 지렁이에게는 심장이 무려 5개가 있다는 것, 지렁이는 피부가 코나 마찬가지로라는 것, 지렁이가 공룡의 응가를 좋아하고 먹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지렁이는 6m가 넘는다는 것, 지렁이는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주어도 다 먹어서 치운다는 것 등등. 이 책을 통해 저는 지렁이가 징그럽다는 편견을 버렸답니다.

‘잔소리 없는 날’을 읽고

# 나에게도 잔소리 없는 날이 생긴다면...

최혜연 | 이천초등학교 3학년

아침 7시 넘을 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닌텐도를 한 시간 한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10시에 만화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본다. 11시에 낮잠을 잔다. 12시에는 방에서 뒹군다. 1시에는 파티를 열 것이다. 내 친구를 초대할 때 내 남친도 함께! 그리고 밤에 도시락을 먹고 텐트 치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 내 소원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회를 주실까? 만약 기회를 달라고 떼를 쓰면 갑자기 주먹이 휘웅~ 하고 날아와서 내 허리만 아플 것 같다. 휴~ 그 날이 오길 바란다. 하늘이 내 뜻을 들어주실까?

'잔소리 없는 날'을 읽고

# 토론을 마치고

박수빈 | 신하초등학교 4학년



잔소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지나친 잔소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적당한 잔소리는 사랑의 매나 장난감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또 입에 쓴 약처럼 듣기에는 싫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며, 나를 보호해 준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해 준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비록 지금은 듣기 싫고, 짜증나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꿈꾸던 멋진 삶을 살게 해 주는 지름길이다.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잔소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잔소리 없는 날'을 읽고

# 토론을 마치고

이 종 현 | 이천남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의 잔소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젠 다 컸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으며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잔소리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심하면 탈모, 성격이 어두워지는 등 잔소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말고 우선 차근차근 대화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까만나라 노란추장'을 읽고

# 박사님께

박 상 연 | 이천초등학교 4학년

박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박사님은 자신만 좋게 살려고 하지 않고 험한 길을 선택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박사님도 굶어 죽을 수 있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 일 중 '카사바'를 크게 만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사바를 값아 먹은 면충이라는 벌레도 박사님이 집에서 키우고 그 벌레를 연구하여 천적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박상연 올림



'까만나라 노란추장'을 읽고

# 박사님께

이 다 영 | 설봉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영이라고 해요. 저는 '까만나라 노란추장'이라는 책을 읽고 편지를 써요. 한상기 할아버지, 저 같으면 아프리카에 안 가고 혼자 편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어요. 저만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 나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잘 먹게 '카사바'도 연구해서 원주민들에게 주고, 해충 때문에 고생했던 원주민들에게 농사가 잘 되도록 기생충을 밭에다가 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카사바'를 수확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저는 그 '카사바'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성들여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영 올림

'까만나라 노란추장' 을 읽고

# 박사님께

강 랑 아 | 신하초등학교 4학년

한상기 박사님께

한상기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강랑아라고 합니다. 오늘 '까만나라 노란추장' 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한상기 박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오늘 처음 한상기 박사님을 알았지만요, 박사님은 좋은 차와 좋은 나라에서 편히 살지 않으시고 벌레도 많은 그런 나라에 사신다고 하실 땐 정말 놀랐어요. 저 같았으면 편안하고 돈도 많은 그런 나라에서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카사바' 라는 작은 열매를 5배 정도 크게 만드셨다면서는요? 정말 한상기 박사님을 어떻게든지 존경 해야지만 안 죽고 잘 살 것 같아요.

한상기 박사님, 오래 사시고 행복하세요.

2009년 9월 23일

랑아 올림

‘백제를 왜 잃어버린 왕국이라 하나요?’ 를 읽고 화재 소개하기

## 미륵사지 9층석탑

조 정 이 | 신하초등학교 4학년

백제 최대의 절이었던 익산 미륵사 터에 있는 탑으로, 무너진 뒤쪽은 시멘트로 보강하여 아쉽게도 반쪽 탑의 태만 남아있다. 현재는 6층까지만 남아 있으며, 정확한 층 수는 알 수 없다. 기단은 목탑과 같이 낮은 1단을 이루었다. 탑신은 1층 몸돌에 각면마다 3칸씩 나누고 가운데 칸에 문을 들여서 사방으로 내부가 통하게 만들었으며 내부 중앙에는 거대한 사각형 기둥을 세웠다. 1층 몸돌의 네에도 목조건축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재료 및 평방과 창방을 본떠 설치하였다. 지붕돌은 얇고 넓으며 네 귀퉁이에 이르러서 살짝 치켜 올려져있다. 2층부터는 탑신이 얇아지고 각 부분의 표현이 간략화 되며 봉돌도 1층 보다 너비가 줄어들 뿐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백제인의 소박하고 훌륭한 솜씨가 돋보인다.

‘무인도에서 온 e-메일’을 읽고

## 무인도에 침입한 야단법석 관광단

최 보 나 | 이천남초등학교 3학년

그로부터 며칠 후, 야단법석 관광단이 침입했다. 무인도에 아지트를 만들어 채소밭의 채소를 빼앗아 가고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를 베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다. 잭, 아론, 알렉스는 비상 대피 동굴로 피했지만 야단법석 관광단은 균함새 절벽으로 뛰어들어 풍덩~. 그리고 야단법석 관광단이 없어진 걸 보자 아지트를 비밀장소로 만들고 조개껍질로 꽃밭을 만들고 채소밭을 넓혀 과일도 키운다. 그래서 균함새가 많이 나타나고 갈릴래오는 친구들이 생겨 좋아한다. 야단법석 관광단이 없어져 잭, 아론, 알렉스는 채소, 과일을 따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자 균함새 친구들과 갈릴래오, 셸키, 쉬키, 프래드는 신이나서 뛰어가다 석식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다함께 웃었다. 잭, 아론, 알렉스는 행복하게 살았다.

‘무인도에서 온 e-메일’을 읽고

## 무인도에 침입한 야단법석 관공단

임 새 하 | 신하초등학교 4학년

알렉스가 섬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비가 호우로 바뀌어 쏟아졌다. 알렉스, 아론, 잭은 당황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요한 물건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비상대피 동굴로 피신했다. 몇 시간 후 비가 멈추었다. 그래서 알렉스, 아론, 잭, 동물들은 동굴에서 나왔다. 나와 보니 섬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섬을 떠나야 했다. 동물들과도 작별인사를 했다. 하지만 프레드는 몸집이 작아서 데려갈 수 있었다. 알렉스, 아론, 잭은 힘을 합쳐서 코코넛 배를 만들었다. 섬을 떠나는데 파도가 우리 보고 가지 말라는 듯이 심하게 출렁거렸다. 몇 주일이 지났을까. 어떤 한 도시에 배가 정착했다. 도시에 처음 와 본 아론은 굉장히 신기해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몹시 힘들었다. 힘들게 살던 어느 날 알렉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아!”하며 손뼉을 쳤다. 알렉스는 잭과 아론에게 호기 우리가 섬에서 있었던 일을 한 번 책으로 써서 돈을 벌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잭과 아론은 그저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하늘이 도왔는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섬으로 떠났다. 섬에 와보니 동물들이 잭

일행을 보고 잽사게 달려왔다. 아론은 섬과 동물들을 보더니 눈을 찡끔거렸다. 지진, 폭풍우 사건 이후로 아론, 알렉스, 잭은 역시 도시 생활은 힘들다면서(동물들도 보고 싶었다)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섬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아론, 잭, 알렉스는 싸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무인도에서 온 e-메일’을 읽고

## 무인도에 침입한 야단법석 관광단

최 서 영 | 신하초등학교 4학년

평화로운 섬에 갑자기 야단법석 관광단이 쳐들어왔다. 아론은 그것을 발견하고 아빠와 알렉스에게 알렸다. 그리고 모두가 고민하던 중 땅이 흔들렸다. 그러면서 순간 팡!! 화산이 폭발했다. 거기에 있었던 야단법석 관광단은 깜짝 놀라 배를 두고 도망을 갔다. 다행히도 화산 폭발은 멈추었다. 며칠 후 아론과 잭, 알렉스는 야단법석 관광단의 배에 가서 쓸만한 것을 가지고 왔다.

조금 많아서 집도 새로 고쳤다. 이튿날... 갑자기 알렉스가 바다로 잠시 헤엄쳐 나갔다. 그런데 알렉스는 고래에게 잡혔다! 아론은 그것을 보고 아빠에게 알렸다. 아론과 잭은 침착하게 며칠을 고민하며 지냈는데 저 멀리서 알렉스가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론 엄마! 아론은 뛰쳐나가 엄마를 껴안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두가 안정을 찾고 알렉스, 잭, 아론, 아론엄마는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 물론 야단법석 관광단은 오지 않았다~

‘무인도에서 온 e-메일’을 읽고

# e-메일 보내기

전 윤 진 | 이천남초등학교 3학년



시장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무인도의 제1 주민 전윤진이라고 해요. 제가 편지를 쓴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야단법석 관광단’이라고 시끄러운 관광단이 있잖아요. 그 관광단이 우리 섬을 오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섬의 위치는 우리나라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오실 때 좀 사다주셔야 할 물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급상자, 코트(두꺼운 옷), 부채(선풍기면 더욱 좋음), 종이 묶음, 연필깎이, 연필 100자루만 보내주세요. 그럼 되요. 이왕이면 책도 보내주세요. 애완동물도요. 이런 너무 많은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물건만 가져와주세요. 참! 오실 때 살금살금 오세요. 들키면 난리 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무인도에서 전윤진이

생활글쓰기

## 추석

김서현 | 안흥초등학교 1학년

우리 가족은 추석이어서 서울에 계시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다. 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반겨주셨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사촌동생 민지였다. 사촌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다. 나는 송편을 만들었다. 나는 엄마와 할머니가 하는 게 너무 예뻐서 따라 했더니 잘 안 되었다. 음식은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좋아라 하며 TV를 보며 놀았다. 차를 지내고 나서 엄마께서는 허리와 다리가 쭈신다며 나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

소개글 쓰기

# e-메일 보내기

안은희 | 증포초등학교 2학년



내 짝꿍 이름은 이재현이다. 생김새는 키가 적당하고 몸도 적당하다. 나처럼 안경을 썼고 색은 검정색이다. 못생기고 바보처럼 웃고 머리는 살짝 곱슬이다. 얼굴에서 기억나는 것은 치아다. 왜 그러냐면 바보처럼 웃어서이다. 화가 날 때 표정은 장난처럼 입을 삐죽 내밀고 눈은 찌러본다. 기분이 좋을 때는 바보처럼 헤벌레 웃고 장난도 치고 스마일을 한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맞아, 맞아' 다. 내 짝꿍이 친구들과 다른 점은 잘난 체를 하고 곱섬을 못한다는 것이다. 짝꿍이 마음에 드는 점은 순하고 착한 점이다. 짝꿍의 고칠 점은 바보 웃음이다.



내 짝꿍 이름은 문형진이다. 형진은 키가 작고 얼굴에는 보조개가 있고 얼굴이 까맣다. 그리고 앞머리가 너무 작고 많이 웃고 얼굴이 조그마하다. 형진이 가장 잘 하는 것은 청소다. 자기자리를 모두 청소하면 다른 곳까지 청소해준다. 그리고 욕을 안 하고 화도 잘 안낸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준비물을 잘 안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준비물 빌려 주는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많이 부른다.

뒷이야기 꾸미기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 성 재 | 한내초등학교 2학년



할아버지는 비밀을 혼자 알고 있으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하는 종이에게 “내가 써준 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종이는 말을 안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비밀을 썼다. 할아버지는 종이에게 말을 할지 몰라 사람들이 없는 밤에 멀리 가서 불을 피워 종이를 태웠다. 그런데 종이에게는 연기를 타고 말을 할 수 능력이 있었다. 연기는 마을로 얼른 가 집집마다 사람들을 깨워 마을 한 가운데로 모이라고 했다. 종이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한 사람씩 알려주었다. 그런데 연기가 실수로 임금님도 그 자리에 오도록 불렀다. 그러자 임금님은 화를 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 그 할아버지를 잡아 와.” 그러자 병사들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걸 보고 할아버지를 잡으러 나가는 척을 했다. 병사들은 궁에서 나와 멀리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다. 병사들은 할아버지를 찾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임금님이 화를 냈다. “왜 못 잡았어?” 병사들은 할아버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때 다른 병사들은 궁에 있는 귀족들에게 알려주었다. 귀족들은 진짜인지 보려고 이발사로 변했다. 그래서 보긴 보았지만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임금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귀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라고 외쳤다.

뒷이야기 쓰기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주혜일 | 이천초등학교 1학년

그래도 할아버지는 비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냈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의 성 밖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임금님의 성 밖은 금세 마을 사람들로 꽉 찼어요. 모두 임금님의 당나귀 귀를 보고 깔깔깔깔 호호호호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것을 보고 임금님은 화를 냈어요. “무엄하다. 나의 귀를 보고 웃은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이 풀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임금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감옥에 마법사가 들어와 감옥에서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도끼로 땅을 파서 굴이 나오거든 그 굴로 나가면 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방법을 써서 성을 빠져 나갔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을 살피러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는 사람들이 온데간데없고 도끼만 있었어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임금님은 이상하다 싶어 그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그 동굴은 아주 깜깜했어요. 임금님이 그 동굴을 따라가자 성 밖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생각했어요. ‘옳거니! 백성들이 이 구멍을 통해 빠져 나갔구나!’ 그래서 병사들에게 백성들을 잡으라고 했어요. 병사들이 백성들을 잡으러 마을로 내려갔더니 백성들은 이미 이웃나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혼자 외롭게 살았답니다.

독서퀴즈 만들기

#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박수성 | 신하초등학교 1학년



1. 위층 가족은 어디로 이사를 갔나요?

.....  
답 : 삼층 집

2. 애들은 좁은 집에서 어디를 가고 싶어 했나요?

.....  
답 : 이사 갈 집

3. 윗집이 쿵쾅거리자 할머니는 어떻게 했나요?

.....  
답 : 쫓아왔다.

4. 쫓아오자 아이들의 부모는 기분이 어땠나요?

.....  
답 : 속상했다.

5. 아이들은 어떤 방법을 썼나요?

.....  
답 : 생쥐처럼 행동을 했다.

6. 할머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다 어떤 병이 생겼나요?

.....  
답 : 못 듣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귀가 커지는 병

즐거이 쓰기

# 먹보장군

이 재 진 | 설봉초등학교 1학년

옛날 옛날에 먹보장군이 살았어요. 먹보장군은 밥을 많이 먹어서 먹보장군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루는 먹보장군이 국수집에 갔어요. 국수를 서른 그릇 먹고 열 그릇을 더 먹었어요. 먹보장군은 호랑이를 잡으러 갔어요. 사냥꾼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먹보장군은 자기가 싼 똥을 호랑이에게 던졌어요. 호랑이는 먹보장군의 똥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궁궐로 갔어요. 왕은 호랑이를 잡은 먹보장군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요.

소개글 쓰기

# 내 짝꿍

박 시 연 | 증포초등학교 2학년

내 짝꿍 이름은 김정호다. 키는 작고 뚱뚱한데 안경을 썼고 꼭 돼지 같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욕을 한다. 그래서 욕 좀 안했으면 좋겠다. 기분이 또 좋을 때는 ‘앗싸’를 외친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욕이다. 정호야, 욕 좀 안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호 한 쪽 눈에는 멍이 들었다. 그래서 애들이 “정호는 얼굴이 이상하대요.”하고 놀려서 정호는 운다. 그래도 정호는 나를 잘 도와준다. 청소도 도와주고 양보도 해 주고 어려운 수학문제를 알려준다. 나는 그래서 정호가 좋은데 욕만 안했으면 좋겠고 나도 정호를 도와주어야겠다.

# 아침독서 지도교사

# 10분 운동 수기

서성민 -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길

최원실 - 책 속에 있는 길 이상의 것

이세규 -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아침독서"

박선미 - 책으로 크는 아이들

손희정 -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10분'

정은영 - 우리 함께 다른 세상으로 떠나 볼래?



## 꿈을 이루는 리미트가 되길...

서 성 민 | 대월초등학교 교사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곤 한다. 2학기가 시작되어 방학 동안 못 보던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또 다시 기대 반 걱정 반이 된다. 개학 첫 날, 아이들은 방학 때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학교에 오는 것이 적응이 안 되는 듯 보인다. 그래도, 아이들의 눈망울은 여전히 생동감 있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애들아! 방학 때 책은 많이 읽었니?”

“네, 선생님! 책 읽기가 재미있어요!”

우리 반 형진이가 재치 있게 대답한다. 선생님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듯한 말투로 느껴지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꽤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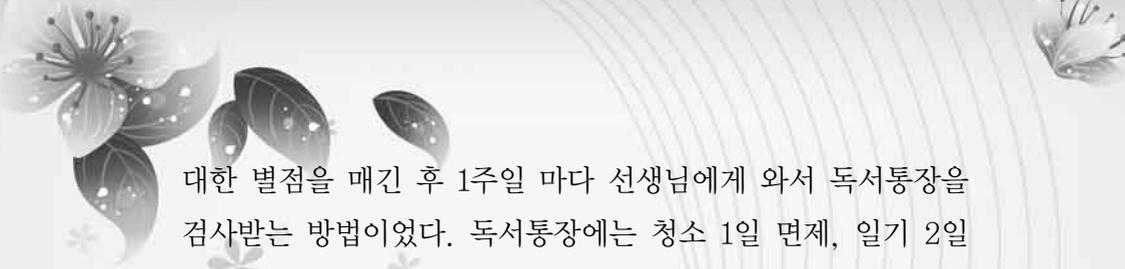
나는 줄곧 대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초에 이천시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되었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이천시에서도 면지역에 있는 곳이어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이곳의 아이들은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갖가지 학원을 다니며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다소 힘들어하던 대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이곳의 아이들은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다. 마치 나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 수업 시간



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매번 새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학력 면에서는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올해 이천 시립도서관에서 학급 문고를 대출해 준다는 기사를 보고 4월 초에 총 50권을 빌렸다. 독서를 많이 하는 아동들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학급에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학급 구성원들끼리 같은 책을 읽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과연 아이들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책을 학급에 비치했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호기심으로 책을 보는 아이도 있고, 책에 있는 그림만 보는 아이도 더러 있었다. 역시나 평소에 독서량이 부족한 아동들은 책 읽기에 습관을 붙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똑같은 책을 같이 나누어 보며 친구들끼리 권해 주고 돌려 읽고 하다 보니, 점차 쉬는 시간 틈틈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느덧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책 읽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아이들도 차츰차츰 책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놀이의 하나로 여기듯 독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단순히 책 읽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은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통장을 만들었다. 독서통장에는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 지은이, 날짜 등을 적고 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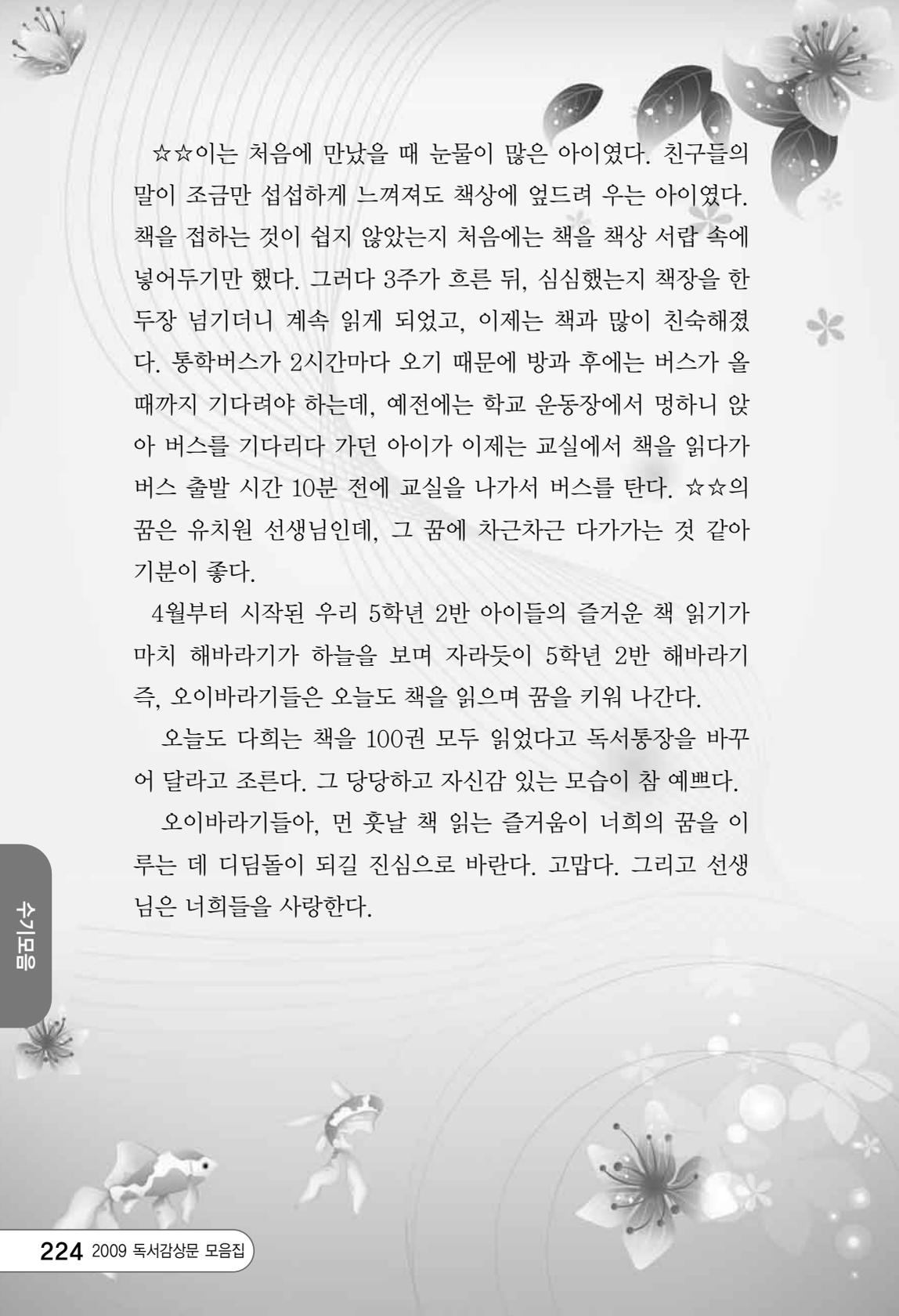


대한 별점을 매긴 후 1주일 마다 선생님에게 와서 독서통장을  
검사받는 방법이었다. 독서통장에는 청소 1일 면제, 일기 2일  
면제, 맛있는 과자 주기 등의 ‘이자 붙는 날(운수 좋은 날)’이  
있어서 일정량의 책을 읽으면 재미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게 했  
다. 흥미가 있었는지 책을 읽는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책 읽기  
속도 경쟁이 붙었다. 너도 나도 열심히 읽고 책 읽는 권수를 쌓  
아 갔다.



국어 시간만 되면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이라는 아동이  
있었다. 교사가 질문을 하면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아  
서 걱정이 많이 되는 아이였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독서 경  
험이 많지 않아 언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책을 꾸준하게 읽으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에게 맞는 책을 권했다. 며칠 동안  
○○는 책의 첫 장을 넘기는 것이 병아리가 껍질을 나오는 것처  
럼 힘겹게 보였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10쪽이 넘도록 책을  
읽는 것이었다. ○○는 조금씩 책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책은 탐정소설이었다. ○○가 책장을 한 장씩 느낄  
때마다 나의 마음도 기쁨으로 층층이 쌓여만 갔다. 드디어는 1  
학기 초에 국어점수가 상당히 낮았던 ○○가 학기말 국어 시험  
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었다. 형언할 수 없이 기뻐다. 아이  
들은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좋은 습관을 품으면  
무한한 잠재능력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  
게 되었다.





☆☆이는 처음에 만났을 때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 친구들의 말이 조금만 섭섭하게 느껴져도 책상에 엎드려 우는 아이였다. 책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책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기만 했다. 그러다 3주가 흐른 뒤, 심심했는지 책장을 한 두장 넘기더니 계속 읽게 되었고, 이제는 책과 많이 친숙해졌다. 통학버스가 2시간마다 오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멍하니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 가던 아이가 이제는 교실에서 책을 읽다가 버스 출발 시간 10분 전에 교실을 나가서 버스를 탄다. ☆☆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꿈에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4월부터 시작된 우리 5학년 2반 아이들의 즐거운 책 읽기가 마치 해바라기가 하늘을 보며 자라듯이 5학년 2반 해바라기 즉, 오이바라기들은 오늘도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 나간다.

오늘도 다희는 책을 100권 모두 읽었다고 독서통장을 바꾸어 달라고 조른다.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예쁘다.

오이바라기들아, 먼 훗날 책 읽는 즐거움이 너희의 꿈을 이루는 데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맙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 책 속에 있는 길 이상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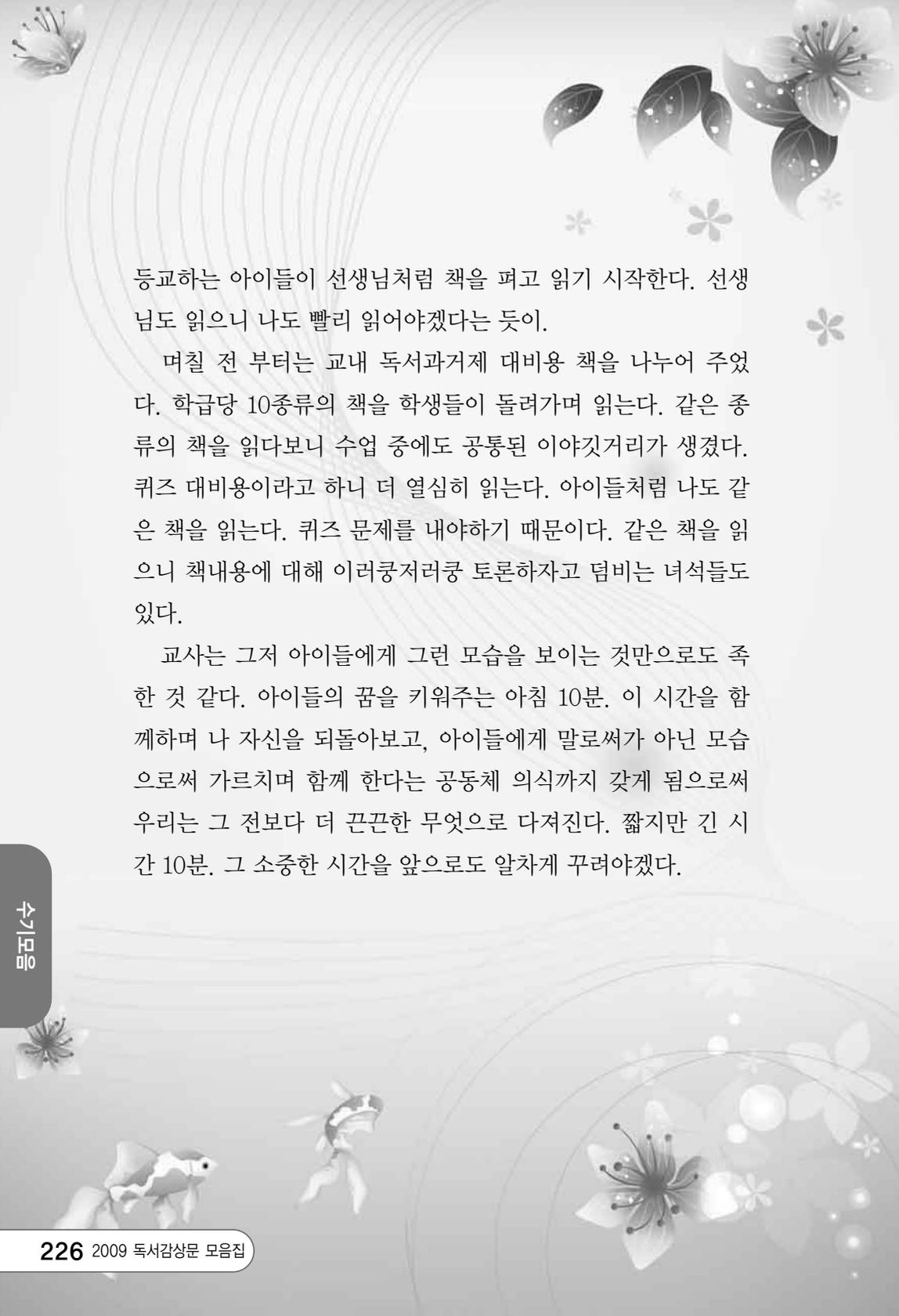
최 원 실 | 마장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늘 말한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수능 잘 보려면 책 빨리 읽고 문맥 파악 잘하는 연습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어야지, 더 크면 읽을 시간도 없다. 아침 혼화 시간에 한 번, 국어 시험 못 보면 한 번씩. 무슨 통과이레처럼 지저귀게 된다.

본교는 농촌지역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의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다. 그와 비례하여 독서수준도 낮은 편이다. 수업 중 거론되는 유명한 동화책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전 3000권은 읽어야 한다는데, 집에 전집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싶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가까이하라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은 얼마나 책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유로 아침시간 아이들만 읽게 하던 책을 나도 함께 읽기로 하였다. 책을 읽기 시작한 첫날, 아이들은 선생님도 책을 읽느냐며 묻는다. 선생님도 더 많이 알아야 하느냐고. 하나 들



등교하는 아이들이 선생님처럼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한다. 선생님도 읽으니 나도 빨리 읽어야겠다는 듯이.

며칠 전 부터는 교내 독서과거제 대비용 책을 나누어 주었다. 학급당 10종류의 책을 학생들이 돌려가며 읽는다. 같은 종류의 책을 읽다보니 수업 중에도 공통된 이야깃거리가 생겼다. 퀴즈 대비용이라고 하니 더 열심히 읽는다. 아이들처럼 나도 같은 책을 읽는다. 퀴즈 문제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같은 책을 읽으니 책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토론하자고 덤비는 녀석들도 있다.

교사는 그저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 같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아침 10분. 이 시간을 함께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말로써가 아닌 모습으로써 가르치며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까지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전보다 더 끈끈한 무엇으로 다져진다. 짧지만 긴 시간 10분. 그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도 알차게 꾸려야겠다.

##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 주는 아침독서”

이 세 규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교사

독서는 간접경험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적 영양분을 공급한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막상 책을 좀 보려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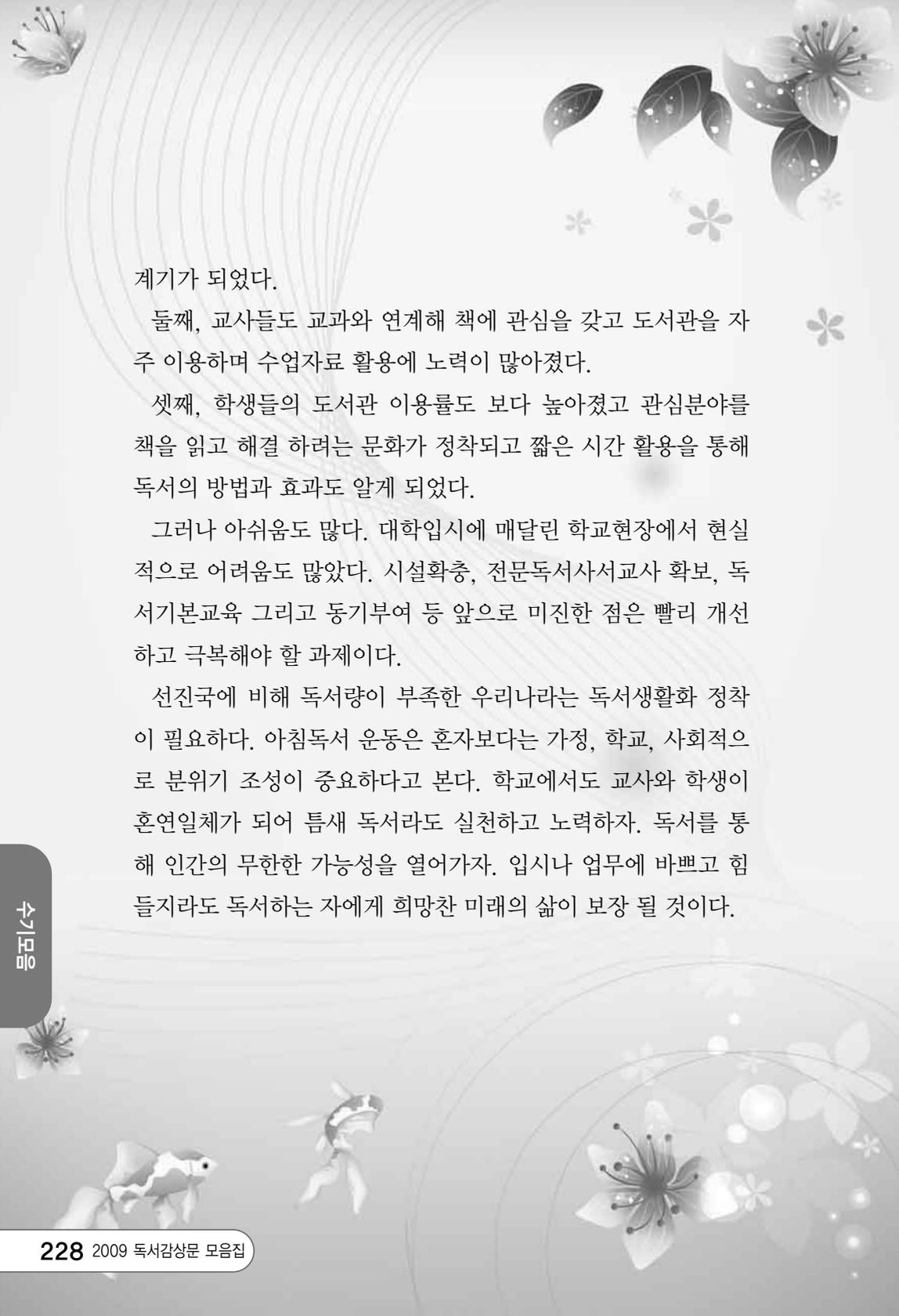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독서냐? 할 정도다.

이런 경우도 독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한가로운 시간은 없음으로 틈새 독서시간을 확보하여 책을 읽는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올해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아침독서10분운동’ 전개는 미래사회에 희망을 주는 아주 바람직한 운동이라 생각한다. 우리 학교도 평소 독서교육생활화를 위해 년차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던 차 이천시 아침독서10분 운동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학기 초 계획을 세워 실행하다 보니 이론과 실체가 상충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었다.

첫째, 거의 무관심 했던 독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사들도 교과와 연계해 책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수업자료 활용에 노력이 많아졌다.

셋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도 보다 높아졌고 관심분야를 책을 읽고 해결 하려는 문화가 정착되고 짧은 시간 활용을 통해 독서의 방법과 효과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다. 대학입시에 매달린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았다. 시설확충, 전문독서사서교사 확보, 독서기본교육 그리고 동기부여 등 앞으로 미진한 점은 빨리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선진국에 비해 독서량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독서생활화 정착이 필요하다. 아침독서 운동은 혼자보다는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틈새 독서라도 실천하고 노력하자. 독서를 통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자. 입시나 업무에 바쁘고 힘들지라도 독서하는 자에게 희망찬 미래의 삶이 보장 될 것이다.

## 책으로 크는 아이들

박 선 미 | 울면중학교 교사

도서관의 환경이 열악해도, 새록새록 자라나는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넉넉한 분량의 책이 없어도 꾸준히 도서관을 사랑해 온 울면중학교 학생들이 아침독서 10분 운동으로 부족 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과정 속에 독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던 때에도 책과 가까웠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법 독서 습관이 영글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모여 책을 읽거나 대출하는 데에 여념이 없는데 가만히 학생들이 선택하는 책들을 보면 예전보다 양서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선택하든 먼저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본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양질의 독서를 하길 바라는 욕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책을 선택하는 안목에 대해 조바심을 내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학생들의 안목은 특별한 지도 없이도 성숙해 있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학생들의 교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기존보다 차분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독서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운영 시간이 짧아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했었기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에 여러 선생님들이 자

극을 받게 되었다. 특히나 가장 효과적인 독서지도는 교사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더불어 아침독서 10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했었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만족감도 컸다.

아침독서 10분 운동에 따라 학교 도서 구입비 지원을 받게 되어 300만원어치의 책을 구입하였는데 새 책이 학교 도서관에 들어오던 날 학생들이 책의 목록에 만족스러워 하며 관심을 갖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다. 규모가 작은 학교이다 보니 도서관자료구입비를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이렇게 많은 양의 책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많은 양의 책을 구입할 수 있어 본교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다.

본교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본교의 학생들에게 책은 넓은 세상을 열어주고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책을 고르는 아이들의 안목도 생각도 마음도 이제는 교육의 주체들이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실천’ 일 것이다. 처음부터 커다란 변화를 욕심내기보다 작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지속적인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평생 학습자로서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10분'

손 희 정 | 이천 장천초등학교 교사

처음 이천시에서 아침독서 10분 운동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면서도 내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천시 내에는 우리학교 외에도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지리적 위치 덕분이었는지 우리학교가 지원대상교로 선정되었고 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도서구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 지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학교는 아침 독서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던 터라,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참여도는 100%였다. 게다가 지원금으로 학생들이 평소 읽고 싶어 하던 책들, 새로운 책들이 도서관에 많이 비치되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책들이 많아지니 기분이 어떠니?'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아이들 대다수가 집에는 책이 많이 없고 보고 싶은 책을 사려면 서점이 멀어서 불편한데 학교에 책이 늘어나 좋다는 반응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에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많이 있고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책보다는 컴퓨터를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생을 살



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거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책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10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책을 접하는 소중한 경험이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몇몇 학교만이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지원 혜택을 누  
릴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더 많  
은 학교,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해본다.

## 우리 함께 다른 세상으로 떠나 볼래?

정은영 | 장호원중학교 교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어떤 선생님이 교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 경치가 아름다워 쓴 시이다. 우리 장호원중학교에서도 창밖을 바라보면 창문틀이 마치 액자가 된 듯,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 때가 많다. 신선들이 마주 앉아 있을 듯한 안개, 계절에 맞추어 변해가는 논밭의 선명한 빛깔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에 떠도는 하얀 구름까지.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이들과 얘기해보려고 하면, 매일 봐서 익숙하다,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 깊이 느낄 나이가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여유와 낭만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자연뿐만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TV와 인터넷, 핸드폰 등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느리고 시간이 필요한 일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즐겁고 재미있고 웃긴 것을 원한다. 그래서인지 읽는 책의 종류도 만화, 무협지, 인터넷소설인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교과서의 글조차 한 페이지 이상 읽는 것을 힘겨워 하는 경우도 있다.

● 현대 사회가 발달할수록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좀 더 쉽고, 편리하고, 빠른 것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역으로 느림

의 미학 또한 각광 받고 있다. 인터넷과 동영상이 쉽고, 편리하고, 빠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책을 통해 한 줄, 한 줄 시간을 두고 읽어나가며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 소중한 순간을 많은 우리 아이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 안타까웠다.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매번 도서관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교환독서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었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해본 아이들, 누군가가 책을 읽어라 말조차 해주지 않은 아이들, 책을 읽고 싶어도 막상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 무슨 책을 읽어야 할 지 모르는 아이들, 책을 읽으려 했으나 마땅한 시간을 찾지 못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환독서의 가장 큰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교환독서를 시작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지나친 독서 후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저 책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 책을 읽는 경험 자체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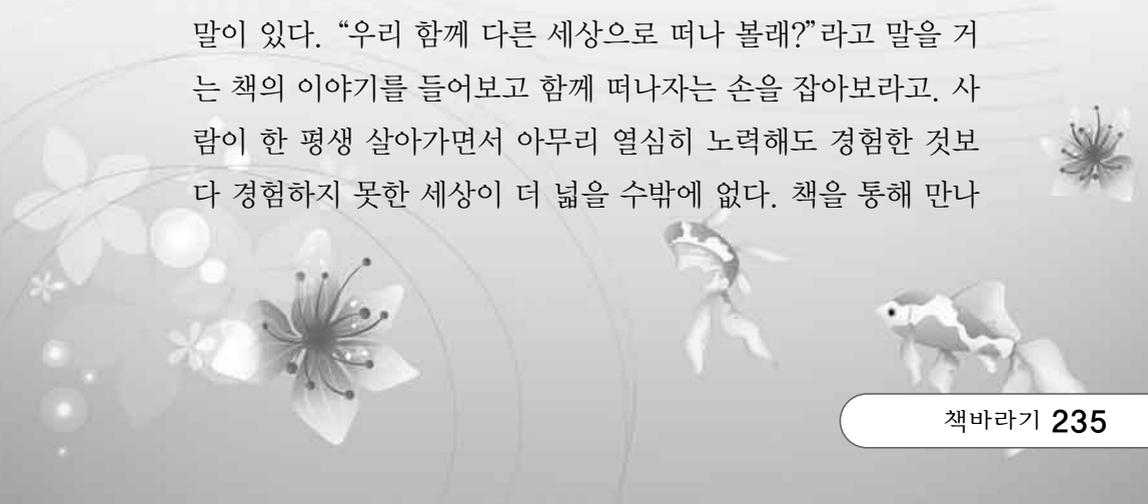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독서 시간을 활용했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 기뻐했고 교환도서 목록에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다만 조금 어려웠던 점은 평소 책을 많이 읽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에 책을 읽는 속도의 차이가 생겨 교환 시기를 정하기가 애매했다. 평균적인 독서시간을 고려하여 학급 내, 학급별 교환 시기를 정해 운영하기는 했으나 다



음반에 진행할 때에는 책을 좀 더 여유 있게 구입하여 읽는 속도가 빠른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권장도서 위주의 양서를 선정하면서도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아이들이 이미 읽은 책인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교환도서 목록 선정 시에는 신간 도서 중에서 좋은 책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듯하다.

교환독서를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일단 독서 시간이 따로 생긴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아이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진행하다보면 모든 아이들이 교환독서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숙제와 수행평가가 먼저인 아이들도 있고 교환도서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은 어렵고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더욱 키워나가면서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함께 다른 세상으로 떠나 볼래?”라고 말을 거는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떠나자는 손을 잡아보라고.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더 넓을 수밖에 없다. 책을 통해 만나





는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미 사라져서 찾아 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물건, 돌아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 유명해서 직접 보기 힘든 사람, 시간과 경비 문제로 가 볼 수 없는 곳, 그리고 현실에선 만날 수 없는 환상의 세계까지. 책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은 정말 넓고 깊고 무궁무진하다. 아이들이 그 세상을 경험할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생각이 깊어진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게 된다. 책 속의 인물이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책 속에 등장하는 직업이 자신의 미래가 되기도 한다. 교실 밖 풍경이 눈과 발이 이루는 황금물결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책속의 넓은 세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교환독서시간이 그 넓은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도서관 자원봉사자 자원강사 수기

샌디 윌리엄스 - 원어민 자원봉사활동 수기

한경희 - 도서관 친구의 행복한 보람

최중숙 - 북스타트의 행복찾기 게임

민현옥 - 책 속에 길이 있다

진명희 - 수요일은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날

한재희 - 상품권이 뭐 길래……

이인환 - 배우는 즐거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황병순 - 멀쩡한 이유정

정혜숙 - 품나는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 사서 추천 목록-일반

· 사서 추천 목록-어린이 · 청소년

## Volunteering as a Native Speaker

Sandy Williams | English Storytelling Volunteer

Two months after I arrived in Korea, my first and very best Korean friend, Jeong YooSoon, asked me if I would like to volunteer to do storytelling at the Icheon Public Library. I said yes! I think YooSoon was surprised that I said yes so quickly, but it sounded like fun, so the fun began.

I have never for one minute, regretted the commitment to do the storytelling, and it has turned out to be the highlight of my entire stay in Korea. When the time comes to go back to the U.S.A., I'll miss storytelling and the friends I've made through the librar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rewards for volunteering are endless. The happy smiles on the children's faces are just the beginning. Sometimes the "regulars" bring me small little gifts; handmade cards, an orange or piece of candy, homemade rice cakes, or a picture they have drawn for me. I love it all! It's also rewarding to hear



the tiny little voices repeating verses to a song that I've taught them, or "helping" me read a familiar book.

Other rewards were really unexpected, like the chartered bus trips the library hosts for the volunteers, and the job offers! In the two years that I've been volunteering at the library, I've had hundreds of job offers. I've not taken any of the offers, but knowing that I have other options for employment is a comfort in itself.

Not all of the volunteers do storytelling. There are many jobs at the public library for volunteers to do, and they do their jobs well. Volunteers also staff the Library's booth at the Lifelong Learning Festival and help in other festivals too. Some volunteers help patrons check out books or find the book they want.

I feel very fortunate to be allowed to do the storytelling at the library. Someone asked me once if I really did it for free, and I said yes, of course I do it for free. What they don't know is I love it so much, I might pay for the privilege, if necessary!



Do I recommend volunteer work? Yes! It is the most rewarding work there is. I highly recommend volunteer work to everyone, and especially fellow expatriates.

The library is a great place to “work” but there are many other public buildings where volunteers are needed. If you don’t already volunteer somewhere, get out there and find your place in this beautiful city!

If South Korea would grant me permanent resident status, I would retire, and just do volunteer work all the time.

Thanks, Icheon Library, for giving me such a fun and rewarding hobby!



## 원어민 자원봉사활동 후기

샌디 윌리엄스 | 영어 스토리텔링 자원봉사자

한국에 온지 두 달이 지난 뒤, 나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이자 첫 친구인 정유순씨가, 이천시립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좋다고 했습니다. 유순씨는 내가 너무 빨리 대답한 것에 다소 놀란 듯 했지만 난 스토리텔링이 흥미롭게 들렸고, 그 재미는 시작되었습니다.

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고 한 것에 한 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며, 그것은 내가 한국에 있는 전체 동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 나는 그 무엇보다도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스토리텔링이 가장 그리워질 것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시작에 불과했고, 때때로 이용자들은 손수 쓴 카드, 오렌지나 사탕, 직접 만든 떡, 나를 그린 그림 등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노랫말을 따라 부르던 것이나, 책을 읽어 달라고 하던 작고 귀여운 목소리들 듣는 것 또한



기쁨 이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보상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해준 견학여행과, 일자리에 대한 제의였습니다. 2년 동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는 백여건의 일자리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상태가 좋고 그 자체로 편안함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제의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 전원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고, 봉사자들은 그 일을 잘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평생학습축제에서 도서관 부스를 돕기도 하고, 다른 축제를 돕기도 합니다. 몇몇 봉사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책을 대출해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책을 찾아주는 일도 돕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을 맡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은 누군가가 정말로 무료로 그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한다고 대답했지요. 그들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이러한 특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추천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나는 특히 고국을 떠나와 있는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



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천 합니다.

시립도서관은 정말 일하기 좋은 장소이지만, 다른 많은 공공시설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직 자원봉사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밖으로 나가 당신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만약 대한민국이 저에게 영주권을 허락해 준다면, 전 은퇴하여 봉사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보람된 취미를 갖게 해 주신 이천시립도서관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 도서관 친구의 행복한 보람

한 경 희 | 어르신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

오늘도 오후 1시쯤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주위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나무들로부터 나오는 싱그러운 산소를 마시며 상쾌한 기분을 넘어 행복한 마음으로 시립도서관 현관을 들어서고 있다. 많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원봉사자 대기실로 들어가니 서너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나도 새로 들어온 여러 분야의 책들을 도서관 직인 날인과 분류 번호를 두어 시간 기입하고 3층 자유열람실로 올라가니 주말이어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은 많이 보인다.

어떤 학생들은 계단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복도 정숙, 휴대폰 금지, 잡담 금지의 표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복도에서 휴대폰을 통화하는 이용객들도 있다. 그곳을 ‘도서관 친구’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입고 지나가면 어느 정도 조용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통화하고 있는 이용객들에게는 자제를 당부하고, 계단에서 조금은 시끄럽게 소리가 나면 그곳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당부한다. 그럼 학생들이 많이 찾는 제3열람실로 조용히 들어가 본다. 나름대로 자유열람실은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각자 독서나



공부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좌석을 보는 순간 로마나 유럽에 온 착각을 할 정도로 낙서 천국이다. “너를 죽도록 사랑해”부터 “동방신기”까지 크고 작은 수백 개 문자들이 마치 추상화를 보는 것 같다. 공부하는 스트레스 발산과 청소년 시기에 장난 끼를 도저히 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열람실 벽면에 낙서 board를 만들어 그곳에 쓰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어쨌든 너무한 듯싶다. 좌석마다 새까맣게 쓰인 이 낙서를 지우려면 꼬박 하루를 휴관하고 약품으로 어렵게 지워야 한다. 정녕 학생들에게 간곡히 자제를 부탁한다.

열람실을 나와 복도나 계단을 오가면서 이용자들이 흘린 휴지 등을 주워 버리고, 2층에 있는 문헌 정보실로 들어가 본다. 15만권에 달하는 책들이 질서 정연하게 서가에 분류 배치 되어있다. 여기서 보고 싶은 책과 자료를 열람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대여도 해간다.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많은 책들 중에 내가 얼마나 책을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은 책을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읽어보자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사실상 그동안 사회생활로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보는 시간은 거의 없지 않았던가. 책 속에 파묻혀 보는 또 다른 감성적 희열을 느끼면서 문헌정보실과 옆에 있는 전자정보실로 들어간다. 여러 이용객들이 좌석을 배정받



고 각자의 자료검색이나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다. 정속하고  
질서 정연한 곳이다.

그리고 1층에는 가족 열람실이 있다. 가족과 함께 특히 엄마와 함께 꼬마 어린이들이 아동도서를 보면서 놀이도 하고  
원어민 영어 교육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이야 말로 평생학습의 장  
이요 마음의 양식을 공급받는 요람이라고 절로 느껴진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객의 안내도  
하고 도서관 주위 환경을 정리하며 바쁜 직원들의 또 다른 손  
으로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자의 일이다.

나는 학창시절 대학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  
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는 여러 가지 일로 거의 도서관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많은 이용객들을 위하여 도서관에  
서는 끊임없는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으로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보다 풍요로운 선진문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평  
범하고 작은 자원봉사자로 오랫동안 행복한 보람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 북스타트의 행복찾기게임

책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안내자였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인가? 끝없는 물음에 답을 주었다. 삶, 존재 그리고 희망까지 지탱해 주었다. 책이 있어 실 수 있었다.

최 종 숙 |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오늘 아침 햇살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줄 아가들의 볼을 닦았나 보다. 유난히 아름다운 햇살 머금고, 미소 띤 얼굴로 행복 꾸러미를 챙겨 주시는 우리들의 수호천사 허강은 사서 선생님의 짧은 기를 받아 북스타트사업으로 보건소에 도착하면 보건소 정문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카운터에서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 주시는 직원여러분과의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몸과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다.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의 보금자리 부스를 차리고 책과 안내서를 펴서 진열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나가는 아기들의 개월 수 맞히는 게임이 시작된다. 참 게임이란 재미가 있다. ‘저 아기 몇 개월 되었을까?’ 하고 옆 친구에게 물으면 글썽 6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속삭이며, ‘어머님 아기 몇 개월



되었어요?’ 하고 물으면 ‘6개월 되었어요.’ 하고 대답하면 통쾌감이 생기는 것은 승리감인가? 처음에는 맞추는 것이 30% 정도 현재는 거의 90% 이상인 프로가 되었다.

어느 사이 북스타트 자원봉사를 시작한지도 만2년이 되었다. 2006년 7월 26일 시장님으로부터 “귀하를 이천시가 주관하는 북스타트(Bookstart)사업의 자원활동가로 임명합니다.” 라는 임명장을 받았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에 지역 발전 공로로 표창장도 받게 되었다. 한아름 안겨주시는 꽃다발은 정말 자랑스러웠고 가슴이 벅찼다.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공교육을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가 얼떨결에 아기를 몸과 마음으로 열 달을 키워 출산이라는 대대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을 시기에 도서관이라는, 책이라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아주 값진 일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무심코 관심 없다고 책 파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아니면 정말 바쁘신지 그냥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도망가듯 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5살 딸아이를 유치원 보내면서 시작한 북스타트 봉사 일이 벌써 딸아이가 7살이 되었다. 육아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봉사처로 찾게 된 계기다.

2008년에 시작한 네이버



북스타트 이천 카페도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북스타트 회원어머님들을 위해 좋은 정보를 올리고, 북스타트의 기본 취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회원수가 87명이다. 하루에 한번 정도 카페에 들러, 신입 회원님의 정성어린 질문에 대한 답을 볼때면 참으로 감사하다. 시내 나가거나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꾸러미가방을 보면 왜 이리도 반가운지...우편물이 발송되면 하루에 20명의 회원이 가입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수작업 부직포로 만든 하얀 물고기(하양이), 바다에 사는 게, 거북이 인형 미완성을 덤으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 요즘은 예쁜 나비를 준비 중이다. 매주 수요일에 나가는 보건소는 10개 한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어머님은 못 받을 수도 있다. 한때는 못 받으신 어머님의 불만 어린 언성을 듣기도 했다.

북스타트 독서문화운동은 1992년 영국의 도시 버밍햄의 아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상 능력을 키우고 상막해진 과정을 치유하기 위해 고심 끝에 해결책으로 시작한 것이 북스타트 운동이었다. 현재 영국의 아이들은 92%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일본으로 이어져 한국에서도 2003년 서울 중랑구를 시범사업으로 전개되었



으며 이천시에서는 2006년 7월 26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6개월 ~ 24개월 아기들에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도서관에서는 목요일 오전, 보건소는 수요일에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이천시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스타트 활동은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길러주고 침착성과 호기심을 길러 주는 동시에 가정환경을 좋아지게 만든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함께 책을 읽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문제 해소, 치유의 길이 열려지는데 한 축이 될 것이다.

북스타트 담당자님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변함없는 친절과 북스타트에 참여한 회원 아가들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의 진행을 바란다. 현재도 도서관에서 활발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이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 이천시의회 의장님께 특별관심을 부탁해 보고 싶다. 오전에 딱히 아가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대변 해 본다. 도서관 교통이 아주 불편하시단다. 오면 참 좋다고 행복하다고, 후속 프로그램과 교통에 불편이 해소되길 상상하며 나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해야겠다.

도서관과 책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말한다면, 사람들의 학습을 달성하는데 최고의 프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곳, 최고의 선생인 책이 있는



곳, 행복과 꿈을 안내하는 책이 있는 곳, 독서문화 운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독서 습관이 인생의 승과 패를 좌우하고, 독서량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독서습관은 우리 경제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이미 여러 기업이나 행정관서에서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장성군이 있고, 기업체 한솔제지, 삼성, 크라운제과, 이랜드 등 다수가 있다.



## 책 속에 길이 있다

민현옥 | 도서관 자원봉사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이제 2년째, 일주일에 하루 3~4시간씩 2층 열람실 도서정리를 한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남는 시간을 도서관에서 소일하다 보니 필요한 책을 찾는 과정에서 책들이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많았다. 책들을 꺼내 읽고는 아무 곳이나 꽂거나 혼자 보려고 숨겨둔 사람이 있어서라고 들었다. 결코 하루아침에 정리될 일은 아니었고 처음 시작할 땐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나서 서가 한 바퀴가 돌아졌다. 마치 내가 지리산 정상이라도 오른 듯 뿌듯했다. 물론 반대편 저쪽에는 또 제자리를 못 찾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겠지만.

책을 정리하다보면 씹쓸해질 때가 있다. 무슨 무슨 시험에 대비하는 책들은 너털너털해지고 많이 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비해, 인생에 지침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꽂혀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가엾게 느껴진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인지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수 만권의 책들이 “책 속에 길이 있어요.”라고 외치고 있는데 들어주는 여유 있는 귀가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 수요일은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날

진 명 희 | 책날개교실 강사

10분 지각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오늘따라 강의실 앞이 조용하다. 눈치껏 조용히 있어주는 녀석들에게 슬그머니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어떤 표정으로 들어서면 아이들이 행복해할까 살짝 고민하면서 조심스레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온 몸의 세포가 일시에 정지해버린 듯 하얗게 현기증이 일었다.

까맣게 꺼져 있는 전등... 텅 비어 적막감이 도는 강의실...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이 있다니...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뒤죽박죽 엉켜버린 두뇌 회로를 타고 갖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교차되어 수습난감이다. 바로 그때다. 비어있는 줄만 알았던 검은 공간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까르르 터져 나온다.

녀석들... 선생을 골려먹다니...

한바탕 소란스런 상황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멸망 과정을 설명하는 중,

“후삼국 통일은 누가 했을까?”



“사람이요!”

“빙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성실하게 대답하려하지만 어느 교실에서 건 짓곳은 녀석 한 둘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 정도는 애교로 응수해 준다.

그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여러 방향으로의 논의 전개를 위한 사고력질문을 하면 반성문 써오라는 통보를 받은 학생들처럼 15도의 각을 맞춰 너도나도 고개를 숙인다.

“궁예는 정말 미치광이 왕이었을까?”

“.....”

“궁예가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

하나만의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건만 내게 장난질 때의 기세는 간데없고 밑으로 향한 눈빛은 애꿎은 책상만 뚫을 태세로 쏘아본다. 늘 겪는 일이지만 상황이 이쯤 되면 독서논술지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정답이 분명한 발문<sup>1)</sup>에는 능숙하게 대응하지만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무척 당황해 한다.



발문 : 발문은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라든가 이론을 자극·유발하여 수업목표를 향하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훈련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딜레마다.

그러면 결국 이러저러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설명의 방향을 따라 대답을 하는 식의, 처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을 되풀이 하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토론시간에는 자신의 생각을 선뜻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주면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제법 근사한 주장 글을 쓴다. 앙큼한 녀석들이다.

어찌되었든, 비록 수업 중 선생의 눈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독서 수업에 참여하는 일만큼은 꽤나 즐거워하는 것 같다. 도서관 문을 들어서서는 아이들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준다. 좀체 결석하는 일도 드물다. 가끔은 간식 사 달라 떼(?)를 쓰기도 하고, 수업 하던 중 일제히 책상에 엎드려 자는 시늉으로 나에게 장난을 걸어오는 녀석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공통분모로 지목되는 행복지표는 바로 '관계'라고 한다. 돈이나 명예, 재능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친밀함'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주요 독서교실 '책날개' 아이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다음 주에는 녀석들이 또 어떤 장난을 걸어올지 살짝 긴장된다. 그때는 볼에다 뽀뽀를 해줘야지. 징그럽다며 도망가려나?



## 상품권이 뭐 길래……

한 재 희 | 책날개교실 강사

작년에 도서관에서 겨울 독서교실을 할 때였다.

‘우주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천체와 행성을 알아보고 사계절 별자리를 찾아보는 수업이었다.

우주의 무한한 세계와 지구의 생성과정을 알게 되었고, 과학의 발달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깨달아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수업이었다.

수업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은 온통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수업시간이 즐겁고 흥미 진진한 모습이었다.

왕성한 호기심과 끝없는 질문, 토론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직접 참여하는 수업형태로 그때의 수업은 항상 북적거리며 다소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그런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꼭 한, 두 명씩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는 개구쟁이들이 나타난다.

그 수업 역시, 그런 아이들 한, 두명이 매 수업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수업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처음엔 잘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책임감도 지워



주고 참여하게끔 유도도 해 보았지만 점 점 분위기는 잡혀지  
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해 낸 궁여지책! 바로 칭찬선물로 책 한권과  
함께 상품권을 시상하기로 한 것이다.

“자~ 지금부터 수업태도가 좋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  
생 세 명에게 마지막 수업 때 상품권과 책 한 권을 시상하겠  
어요.”

“와~ 정말이에요? 얼마짜리로 줄 건데요?”

“글쎄~, 그건 나중에 생각 해 볼게요. 아무튼 거기 떠드는  
친구들~ 참고하세요~호호”

조금은 비교육적인 방법 같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너무 과  
하지 않은 범위에서 상품으로 사용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으  
리라 생각되어 시행하기로 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산만하고 말도 잘 안 듣던 몇몇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을 경청하게 되었고 수업에도 적극 참여 하며 독후활  
동도 멋지게 해 내는 것이 아닌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까지 수업을 즐겁  
게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고민 끝에, 수업태도가 좋아진 아이 들  
을 선정 하고, 매 수업 때마다  
성실함과 적극적인 태도로 나



를 흐뭇하게 했던 아이 하나를 뽑아 약속대로 마지막 수업 후 시상상을 했다.

상품권을 받아 든 아이들이 신나게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빛이 싹 변하면서 적잖이 실망의

표정으로 구겨지는 것이다.

“샘~ 이게 뭐예요~, 겨우 오천 원짜리?”

난 뒤통수를 맞은 듯 했다.

오천 원이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로 쓰기에도 적지 않은 액수일 텐데. 거기다 책도 한 권씩 받아들고는 겨우 이거라니…….

난 기껏 주고도 욕먹은 한심한 선생님이 되었다.

“하하하. 생각보다 적은 액수였나 보구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네~”

검연쩍은 나의 쓴 웃음을 뒤로 하고, 그 녀석들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괜한 고생’이었다며 씩하니 돌아가 버렸다.

조금은 멍해진 정신으로 텅 빈 교실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다.

요즘 아이들의 수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알팍한 미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 보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좀 더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그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그리고 더욱 가르치는데 실력을 쌓고 수업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데 힘써야 했었음을 반성하게 된 것이다.

요즘 같은 물질만능 시대에, 부족함 없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설픈 보상이나 알팍한 흥미는 더 이상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다른 수업보다도, 책을 통해 인격을 함양하고 삶의 다양한 간접경험을 중요시하는 독서수업에서는, 마음과 정성, 전인적인 감성의 접근이 무척 중요하다.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질주의, 기회주의, 흥미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인간적인 교감과 신뢰,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체험과 몰입만이 독서수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때번, 아이들과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는다.

여러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나를 성숙시키며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지금도 그 때, 떠들고 장난치며 수업 시간에 정신이 없는 녀석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리해가며 정신없이 수업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아직 도서관에서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가끔 그 녀석들이 보고 싶기도 하다.



다시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머, 애들아~ 선생님이 무척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했거든~게임 보다 더, 상품권 보다 더 재미있고 신날거야. 떠들거나 장난칠 새도 없이 후딱 시간이 가버릴 만큼~ 꼭 다시 보자”

오늘도 난, 고액의 상품권 보다 더 환상적인, 마법의 독서 수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배우는 즐거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이 인 환 | 시민문화교실 우리아이독서지도 강사

나는 지난 2008년 6월에 이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마련해 준 <명강사 육성과정>을 수료하면서 처음으로 평생학습에 발을 들여 놓았다. 오랫동안 아동독서 교재 개발에 주력해 왔고, 아이들을 상대로 논술강의를 하면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뛰어든 길이었다.

그 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무엇보다도 배우는 즐거움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는 즐거움이란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만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없이 쓰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한편으로 배우는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내 고향 이천시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배우지 못해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았던 고향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에게 평생학습 도시인 이천시 민인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니던가?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문화교실 독서논술지도 강사로 섭외



가 들어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뻐다. 그 동안 여성문화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과정 강좌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 따라서 이천시민의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시립도서관의 강사로 설 수 있다는 행운을 놓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느꼈던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성인학습자 중에는 터러 강의를 평가하는 자세로 강의를 듣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걱정을 떨치기 위해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함께 가슴에 새겼던 것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학습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시민문화교실 강좌는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님들이 수강생의 주를 이루었다. 간혹 전문적인 독서논술지도사 자격과정을 꿈꾸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집에서 내 아이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다.

사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먼저 배워서



직접 아이를 지도하겠다는 부모를 보면 말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는 말을 한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큰 고민이 생겼다. 강의안을 원래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모가 내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남의 집 아이를 가르칠 때는 아이가 가르쳐 준 것을 몰라도 상냥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게 되지만, 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아이가 가르쳐 준 것을 조금이라도 모르면 감정부터 앞세워 아이를 잡아대기 일쑤인 것이다. 아이 입장에서 엄마의 감정 섞인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강좌는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둔 어머니가 주된 수강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먼저 아이와 통하는 강의를 앞부분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공감하고 호응을 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직접 독서감상문도 써보고, 자기소개서도 써보는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많은 수강생들이 과제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아이가 독서감상문을, 자기소개서를 잘 쓰게 하려면, 독서



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게 하려면, 어머님들이 먼저 해 보았어야만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적어도 어머님들이 아이의 독서지도를 하려면 독서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가슴 답답함 정도라도 실감을 해봤어야 했다. 그랬어야만 적어도 아이에게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해를 하게 되어서 글쓰기 숙제를 안 했다고 벌을 세우거나 혼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독서논술 지도에서 과제물을 안 해왔다고 벌을 세우거나 혼을 내는 것은 아이를 아예 망쳐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자녀교육의 기초는 부모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부모가 먼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이는 고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강의기법을 익혀와서, 아무리 완벽하게 아이에게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역효과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강좌를 통해서 독서논술 공부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파고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부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배워 나갈 기회가 얼마든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 독서감상문 **멀쩡한 이유정**

황 병 순 | 시민문화교실 수강생

‘멀쩡한 이유정(유은실 지음, 변영미 그림, 푸른숲 펴냄)’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투성이 얘기 다섯 편을 담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음직한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사건들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때론 진지하고, 때론 유머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도둑 잡은 경찰도 아니고, 조기축구 회장도 아닌, 술주정뱅이에 노름꾼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경수 <할아버지 숙제>, 동생 낳으려고 병원에 간 엄마 덕분에 고모 집에 열흘 간 맡겨지면서 학원과 숙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세상구경을 하는 진이 <그냥>, 총명탕까지 지어 먹었는데도 길을 구분 못하는 길치 <멀쩡한 이유정>, 난생 처음 느끼하다는 자장면을 맛본 손자와 할아버지, 손자가 먹고 싶다는 왕새우 사주려다 대형마트와 카트의 압박에 좌절한 할아버지와 기철이 <새우가 없는 마을>, 딸 애들 아빠는 살려주고 우리 아빠만 죽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온 세상이 불공평한 투성이인 영지 <눈>이 주된 내용이다.

이 책은 요즘 아이들의 고민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예쁘지도 않다. 또한 부자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아이도 아니다. 하지만 아이



들의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아이들 특유의 어투와 순수함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물론 작품 속 주인공들의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단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꼭 해결을 위한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 받을 때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진심어린 마음들이 담겨 있다.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그것도 동화책을 읽으면서 교훈, 감동, 재미를 포함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 하나 하나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어쩌면 나보다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를 건네 주고 싶을 만큼 자신감도 생겼다.

작가의 머리말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숨긴다고 해서 편안해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놓았을 때야말로 휴식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나와 우리 아이들도 각박한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여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 품나는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정혜숙 | 시립도서관 팀장

2009년 6월 22일 이 날은 이천시 도서관 역사에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 중리동 구 시청사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공도서관이 개관됐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에 특화된 어린이 도서관을 갖게 된 것은 이천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마치 또 다른 세상을 만난 듯 신나는 일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던 개관식을 마치고 나니 1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처음 어린이도서관 평면 설계를 잡던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팀원들은 어린이도서관의 설계를 요청하기 전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주제는 ‘꿈’입니다. 설계용역을 맡은 곳에서 설계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감각에 맞는 도서관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면서도 마냥 앉아서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설계가 나올 즈음에 시간을 내어

인근 시에 있는 최근에 개관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자료실, 덩그런 온돌 유아방, 오디오코너 그 정도였습니다.



한껏 기대를 하고 가서 살펴 본 시설은 오히려 걱정만 더 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 잘못하면 우리 이천 어린이 도서관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마침내 1차 설계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설계용역회사에 기대를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린이도서관 분야에 관한 한 마냥 믿고 매달릴 수준이 안됐습니다. 설계용역회사는 본 설계에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건립 자체가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의 창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책임감 있는 곳은 우리 담당자 자신들뿐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반성할 계기가 되었고, 전적으로 우리가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제시하고 주체적으로 챙겨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시설물입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팀원은 도서관 시설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짜내어도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



고, 시간은 흘러가고 설계안은 원안대로든 변경해서든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제도면을 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을 하였고, 2003년부터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을 조성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곳 안찬수 사무처장께 전화를 하고 1차 설제도면을 들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천 어린이 도서관 공간 디자인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충고를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어린이 도서관 설계의 숨은 공로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벤치마킹과 전문가 상담, 토의를 거쳐 자신 있게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매번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고민도 하였습니다.

이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창의력을 키우고 책 속에서 꿈을 그리고 그 꿈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기 때부터 도서관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도서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가정 학교 도서



관이 함께” 라는 4가지 운영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어린이가 부모와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족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자고 다짐하면서 이에 맞게 도서관의 공간과 각 실의 이름을 정하고 사인 디자인을 정하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20일 동안은 도서관의 넓은 공간에 좋은 책으로 채우기 위해 마크작업과 서가배가 작업을 밤낮 없이 준비하여 현재의 시설로 탄생하였습니다.

드디어 개관식, 관람하는 많은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들판에 피고 진 들꽃들, 벚꽃이 화사한 거리, 잔잔한 아카시아 꽃향기 등 잊고 지난 것이 많아 올 해는 한 계절 빠뜨리고 건너뛰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뜻한 어린이 도서관,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가슴 한편이 뿌듯합니다.

일백 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방문하고 참조했던 타 도서관에 비하면 창조적 아이디어가 가미된 점이 특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계획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아 당황스럽던 시행착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먼 곳까지 출



장을 마다하지 않던 일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감사해 하던 마음,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기록될 리도 없고 실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오직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도서관, 즐거운 도서관, 오고 또 와도 계속 다니고 싶은 도서관으로 두고두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도서관이 탄생하는 데 있어 전적인 신뢰를 해주신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과 도서관의 특성을 심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준 공사 관계자들, 특히 참으로 많은 회의와 준비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대충 넘기지 않고 정성을 다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시립도서관 팀원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사서추천 도서목록



## 사서 추천 목록-일반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1	과학	인간탐구	인간	로버트 윈스턴	사이언스북스	일반
2	과학	화학,명화감상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림	랜덤하우스코리아	일반
3	과학	과학	시크릿 패밀리	데이비드 보더니스	생각의나무	일반
4	과학	성과학	남자와 여자는 왜 끌리는가	아마모토 다이스케	동아시아	일반
5	과학	과학일반	아름다움의 과학	올리히 렌츠	프로네시스	일반
6	과학	환경	인간 없는 세상	앨런 와이즈먼	랜덤하우스	일반
7	과학	기억, 뇌	기억창고 정리법	베르나르 그루아질	사이언스북스	일반
8	과학	아스피린	아스피린의 역사	다이어מיד 제프리스	동아일보사	일반
9	과학	지구,환경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77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추수밭	일반
10	과학	건강한 삶	바디 시인	조앤 리브만-스미스	예담	일반
11	과학	생명과학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박태현	생각의나무	일반
12	과학	우주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	김호진	샘터	일반
13	과학	뇌 심리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루안 브린젠딘	리더스북	일반
14	과학	과학에세이	시크릿 하우스	데이비드 보더니스	생각의나무	청소년
15	과학	수학,수학사	영화와 함께 떠나는 수학사 여행	계영희	살림	청소년
16	과학	건강,수면	잠의 즐거움	사토 도미오	국립미디어	일반
17	과학	생명과학	뭐라고, 이게 다 유전자 때문이라고?	리사 시크라이스트 치우	한얼미디어	일반
18	과학	건강(건강)	걸음아 날 살려라!장생보법	이승헌	한문화	일반
19	과학	기초의학	행복한 두뇌	구로카와이호코	영림카디널	일반
20	과학	동물	다윈, 당신 실수한 거야!	외르크 외틀라우	뜨인돌	일반
21	과학	과학상식	과학 엔터테인먼트 최원석의 새빨간 과학	최원석	살림	일반
22	과학	흙,생명	흙	EBS 흙 제작팀	낮은산	일반
23	과학	동물	동물들의 비밀신호	올리히 슈미트	북하우스	일반
24	과학	자연(자연환경)	천재지변 탐사학교	자연탐사학교	청어림미디어	일반
25	과학	교양과학	과학카페 vol.1: 인체와 건강	KBS 과학카페 제작팀	위즈덤하우스	일반
26	과학	건강	병 안걸리고 사는 법	신야 히로미	이아소	일반
27	과학	생태주의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리처드 루브	즐거운상상	일반
28	과학	뇌과학	뇌와 마음의 구조	일본 뉴턴프레스	뉴턴코리아	일반
29	교육	자녀교육	신의진의 초등학교생 심리백과	신의진	갤리온	일반
30	교육	경제교육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헌철	이콘	일반
31	교육	자녀교육	10살 전 꿀맛교육	최연숙	21세기북스	일반
32	교육	자녀교육	부모아이 성격공감	김은희	팝콘북스	일반
33	교육	인성교육	우리 아이 똑 소리나게 키우기	다짜미 나기사	작은씨앗	일반
34	교육	인성교육	피노키오 상담실 이야기	이지성	성안당	일반
35	교육	교육법	(에스퀴스 선생님의)위대한 수업	레이프 에스퀴스	추수밭	일반
36	교육	독서법	책을 읽는 방법	히라노 게이치로	문학동네	일반
37	교육	어린이 스트레스	부모와 아이 마음 간격 1mm	손석한	파인앤굿	일반
38	교육	유학	꿈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	이강렬	황소자리	일반
39	교육	외국어	뉴욕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이유진	21세기북스	일반
40	교육	미술교육	아이 스케치북에 손대지 마라	김미영	동아일보사	일반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41	교육	아들교육	알파걸들에게 주눅 든 내 아들을 지켜라	래너드 삭스	웅진씨애크하우스	일반
42	교육	자녀교육, 학습법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박영숙	일마	일반
43	교육	공부습관	21일 공부모드	정철희	밀리언하우스	청소년
44	교육	자녀교육, 진로	이젠 세계인으로 키워라	박하식	글로벌세움	일반
45	교육	육아	엄마만큼 크는 아이	최낭규	한림출판사	일반
46	교육	요리사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한영용 외	부키	일반
47	교육	직업학교	세계 명문 직업 학교	동아일보 국제부	동아일보사	일반
48	교육	자녀교육	(초등학생 엄마들의) 첫번째 교과서	이승민	갤러온	일반
49	교육	체험학습	핵심폭력 우리가족 체험학습	편경애	주니어김영사	일반
50	교육	자녀교육	내 아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군디 가슬러	양철북	일반
51	교육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	한복희	여성신문사	일반
52	교육	좋은 부모 되기	외동아이 잘 키우는 55가지 지혜	다고 아키라	문학수첩리플북	일반
53	교육	자녀교육 지침서	부모가 학교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달팽이	일반
54	교육	자녀교육, 학습법	방배동 김선생의 공부법 희망이다	김종선	이디미디어	일반
55	교육	자녀교육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예담	일반
56	교육	자녀교육	애착육아	윌리엄 시어스	푸른육아	일반
57	교육	자녀교육	작은 소리로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는 법	마츠나가 노부후미	21세기북스	일반
58	교육	자녀교육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키워라	전영숙	여성신문사	일반
59	교육	독서교육	하루 15분, 책 읽어 주기의 힘	짐 트렐리즈	북라인	일반
60	문학	돈, 사랑, 죽음	어쩌면 그곳은 아름다울지도	아콕하인	영림캐디널	일반
61	문학	배려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일반
62	문학	산문	호미	박완서	열림원	일반
63	문학	심리에세이	천 개의 공감	김형경	한겨레출판	일반
64	문학	한국문학	캐비닛	김연수	문학동네	일반
65	문학	역사	오 하느님	조정래	문학동네	일반
66	문학	희망	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일반
67	문학	에세이	그래도라는 성이 있다	김승희	마음산책	일반
68	문학	인권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디브	김영사	일반
69	문학	삶	나가사키	요시다 슈이치	밝은세상	일반
70	문학	인생이야기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문학과지성사	일반
71	문학	가족소설	즐거운나의집	공지영	푸른숲	일반
72	문학	사랑	사랑을 만다(2008이상문학상 작품집)	권여선 외	문학사상사	일반
73	문학	가족	엄마의 집	전경린	열림원	일반
74	문학	인간애	사랑하기 때문에	기욤 뤼소	밝은세상	일반
75	문학	휴머니즘	사람	김용택	푸르메	일반
76	문학	사랑, 우정	슈거타임	오가와 요코	문학수첩	일반
77	문학	요리	밥시	박재은	지안	일반
78	문학	마음 공부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	에크너트 이스워런	바움	일반
79	문학	인생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오픈하우스	일반
80	문학	육심	문스톤	윌리엄 윌키 콜린스	푸른숲	청소년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81	문학	이슬람, 여성	별난 친구들의 도쿄 표류기	다카노 히데유키	미래인	청소년
82	문학	성장소설	나무	이수원	뿔	일반
83	문학	인생	오늘의 거짓말	정이현	문학과지성사	일반
84	문학	인물평전	한국의 고집쟁이들	박종인	나무생각	일반
85	문학	인간관계	박경림의 사람	박경림	리더스북	일반
86	문학	가족	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일반
87	문학	인간 본성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마라구	해냄	일반
88	문학	자기개발	미안해	박진영	헤르메스미디어	일반
89	문학	여유로운삶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	이창수	터치아트	일반
90	문학	성장소설	돼지우리	수산나 알라코스키	상상공방	일반
91	사회과학	세계사	세계사,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크리스 브래지어	이후	일반
92	사회과학	상상력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임현우	나남출판	일반
93	사회과학	빈곤,기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일반
94	사회과학	한국경제	88만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레디앙	일반
95	사회과학	시간관리	1日 30分	후루이치 유키오	이레	일반
96	사회과학	경제흐름	마이크로트렌드	마크 펜	해냄	일반
97	사회과학	자기경영	목표 없이 성공하라	히라모토 아키오	리더&리더	일반
98	사회과학	재테크	대한민국 2030 재테크 독하게 하라	김민수	미르북스	일반
99	사회과학	인간관계	관계의달안인생의99%는 관계가 만든다	앤드류 매투스	북라인	일반
100	사회과학	경제용어	경제 상식 사전	김민구	길벗	일반
101	사회과학	행운	행운의 비밀 LUCKY YOU!	랜달 피츠제럴드	미래의창	일반
102	사회과학	법률상식	당신이 판사	안영문	산지니	일반
103	사회과학	리더십	세종처럼	박현모	미다스북스	일반
104	사회과학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고철중	다산북스	일반
105	사회과학	성공처세술	당신이 답이다	정철화,이정선	무한	일반
106	사회과학	독서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이희석	고즈원	일반
107	사회과학	교양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일반
108	사회과학	경영	독서가 행복한 회사	고두현	21세기북스	일반
109	사회과학	미래전망	당신의 성공을 위한 미래뉴스	박영숙	도솔	청소년
110	사회과학	경제학	17살 경제학	한진수	갤리온	청소년
111	사회과학	자기개발	(더 나은 나를 위한)작은 실천	유엽	눈과마음	일반
112	사회과학	자기개발	모티베이터:동기를 부여하는사람	조서환	책든사자	일반
113	사회과학	자기개발	스물일곱 이견희처럼	이지성	다산북스	일반
114	사회과학	전쟁,평화	소년병, 평화의 길을 열다	사토 다다오	검등소	일반
115	사회과학	시간활용	창조적 단절	에드워드 M. 할로웰	살림Biz	일반
116	사회과학	자신감	자신감	안상헌	경향미디어	일반
117	사회과학	리더십	공병호의 희망 리더십	공병호	21세기북스	일반
118	사회과학	행복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21세기북스	일반
119	사회과학	재테크	아버지의 가계부	제윤경	생각의나무	일반
120	사회과학	공정에너지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박종하	다산출판사	일반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121	사회과학	경제일반	인생은 경제학이다	공병호	해냄	일반
122	사회과학	소비자학	(사치의 나라)릭서리 코리아	김난도	미래의창	일반
123	사회과학	성공, 성찰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한국경제신문사	일반
124	예술취미	음악	소리를 잡아라	마크 카츠	미티	일반
125	예술취미	와인	친절한 WINE BOOK	오은선	랜덤하우스	일반
126	예술취미	여행	(읽고만 있어도 좋은)노플랜 사치원 유럽여행	정숙영	부키	일반
127	예술취미	음악, 클래식	바흐를 좋아하세요?	송영	바움출판사	일반
128	예술취미	대중문화	사진, 영화를 캐스팅하다	진동선	효형출판	일반
129	예술취미	여행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	박혜영	넥서스BOOKS	일반
130	예술취미	문학기행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	김화영	마음산책	일반
131	예술취미	문학기행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들다	임동헌	랜덤하우스	일반
132	예술취미	행복의 의미	행복을 주는 그림	크리스토프 앙드레	마르니에북스	일반
133	예술취미	영화감독	거장의 노트를 훑치다	로랑 티라르	나비장책	일반
134	예술취미	영화감상	세계영화의 수수께끼	드림프로젝트	비채	일반
135	예술취미	뮤지컬	뮤지컬 포에버	이보연	루비박스	일반
136	예술취미	요리	타사의 식탁	타사 튜더	월북	일반
137	예술취미	한지공예	이야기가 있는 종이박물관	김경	김영사	일반
138	예술취미	영화감상	행복을 주는 그림	크리스토프 앙드레	마르니에북스	일반
139	예술취미	클래식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박종호	시공사	일반
140	예술취미	음악에세이	리처드 용재 오닐의 공감	리처드 용재 오닐	중앙북스	일반
141	예술취미	영화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이미도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142	예술취미	음악에세이	신해철의 캐번독실	신해철, 지승호	부엔리브로	일반
143	예술취미	단원, 옛그림	단원의 그림책	최석조	아트북스	일반
144	예술취미	스페인, 여행	스페인, 너는 자유다	손미나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145	예술취미	축제	페스티벌 제너레이션	김지숙 외	브이북	일반
146	예술취미	경주, 여행	강석경의 경주산책	강석영	열림원	일반
147	예술취미	역사기행	중국 역사기행	김복희	천우	일반
148	예술취미	영화감상법	나의 영화 읽기	아카세가와 겐페이	놀와	일반
149	예술취미	여행	우먼 인 아프리카	정은선	이가서	일반
150	예술취미	차마고도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이용한	넥서스BOOKS	일반
151	예술취미	미술사, 복식사	샤넬, 미술관에 가다	김흥기	미술문화	일반
152	예술취미	음악, 클래식	에피소드로 엮은 클래식 음악100	모리모토 마유미	반디	일반
153	예술취미	미술감상	무서운 그림	나카노 교코	세미콜론	일반
154	예술취미	영화	이 영화를 보라	고미숙	그린비	일반
155	예술취미	여행, 국토종단	내 나이가 어때서?	황안나	산티	일반
156	예술취미	음악에세이	마주침	유정아	문학동네	일반
157	예술취미	그림, 심리치료	그림에, 마음을 놓다	이주은	앨리스	일반
158	예술취미	사진, 여행	사진가의 여행법	진동선	북스코프	일반
159	예술취미	한국회화	그림 속에 노닐다	오주석	솔	일반
160	예술취미	요리	따끈 따끈 맛있는 떡 만들기	강숙향	황금부엉이	일반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161	예술취미	목공	목공DIY로 우리집 꾸미기	정상호	웅진멜북	일반
162	인문과학	고려역사	고려에 시집온 칭기즈칸의 딸들	이한수	김영사	일반
163	인문과학	독서법	독서와 이노베이션	정을병	청어	일반
164	인문과학	직장생활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신시아 사피로	서돌	일반
165	인문과학	심리.역사	누다심의 심리학 블로그	강현식	שלם출판사	일반
166	인문과학	독서경영	독서경영	박희준 외	위즈덤하우스	일반
167	인문과학	행복,희망	무지개 원리	차동엽	위즈앤비즈	일반
168	인문과학	경청.대화	(마음을 얻는 지혜)경청	조선영	위즈덤하우스	일반
169	인문과학	인생의 지혜	프레임	최인철	2세기북스	일반
170	인문과학	독서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잭 캔필드	리더스북	일반
171	인문과학	행복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안젤름 그린	위즈덤하우스	일반
172	인문과학	거짓말	거짓말의 진화	엘리엇 애런슨	추수밭	일반
173	인문과학	심리학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김혜남	갤리온	일반
174	인문과학	심리학	개성의 탄생	주디스 리치 해리스	동녘아인스	일반
175	인문과학	회문제	츨스키,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	노엄 촘스키	시대의창	일반
176	인문과학	철학의이해	철학,삶을 만나다	강신주	이학사	청소년
177	인문과학	인생	인생카페	존 스트레레키	뜰	청소년
178	인문과학	철학우화	옥탑방으로 올라간 칸트	가브리엘레 위닉스	이룸	일반
179	인문과학	책임기	책력	안상헌	북포스	일반
180	인문과학	책임기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잭 캔필드	리더스북	일반
181	인문과학	우리 신화	꽃아 꽃아 문 열어라	이윤기	열림원	일반
182	인문과학	깨달음,명상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성타	은행나무	일반
183	인문과학	가족치료	(가계도 분석을 통해 본)세계 유명인의 가족비밀	Monica Mcgoldrick	학지사	일반
184	인문과학	법	디케의 눈	금태섭	공리	일반
185	인문과학	사랑의 심리	우리는 왜 친구의 애인에게 끌리는가	루보미르 라미	브리즈	일반
186	인문과학	서울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권기봉	알마	일반
187	인문과학	남자와여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앨런 피츠, 바버라 피츠	가야넷	일반
188	인문과학	정치사상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글방	일반
189	인문과학	우체국	우체국 이야기	이종탁	황소자리	일반
190	인문과학	명상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탁났한	눈과마음	일반



독서 습관은 독자를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독서의 참다운 기쁨은 몇 번이고 다시 읽는 것이다.

-로렌스-

## 사서 추천 목록-어린이 · 청소년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1	어린이	개념알기	내 뒤에 누굴까	후쿠다 토시오	한울림어린이	유아-3세
2	어린이	우주	우주로 갈래요	원일	이름다운사람들	유아-5세
3	어린이	친구	아기여우의 친구 만들기	애덤 랠프	예림당	유아4-6세
4	어린이	독서방법	외작외작 골격 책 먹는 아이	올리버 제퍼스	주니어김영사	유아4-6세
5	어린이	현대문명 비판	옛날에는 돼지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이민희	느림보	유아4-6세
6	어린이	우정	우리는 친구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유아4-6세
7	어린이	감정조절	불 뿜는 용	라이마	예림당	유아4-6세
8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웅진주니어	유아4-7세
9	어린이	꿈, 희망	보물	유리 솔레비츠	시공주니어	유아4-7세
10	어린이	지혜	우리 집은 시골시골해	앤 맥거번	보물창고	유아4-7세
11	어린이	옛이야기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오늘이	서정오	봄봄	유아4-7세
12	어린이	우정	큰 늑대 작은 늑대	나딘 브링코프	시공주니어	유아4-7세
13	어린이	더불어 사는 삶	난쟁이 할아버지의 집짓기	아오야마 쿠니히코	사파리	유아4-7세
14	어린이	명작동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보림	유아5-7세
15	어린이	우정	미안해, 친구야	우치다 린타로	주니어랜덤	유아5-7세
16	어린이	좋은습관	내 맘대로 할 거야	양태석	스콜라	초1-2
17	어린이	동심	빠앗긴 일기	이은하	한겨레아이들	초1-2
18	어린이	전통놀이	굴렁쇠랑 새총이랑 신명나는 옛날놀이	햇살과나무꾼	해와나무	초1-2
19	어린이	성장	우리 선생님은 사프 도둑	이현숙	채우리	초1-2
20	어린이	그림책	에밀, 집에 가져	한스 트릭슬러	느림보	초1-2
21	어린이	옛이야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곳감	우봉규	스콜라	초1-2
22	어린이	옛이야기	바리공주	백승남	한겨레아이들	초1-2
23	어린이	가족애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보림	초1-2
24	어린이	가족사랑	아빠는 1등만 했대요	노경실	시공주니어	초1-2
25	어린이	장애 가족	우리 아빠는 고랑내 나는 발가락 시인	김헌태	중앙출판사	초1-3
26	어린이	자신감	고안 농 혼내 주기	김기정	시공주니어	초1-3
27	어린이	독서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김헌태	아이앤북	초1-3
28	어린이	꽃	사계절 꽃 이야기	박민호	자람	초1-3
29	어린이	상처치유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질티보	작가정신	초3-4
30	어린이	입양 가족애	안손 씨의 양복	원유순	한겨레아이들	초3-4
31	어린이	장애 극복	나 때문이야	고정욱	아이앤북	초3-4
32	어린이	장애	눈으로 들어보렴	글로리아세실리아 디아스	우리교육	초3-4
33	어린이	세계여행	나는 네 친구야	박종이 외	시공주니어	초3-4
34	어린이	인종문제	인종 이야기를 해 볼까?	줄리어스 레스터	사계절	초3-4
35	어린이	과학 달	달을 찾아서	이희주	창비	초3-4
36	어린이	희망	우리 가족 최고의 식사	신디위 마고나	샘터	초3-4
37	어린이	친구,우정	최악의 짝꿍	하나가타 미쓰루	주니어김영사	초3-4
38	어린이	음악동화	얼음 공주 투란도트	김선희,지혜경	보물상자	초3-4
39	어린이	성장소설	제비갈매기 섬의 등대	줄리아 엘 사우어	좋은책어린이	초3-4
40	어린이	호기심	프린들 주세요	앤드루 클레먼츠	사계절	초3-4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41	어린이	사회성	나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마지리 화이트 펠레그리노	작가정신	초3-4
42	어린이	왕따, 학교폭력	작전1호 왕따와 학교폭력 이겨내기	캐서린 드피노	해솔	초3-4
43	어린이	가족애	까만 달걀	강민경 외	샘터	초3-5
44	어린이	세계문화	등글등글 지구촌 문화 이야기	크리스티네 슬츠-리악스	풀빛	초3-5
45	어린이	아빠	우리 집 우렁이 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초3-5
46	어린이	가족애	내 생각은 누가 해줘?	임사라	비룡소	초4-5
47	어린이	가족애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이지벨 로시놀	문학동네	초4-5
48	어린이	문화, 역사	이야기 아저씨 청계천 징검돌	원유순	아이앤북	초4-5
49	어린이	경제	어린이를 위한 경제 습관	어린이동화연구회	꿈꾸는사람들	초4-5
50	어린이	경제	레모네이드 전쟁	재클린 데이비스	개암나무	초4-5
51	어린이	장인정신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작과비평사	초4-6
52	어린이	성장소설	지긋지긋한 이사	마리안네 일머 오펜허	도서출판리점	초4-6
53	어린이	왕따	남생이 무당벌레의 왕따 여행	한영식	한림출판사	초4-6
54	어린이	음식, 동시	너도 나도 손갈 들고 여서 오너라	양재홍	대교출판	초4-6
55	어린이	민족애	소나무를 지켜라	김재경	주니어김영사	초4-6
56	어린이	예술	사라진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비밀	정명숙	한솔수북	초4-6
57	어린이	우리말	예쁜 우리말 사진	박남일	파란자전거	초4-6
58	어린이	경제	(세계 리더들의 10가지) 경제습관	주경희	은행나무	초4-6
59	어린이	자아찾기	이찬실 아줌마의 가구 찾기	박미라	바람의아이들	초4-6
60	어린이	화학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	김희정	토토북	초4-6
61	어린이	과학동화	어린이 과학형사대 CSI 1.	고희정	가나출판사	초4-6
62	어린이	화석	과학이 된 흔적, 동화석	제이콥 베키펜트	주니어김영사	초4-6
63	어린이	성장소설	행운을 부르는 아이, 럭키	수잔 패트런	와이즈아이	초4-6
64	어린이	성장소설	바다소	차오원쉬엔	다림	초4-6
65	어린이	동시	골짜도 상이 많아야 한다	정선봉, 정봉교, 23명어린이	보리	초5-6
66	어린이	장애성장	쑤우프, 엄마의 이름	사라웁스	낮은산	초5-6
67	어린이	투병일기	정표 이야기	이정표	파랑새	초5-6
68	어린이	수학, 기하학	10일간의 보물찾기	권재원	창비	초5-6
69	어린이	성장소설	아저씨, 소년 그리고.....여우	매튜 스위니	아리솔	초5-6
70	어린이	동시	거인들이 사는 나라	신형진	푸른책들	초5-6
71	어린이	공감	벤은 나와 조금 달라요	캐시 후프먼	스콜라	초5-6
72	어린이	사회성기우기	어린이를 위한 화해	전지은	위즈덤하우스	초5-6
73	어린이	왕따	왕따	이윤학	문학과지성사	초5-6
74	어린이	사랑, 우정	행복한 파스타 만들기	샤론 크리치	비룡소	초5-6
75	어린이	그림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모네	김강우	아이세움	초5-6
76	어린이	성장	밴드마녀와 뽕공주	김녹두	한겨레아이들	초5-6
77	어린이	가족, 입양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김려령	문학동네	초5-6
78	어린이	음식문화	우리 음식 안녕?	최서영, 최강문	올벼	초5-6
79	어린이	자기개발	어린이를 위한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레이 허버트	위즈덤하우스	초5-6
80	어린이	믿음	토비의 특별한 여름	발레리 홉스	주니어김영사	초5-6

번호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81	어린이	역사소설	꽃신	김소연	파랑새	초·6
82	어린이	문화재	교과서 속 구석구석 우리 문화재	서찬석·신응섭	계림북스	초·6
83	어린이	생각표현	생각이 말을 할 때	엘레나 로웬탈	중앙출판사	초·6
84	어린이	자기계발	애들아, 무지개 집으러 가자!	차동엽	위즈앤비즈	초·6
85	어린이	용기·자신감	꼬리 없는 쥐, 맵스 마우스	폴 갤리코	문학수첩	초·6
86	어린이	성장소설	옥수수가 익어가요	도로시 로즈	열린어린이	초·6
87	어린이	성장소설	안녕히 계세요	남찬숙	우리교육	초·6
88	어린이	인종차별	리언 이야기	리언 윌터 킬리지	바람의아이들	초·6
89	어린이	자신감·칭찬	집	피터 레이놀즈	문학동네	초·6
90	어린이	인생의 지혜	천재를 뛰어넘은 77인의 연습별레들	박성철	다산어린이	초·6
91	어린이	도덕철학	첫 단추	고정욱	샘터	초·6
92	어린이	자기계발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리더	김현민	아이앤북	초·6
93	어린이	어린이 권리	세상의 아이야, 너희가 희망이야	베르나르 베르베르 외 9명	푸른나무	초·6
94	어린이	호기심	주니어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예코주니어	초·6
95	어린이	환경	쓸모 있는 자원 쓰레기	한미경	주니어김영사	초·6
96	어린이	미술	앗! 미술탐정이 나타났다	신경애	계림	초·6
97	문학	어머니	단하루만더	미치 앨범	세종서적	청소년
98	문학	인생론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앤디 앤드루스	세종서적	청소년
99	문학	전쟁	집으로 가는 길	이스마엘 베아	북스코트	청소년
100	문학	성장소설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열림원	청소년
101	문학	인간관계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현대문학	청소년
102	문학	역사추리	외규장각 도서의 비밀1, 2	조완선	휴먼앤북스	청소년
103	문학	자선사업	히말라야 도서관	존 우드	세종서적	청소년
104	문학	성장소설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청소년
105	문학	성장소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청소년
106	교육	학습법	허버드 스타일	강인선	웅진지식하우스	청소년
107	교육	유학·진로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조현영	북하우스	청소년
108	인문과학	조선	조선 블로그	문명식·이현	생각과느낌	청소년
109	인문과학	책임기	책임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이권우	그린비	청소년
110	사회과학	인간계통·환경생물학	우체부 프레드	마크 샌번	랜덤하우스	청소년
111	사회과학	자기경영	피라니아 이야기	호야킴 데 포사다	시공사	청소년
112	과학	기초과학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강양구	뿌리와이파리	청소년
113	과학	한국과학사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신동원	한겨레출판	청소년
114	과학	발명·특허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발명교과서	이창욱 외	해냄	청소년
115	예술·취미	미술에세이	나의 꿈, 유럽 미술관에 가다	허은경	삼우반	청소년
116	교육	참교육·교수법	생각수업	아마모토 미메	열음사	교·학·부

# 이천시립도서관 이용안내

## 공통사항

09:00~18:00 (월요일 휴)

## 이용시간

구분	화요일~금요일	토·일요일
문헌정보실	09:00~22:00	09:00~18:00
전자정보실	09:00~20:00	
가족열람실	09:00~18:00	09:00~18:00
자유열람실	08:00~23:00 (연중 무휴)	
어린이도서관	09:00~18:00 (월요일 휴관)	

-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가 공휴일
- 임시휴관일 : 도서의 정리·점검 및 내부수리 등 필요한 사유 발생시

## 회원가입 및 대출안내

- 회원대상 : 경기도민
- 회원가입 방법
  - (1) 도서관 홈페이지([www.icheonlib.go.kr](http://www.icheonlib.go.kr))에서 회원가입
  - (2) 안내실에서 신분확인 및 사진촬영 후 대출증 발급
 ※ 구비서류 : 일반회원 - 신분증, 어린이회원-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동반 단,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만 회원증 발급 가능
- 대출 : 5권, 14일 이내
- 대출제한 : 연체일수만큼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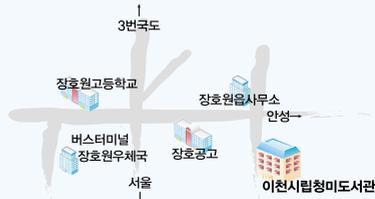
## 이천시립도서관



### • 시설현황

-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도서관길 1번지 (창전동 335-9)
- ▷ 부지 : 5,711.375㎡(1,728평)
- ▷ 건물 연면적 : 3,296.88㎡(997.3평) 지상 3층 지하층 건물
- ▷ 실별 현황 : 문헌정보실, 가족열람실,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자유열람실, 장애우열람실, 시청각실
- ▷ 전화 : 031)644-4351~61   ▷ 전송 : 031)644-4369

## 청미도서관



### • 시설현황

-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공원길 123번지 (장호원3리 371)
- ▷ 부지 : 3,305㎡(1,000평)
- ▷ 건물 연면적 : 1,616㎡(489평)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 ▷ 실별 현황 : 문헌정보실, 가족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 자유열람실, 시청각실
- ▷ 전화 : 031)644-4371~75    ▷ 전송 : 031)644-4379

## 어린이 도서관



### • 시설현황

-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59번지 (중리동 187번지)
- ▷ 건물 전용면적 : 1,320.70㎡(399.51평)
- ▷ 실별 현황 : 새책자료실, 꿈나무자료실, 소근소근방, 도란도란방, 어울림터, 꿈이룸방 1·2, 보존서고
- ▷ 전화 : 031)644-4381~4    ▷ 전송 : 031)644-4348

2009 독서감상문 모음집

# 책바라기

| 발 행 일 | 2009년 12월 31일

| 발 행 처 | 이천시

| 발행부서 | 이천시평생학습센터

| 인 쇄 처 | 디자인맥터

비매품